2026학년도

연세대학교

논술 파이널

필수편

1강 2025학년도 기출문제
2강 2024학년도 기출문제
3강 2023학년도 기출문제
4강 2022학년도 기출문제
5강 2021학년도 기출문제 1
6강 2021학년도 기출문제 2
7강 2021학년도 모의논술
8강 2020학년도 기출문제 1
9강 2020학년도 기출문제 2
10강 2020학년도 모의논술

메가스터디 장진석 논술

제 1 강 2025학년도 기출문제

※ 아래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제시문 (가)

오늘날 우리는 인간 복제, 안락사, 사형제도, 테러리즘 등 수많은 도덕적인 문제와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올바른 행위를 해야 한다는 도덕적 요구를 피할 수 없다. 도덕적 행동은 인간성의 존엄함과 숭고함에 대하여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하철 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고 정작 자신은 죽어간 젊은 청년의 이야기에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들의 삶에서,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웃에게서 우리는 도덕적 행동을 발견하고 존경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

인간의 행위를 도덕적으로 선하게 만드는 것은 결과의 좋음이나 유용함이 아니라 그 행위를 낳은 의지의 선함, 즉 선의지에 있다. 왜냐하면 선의지만이 무조건적으로 선하기 때문이다. 선의지란 다른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옳다는 이유만으로, 즉 의무이기 때문에 행위하는 의지를 말한다. 달리 말해서 선의지란 오직 도덕법칙을 따르려는 의지이다.

인간은 자신의 이익이나 즐거움을 추구하려는 욕구, 두려움이나 동정심 등의 감정과 같은 자연적 경향성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도덕법칙을 명령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도덕법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도덕법칙은 인간에게 '도덕법칙에 따라 행위하라'는 명령으로 다가온다. 도덕적 명령은 어떤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명령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인 무조건적인 명령이다.

그러나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고, 이성적 존재란 자기 의지의 모든 주관적 규칙을 통해 보편적으로 법칙을 수립하는 자로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도덕적 명령을 따르는 것은 외부에서 부과된 법칙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 존재가 자신의 의지에 의해 스스로 수립한 보편 법칙에 스스로 복종하는 것이다. 즉, '의지의 자율'이다. 이성적 존재는 도덕적 존재로서 자유로우며, 그 자유의 본질은 의지의 자율이다.

한 사람이 선택한 주관적인 행위 규칙을 다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이 주관적 규칙이 도덕법칙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자신의 주관적 규칙이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따르는 보편 법칙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이성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이성적 검토를 거쳐 보편 법칙이 될 수 있는 규칙을 자신의 행위 규칙으로 삼아서 그 규칙에 따라 행위해야 한다. 도덕은 우리에게 자신만을 예외로 인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우리와 타인을 보편적 관점에서 동등하게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제시문 (나)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 속에 썩은 통나무 한 개비를 집어던졌다. 그러나 미처 그 통나무 속에 개미집이 있다는 것을 나는 몰랐다. 통나무가 우지직, 소리를 내며 타오르자 별안간 개미들이 떼를 지어 쏟아져 나오며 안간힘을 다해 도망치기 시작한다. 그들은 통나무 뒤로 달리더니 넘실거리는 불길에 휩싸여 경련을 일으키며 타 죽어 갔다. 나는 황급히 통나무를 낚아채서 모닥불 밖으로 내던졌다. 다행히 많은 개미들이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다. 개미들은 좀처럼 불길을 피해 달아나려고 하지 않는다. 가까스로 공포를 이겨낸 개미들은 다시 방향을 바꾸어 통나무 둘레를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그 어떤 힘이 그들을 내버린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 것일까? 개미들은 통나무 주위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리곤 그 많은 개미들이 통나무를 붙잡고 바동거리며 그대로 죽어가는 것이었다.”

동물학자가 된 이후에야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지만, 솔제니친의 〈모닥불과 개미〉를 읽었을 당시에는 나도 개미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정말 궁금했다. 자기가 손해보고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어떻게 일반화될 수 있는지 이성적으로는 해답을 찾기 힘든 문제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인간 사회에도 있고 동물 세계에도 이러한 이타주의가 존재한다. 나는 유전자의 관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런히 정리할 수 있었다. 유전자의 관점에 따르면 살아 숨 쉬는 우리는 사실 DNA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일 뿐이다. 집을 지키기 위해 불길에 뛰어들어 자기를 희생하는 개미들의 행동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유전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명쾌하게 다시 분석하면서 황홀함을 느끼기도 했다. 하지만 황홀함은 시간이 지나면서 좌절감으로 변하기 시작했

다. 처음에는 답을 얻은 기분에 세상이 달라 보였는데, 그 단계가 지나니 시간이 지날수록 만사가 시시하게 여겨졌다. '그래, 무엇 때문에 난 그렇게 애를 썼나?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기를 쓰나? 모든 것이 유전자 때문인데, 유전자가 계획한 대로 움직이는 것뿐인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모든 것에서 맥이 풀렸다.

다행히 방황이 길지는 않았고 재해석을 통해 세상의 의미를 정리했다. 그러면서 내가 할 일, 해야 할 일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없어져도 세상에 아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존재야.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굳이 없어질 필요는 없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나의 모든 상황에 온 힘을 다하고 즐기며 사는 것이다. 나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담담히 가면 된다.' 그러면 세상도 나도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고 생각한다. 내게 주어진 것보다 더 많은 무엇을 해보겠다고 욕심을 부리며 아등바등 살 필요는 없다.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들은 어떻게 보면 내 유전자가 나한테 허락한 범주 내에서의 일들이다.

제시문 (다)

Come on, let's examine our consciences, let's listen to our hearts. We know very well who you are; we know very well that you are all brave men! We know very well that your souls are full of the joy and the glory of giving your lives for the great cause; we know very well that you feel you've been selected to die meaningfully and magnificently and that each of you is dedicated to your part in the triumph. You are not alone in this world. There are other beings you have to think of. You must not be selfish.

Citizens, do you picture the future to yourselves? Citizens, where are we headed for? We are headed for the union of peoples, we are headed for the unity of mankind. France will see the brilliant future in its history. Citizens, whatever happens today, through our defeat every bit as much as through our victory, we will bring about a revolution. Just as big fires light up the whole city, revolutions light up the whole human race. And what revolution are we going to bring

about? I just told you: Liberty, Equality, and Fraternity*. We do not doubt our cause even if we doubt our success. Help is evidently on the way. But, whether the civil army comes to help us or not—what does it matter! Let's get killed here to the very last man!

Friends, the moment we have reached, this moment in which I'm speaking to you is a cruel moment. But this is the terrible cost of the future. A revolution is a toll**. Oh! the human race will be liberated, lifted up, and relieved! We swear to it on this barricade***. Where will the cry of love go up from if not from the height of sacrifice?

Oh my brothers, this is the very spot where those who think and those who suffer come together as one. Here, suffering meets the ideal. Here, the day embraces the night and says to it: I am going to die with you, and you are going to be born again with me. From this embracing of all sorrows springs faith. Suffering brings its pain here, and ideal brings its eternity. This pain and this eternity are going to combine and compose our death. Brothers, whoever dies here dies in the glory of the future, and we will enter a grave entirely lit up by dawn.

* fraternity: 박애 ** toll: 통행료 *** barricade: 바리케이드

제시문 (라)

한 연구팀이 2021년 말 모 도시에서 무작위로 고등학생 1,000명을 뽑아 가치관과 시간 사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나의 미래는 나의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에 동의한 학생들(A 그룹)과 '나의 미래는 나의 타고난 재능에 따라 결정된다'에 동의한 학생들(B 그룹)로 구분했다. 〈표 1〉은 각 그룹 학생들의 2021년 ① 월평균 공동체 봉사 시간, ② 월평균 자기개발 시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여준다.

한편, 이 도시의 교육 당국은 2022년부터 공동체 봉사 시간을 대학 입시에 반영하지 않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연구팀은 방침 변경 후 2022년 말에 A 그룹 학생들의 ① 월평균 공동체 봉사 시간, ② 월평균 자기개발 시간을 다시 조사했다. 방침 변경 후 공동체 봉사 시간 상위 50% 학생들(A-1 그룹)과 하위 50% 학생들(A-2 그룹)의 조사 결과는 아래

〈표 2〉와 같다.

〈그림 1〉은 A 그룹과 B 그룹의 2021년 '생활의 즐거움' 정도(100점 만점) 조사 결과, 그리고 A-1 그룹과 A-2 그룹의 2021년 방침 변경 전과 2022년 변경 후 '생활의 즐거움' 정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비교를 위해 다른 요소들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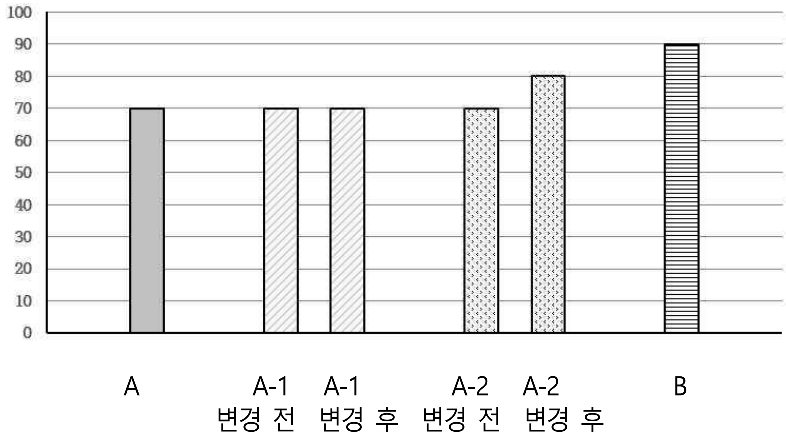
<표 1> A 그룹과 B 그룹의 조사 결과

	공동체 봉사 시간	자기개발 시간
A 그룹	20	10
B 그룹	10	20

<표 2> A-1 그룹과 A-2 그룹의 방침 변경 전과 변경 후 조사 결과

	방침 변경 전		방침 변경 후	
	공동체 봉사 시간	자기개발 시간	공동체 봉사 시간	자기개발 시간
A-1 그룹	20	10	18	12
A-2 그룹	20	10	14	16

<그림 1> '생활의 즐거움' 정도



문제 1-1

제시문 (다)를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각각 설명하시오. (600자 안팎, 25점)

문제 1-2

아래 [지문 A]를 읽고 제시문 (가)의 관점과 비교 설명하시오. (600자 안팎, 25점)

〔지문 A〕

도덕에서는 무엇보다 실천이 중요한데, 이성은 참이나 거짓을 밝히거나 사물의 원인과 결과를 따질 수 있을 뿐 어떤 의욕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반면, 감정은 행위를 직접 유발하는 동기가 될 수 있다. 이때 오로지 자신만이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은 도덕적 구별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인간은 자신의 개인적이고 특수한 상황을 떠나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감정을 가져야 한다. 그는 인간 본성 안의 보편적 원리를 움직여, 모든 인간이 거기에 화답할 수 있는 소리를 내야 한다. 인류애가 허영심이나 야망처럼 그렇게 강한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을지 모르나, 그것은 모든 인간이 공유한 것으로서 유일하게 도덕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성은 우리의 감정이 원하는 바를 실현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을 알려줌으로써 도덕적 행위자에게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다쳐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돕는 행동은 연민의 감정에서 나오지만 그 사람을 효과적으로 돕는 방법은 이성으로 강구할 수 있다.

문제 2-1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를 바탕으로 제시문 (라)를 분석하고 설명하시오. (600자 안팎, 25점)

문제 2-2

어떤 국가에서 인구의 60%는 이타적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며, 나머지 40%는 이타적 기질 없이 태어난다. 타고난 이타적 기질의 유무는 헌혈, 장기기증, 자원봉사 등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인구 비율에 영향을 준다. 이타적 기질을 타고난 사람 중 60%는 항상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적절한 정책이 시행되면 최대 75%까지 공동체 활동에 참여한다. 반면, 이타적 기질을 타고나지 않은 사람 중 20%만 항상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적절한 정책이 시행되어도 최대 25%까지만 공동체 활동에 참여한다. 이 국가에서 전체 인구 중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비율의 최솟값을 P, 최댓값을 Q라고 하자. 이 국가의 정부는 공동체 활동 촉진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가 가능한 역량의 $100x\%$(단, $0 \le x \le 1$)를 그 정책에 투입하면, $g(x)=x^4-8x^2+11x$만큼의 재정 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나 그 정책을 통해 공동체 활동 참여 인구 비율은 $P+x(Q-P)$가 되고, 참여 인구 비율에 비례하여 사회적 편익 $f(x)=100\{P+x(Q-P)\}$가 발생한다. 정부는 공동체 활동의 편익에서 정책 비용을 뺀 $y=f(x)-g(x)$가 최댓값을 갖도록 x를 정한다. 정부가 선택하는 x를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 활동 참여 인구 비율에 관한 결과를 제시문 (나)와 연결지어 해석하시오. (글자 수 제한 없음, 25점)

2025학년도 기출문제 해설

[문제 1]

1. 출제 의도

1. 이번 <인문계열> 논술시험은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지문과 문제를 통해 수험생의 종합적인 사고능력을 측정하려는 취지로 구성되었다.
2. 고등학교 교과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에서 다루는 '이타주의'를 대주제로 설정하고, 이타주의의 원동력이 되는 '선의지'와 '도덕적 명령', '유전자(DNA)'에 의한 결정, '이성', '감정', '실천' 등의 개념을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하고 추론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3. 제시문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등재된 지문을 발췌하고 편집하였으며, 교과서에 출처가 표시된 원전의 일부를 활용하였다.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접하는 주제와 개념을 이해하고 교과서 지문에 익숙한 수험생이라면 제시문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4. 이타주의를 설명하는 두 가지 관점과 관련된 제시문들을 비교, 분석하게 하여 수험생의 독해력, 논리력, 표현력과 독창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2. 문항 해설

제시문 (가)는 교과서 <고전과 윤리>(전라북도교육청, 2020, 42-43쪽)에 제시된 "<윤리형이상학 정초>와 칸트의 윤리 사상" 내용을 발췌하여 출제 의도에 맞추어 수정한 것이다. 제시문 (가)는 인간의 행위를 도덕적으로 만드는 것은 결과에 상관없이 도덕법칙에 따라 선을 실천하고자 하는 선의지라고 말한다. 따라서 단지 옳다는 이유에서 도덕적 실천을 하는 의지만이 무조건적으로 선하다. 이런 선의지에 따라 행위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자연적 경향성을 극복해야 한다. 인간은 이 자연적 경향성을 극복하기 어려우므로 도덕법칙은 인간에게는 강제적 명령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인간은 이성적 존재자이므로 도덕명령에 따르는 것은 외적인 강제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성적 검토를 통해 스스로가 수립하고 스스로 복종하는 자율적인 의지에 의한 것이다. 이때 이성은 한 개인의 주관적 행위 규칙이 모든 사람이 따르는 보편 법칙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보편적 도덕법칙을 수립하게 된다.

제시문 (나)는 이타주의 및 인간 행위의 가능성을 유전자 결정론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최재천의 <과학자의 서재>의 일부를 출제 의도에 맞추어 수정한 것이다. 이 글은 <고등학교 국어> (천재교육, 2020, 117-123)와 <고등학교 국어>(금성출판사, 2020, 226-230)에 실려 있다. 필자는 솔제니친의 글 <모닥불과 개미>를 언급하며 집과 다른 개미들을 구하기 위해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개미의 희생적인 행동에서 이타주의를 읽어낸다. 이어 인간의 이타주의도 언급하면서, 동물과 인간 세계에 존재하는 이타주의의 기원을 유전자에서 찾는다. 모든 존재는 "DNA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일 뿐"이라는

명제로 이러한 관점을 명료하게 표현한다. 그러나 필자는 유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이어서 필자는 유전자가 허락한 범주에서 자신이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을 해나가는 긍정적인 태도에서 삶과 존재의 의미를 찾고 있다.

제시문 (다)는 교과서 <고등학교 국어>(금성출판사, 2020, 173쪽)에 게재된 <레미제라블>의 한 대목에 해당하는 영어 번역본 부분을 발췌하여 출제 의도에 맞추어 수정한 것이다. 제시문 (다)는 프랑스 혁명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연설문이다. 화자는 청자들이 양심과 마음에 귀 기울여 대의에 헌신하려는 열의를 깨닫기를 촉구하며, 남들을 생각하고 이기적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늘 죽을지라도 혁명을 일으켜 프랑스에 밝은 미래를 가져다주자고 호소하며 자유, 평등, 박애의 대의를 의심하지 않는다고 외친다. 목숨을 바치는 희생은 인류가 해방되기 위한 통행료이기에 자신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을 것임을 설득하고 있다.

제시문 (라)의 <표 1>은 의지를 중요시하는 학생들(A 그룹)과 타고난 재능을 중요시하는 학생들(B그룹)의 공동체 봉사 시간과 자기개발 시간을 표시하였다. <표 2>는 공동체 봉사 시간의 대학 입시 미반영 방침 후, A 그룹 중 공동체 봉사 시간 상위 50%인 A-1 그룹과 하위 50%인 A-2 그룹의 공동체 봉사 시간과 자기개발 시간을 표시하였다. <그림 1>은 A 그룹, B 그룹, A-1 그룹, A-2 그룹의 방침 변경 전과 후의 생활의 즐거움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참고: 제시문 <다> 영문 번역

자, 양심을 돌이켜보고 마음에 물어봅시다. 우리는 여러분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소. 여러분이 모두 용감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소. 여러분이 대의를 위해서 목숨을 내던지는 기쁨과 명예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잘 아오. 여러분 스스로가 의미 있고 당당히 죽기를 위해 선택되었으며, 한 사람 한 사람이 승리의 몫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소. 그러나 여러분은 이 세상에 혼자 있는 게 아니오. 생각해야 할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소. 이기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오.

여러분, 여러분은 미래를 마음속에 상상해 보았소?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갈 것입니까? 우리는 여러 민족의 단결을 향하여 가는 것이고, 인류의 단결을 향하여 가는 것이오. 프랑스는 그 역사에서 이 장엄한 미래를 볼 것이오. 여러분, 오늘 일이 어떻게 되건, 승리를 얻게 되건 패배하건 우리가 완수하려는 것은 혁명이오. 큰 화재가 온 도시를 환하게 비추듯, 이 혁명이 전 인류를 비출 것이오. 그럼 우리는 어떤 혁명을 할 것인가? 내가 여러분에게 방금 말했소. 자유, 평등, 박애이오. 우리가 만약 우리의 성공을 의심하더라도 우리의 대의를 의심하지 않소. 지원군은 틀림없이 올 것이오. 그러나 지원군이 오든 오지 않든 그것이 무슨 문제이오! 마지막 한 사람까지 여기서 남아 싸우다 죽읍시다!

벗들이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는 암흑의 시대인 것이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미래를 획득하기 위해 우리가 지불해야 할 당연한 비용이오. 혁명은 하나의 세금이오. 오! 이리하여 인류는 해방되고 훌륭하게 위로받을 것이오! 우리는 이 바리케이드 위에서 그것을 인류에게 단언하오. 사랑의 외침 소리는 높은 희생정신이 아니면 어디서 나올 수 있겠소?

형제들이여, 여기는 생각하는 자와 괴로워하는 자가 서로 결합하는 곳이오. 이곳에서 비참함과 이상이 서로 만날 것이고, 낮은 여기서 밤을 포옹하며 이렇게 말할 것이오. 나는 그대와 함께 죽고, 그대는 나와 함께 다시 태어나는 것이오. 온갖 고통을 끌어안는 데서 굳은 신념이 솟구쳐 나오는 거요. 비참함이 여기에 고통을 가져오고, 이상은 불멸을 가져오고 있소. 그 고통과 불멸은 융합되어 머지않아 우리의 죽음을 이룰 것이오. 형제들이여, 이곳에서 죽는 자는 미래의 광명 속에서 죽는 것이오. 우리는 새벽에 떠오르는 태양 빛으로 가득한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이라오.

[문제 2]

1. 출제 의도

[문제 2-1]

제시문 (라)의 <표>와 <그래프>는 가상의 한 도시에서 고등학생들의 가치관, 시간 사용, 즐거움의 정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출제 의도에 맞춰 작성한 것이다. 제시문 (라)는 서로 다른 학생 그룹에서 의지와 타고난 재능의 중요성, 이타적 행동, 즐거움의 정도에 대한 비교를 통해 <표>와 <그림>을 이해하고, 제시문 (가)와 (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문제 2-2]

공동체적, 이타적 행동에서 타고난 유전자의 역할과 인간의 역할 사이의 관계를 수리적 개념을 사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2. 문항 해설

[문제 2-1]

제시문 (라) <표 1>은 의지를 중요시하는 학생들(A 그룹)과 타고난 재능을 중요시하는 학생들(B 그룹)의 공동체 봉사 시간과 자기개발 시간을 표시하였다. <표 2>는 봉사 시간의 대입 입시 미반영 방침 후, A 그룹 중 봉사 시간 상위 50%인 A-1 그룹과 하위 50%인 A-2 그룹의 공동체 봉사 시간과 자기개발 시간을 표시하였다. <그림 1>은 A 그룹, B 그룹, A-1 그룹, A-2 그룹의 방침 변경 전과 후의 생활의 즐거움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 2-2]

(1)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비율 및 관련 함수 계산

전체 인구 중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비율 = 이타적인 사람 비율 × 이타적인 사람 공동체 활동 비율 + 이타적이지 않은 사람 비율 × 이타적이지 않은 사람 공동체 활동 비율

이 식을 이용해 전체 인구에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비율의 최솟값 및 최댓값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최솟값: $P = 0.6 \times 0.6 + 0.4 \times 0.2 = 0.44$

최댓값: $Q = 0.6 \times 0.75 + 0.4 \times 0.25 = 0.55$

정부가 가능한 역량의 $100x\%$를 정책에 투입하면 공동체 활동 참여 인구 비중이 다음과 같다.

$P + x(Q - P) = 0.44 + (0.55 - 0.44)x = 0.44 + 0.11x$

이를 이용해 공동체 활동의 편익을 계산할 수 있다.

$f(x) = 100\{P = x(Q - P)\} = 100(0.44 + 0.11x) = 44 + 11x$

그러면 공동체 활동의 편익에서 정책 비용을 뺀 y를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y = f(x) - g(x) = 44 + 11x - (x^4 - 8x^2 + 11x) = -x^4 + 8x^2 + 44$

(2) 정부의 문제 풀기

정부의 문제는 y가 최댓값이 되는 x를 닫힌구간 $[0,\ 1]$에서 찾아야 한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y의 도함수를 구하고, 인수분해하면 다음과 같다.

$y' = -4x^3 + 16x = -4x(x+2)(x-2)$

$x = 0$이면 $y' = 0$이고, $0 < x \leq 1$이면 $y' > 0$이다. 따라서 y는 구간 $[0,\ 1]$에서 증가이다. 그러므로 구간 $[0,\ 1]$에서 y가 최댓값이 되려면 $x = 1$이어야 한다. 즉 정부는 가능한 역량의 100%를 공동체 활동 촉진 정책에 투입한다.

(3) 공동체 활동 참여 인구 비율을 제시문 (나)와 연결지어 해석

제시문 (나) 저자의 태도는 공동체 활동 참여 인구 관련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① 유전자의 영향이 절대적이다.

정부가 아무 일도 하지 않더라도, 이타적 기질을 타고난 사람의 60%, 이타적 기질을 타고나지 않은 사람의 20%는 공동체 활동에 참여한다. 즉 타고난 기질에 따라 공동체 활동 참여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그리고 $P = 0.44$이므로, 인구의 44%는 유전자에 따라 공동체 활동을 하도록 정해져 있는 셈이다. 이런 점은 유전자의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제시문 (나)의 논지와 비슷하다.

② 그래도 인간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살아야 한다.

정부는 $x = 1$을 선택한다. 즉 공동체 활동 촉진을 위해 가능한 역량을 모두 투입할 정도로 최선을 다한다. 이 점은 유전자가 매우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모든 상황에 힘을 다하여 살겠다는 제시문 (나) 저자의 결심과 일맥상통한다.

③ 하지만 인간의 성취는 유전자가 정한 한계 내에서 가능하다.

정부가 $x = 1$, 즉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공동체 활동 촉진 정책을 펼치더라도,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비율은 타고난 기질에 의해 최댓값으로 규정된 $Q = 0.55$를 넘지 못한다. 즉 인간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이룰 수 있는 일은 유전자가 허락한 범주 내에서 가능하다는 제시문 (나)의 주장과 비슷하다.

선생님 예시답안

[문제 1-1]

(다)의 필자는 자유, 평등, 박애의 대의를 위해 혁명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의 희생은 인류 공동체 전체와 미래를 위한 것이기에 헛되지 않을 것이라 주장한다.

(가)의 관점에서 (다)의 주장은 공동체적 가치 수호라는 보편적 의무 이행을 위한 자유의지의 발현이라 설명할 수 있다. (가)는 개인 스스로가 수립하고 복종하는 자율적인 의지를 통해 보편적 도덕법칙을 수립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다) 역시 각자의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공동체 전체를 위한 이타적 희생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다만, 이성적 검토와 판단을 중시하는 (가)와 달리, (다)는 지나치게 감정에 호소함으로써 개개인의 이성적 판단을 제한할 위험성이 존재한다.

(나)의 관점에서 (다)의 희생을 통한 공동체적 가치 추구는 유전자의 본성이 집단적으로 발현된 것이라 설명할 수 있다. (나)는 개미의 사례를 통해 유전적 결정론에 따른 이타적 희생의 의미를 설명한다. (다) 역시 지금의 죽음이 새로운 탄생으로 이어지며 불멸의 가치를 지님을 강조한다. 개인은 죽지만 공동체의 가치는 영원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타적인 희생을 촉구한다. 다만, 유전적 한계를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의 주체적 삶을 추구하는 (나)와 달리, (다)는 타인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한계가 있다. (640자)

[문제 1-2]

두 제시문은 공통적으로 보편적이고 이타적인 도덕적 실천을 중시한다. 이 도덕적 행위의 기준은 개인의 주관적이고 자유로운 판단으로부터 출발해서 공동체적, 보편적인 것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또한 두 제시문 모두 이성이 행위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이성의 역할을 인정한다. 다만, 도덕행위의 원천에 대해서는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 (가)는 도덕행위의 원천을 이성으로 보는 반면, (A)는 감정으로 파악한다.

(가)는 도덕적 행위의 근본 동인이 합리적 이성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반면, 감정은 극복 대상으로 여긴다. 인간은 이성과 자유의지를 통해 도덕법칙인 명령에 스스로 복종하고, 이성적 검토를 통해 주관적 규칙을 보편법칙으로 확장한다. 그리고 그 도덕법칙의 강제성을 통해 욕구, 두려움 등의 감정적 성향 즉, 자연적 경향성을 극복하여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게 된다.

반면, (A)는 도덕적 행위의 근본 동인이 감정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반면, 이성은 수단에 불과함을 강조한다. 이 때 감정은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차원이 아닌 인류애와 같이 타인과 공유 가능한 보편적 감정을 의미한다. 그리고 해결방법 도출을 위한 수단으로써 이성의 가치는 인정하지만, 이성이 행위의 동인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612자)

[문제 2-1] 답안 ①

자신의 의지를 중시하는 A그룹은 공동체 봉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이는 선의지에 따른 보편적 가치 실현을 강조하는 (가)의 주장과 유사하다. A그룹은 이성적 검토를 통해 공동체에 대한 이타적인 행위를 선택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자연적 경향성을 극복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방침 변경 후에 A그룹의 봉사시간은 모두 감소했다. 이는 (가)의 주장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증명한다. 즉, 선의지에 따른 이타적 행위도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외적 요인에 의해 바뀔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봉사시간 감소량이 더 큰 A2그룹은 상대적으로 대입이라는 개인적 이익에 따라 봉사를 수단적 가치로 인식하고, 자기개발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을 가능성이 높다. A2그룹만이 변경 후 생활 만족도가 증가한 이유도 입시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올리기 위한 감정욕구가 더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타고난 재능을 중시하는 B그룹은 자기개발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이는 자신의 유전적 특징을 살려 미래를 대비하는 것으로, 결정론 속

에서 주체적 삶을 강조하는 (나)의 인식과 일치한다. 한편, B그룹의 생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이유는, 유전적 범위 안에서 주체적인 삶을 사는 것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나)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647자)

[문제 2-1] 답안 ②

의지를 중시하는 A그룹은 봉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이는 선의지에 따른 보편적 가치 실현을 강조하는 (가)의 주장과 유사하다. 다만, 자기개발에도 적지 않은 시간을 투자하는데, 이는 자유의지가 항상 이타적으로 발현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방침 변경 후에 A그룹의 봉사시간은 모두 감소했다. 이는 (가)의 주장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증명한다. 선의지에 따른 이타적 행위도 외적 요인에 의해 바뀔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봉사시간 감소량이 더 큰 A2그룹은 대입이라는 개인적 이익에 따라 봉사를 수단적 가치로 인식하고, 자기개발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을 가능성이 높다. A2그룹만이 변경 후 생활 만족도가 증가한 이유도 입시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올리기 위한 감정욕구가 더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재능을 중시하는 B그룹은 자기개발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이는 자신의 유전적 특징을 살려 미래를 대비하는 것으로, 결정론 속에서 주체적 삶을 강조하는 (나)의 인식과 일치한다. 다만, 이타적인 봉사에도 적지 않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유전자의 영향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입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기적 판단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 한편, B그룹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이유는 유전적 범위 안에서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만족스럽다는 (나)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658자)

[문제 2-2]

대학 해설 참고

제 2 강 2024학년도 기출문제

※ 아래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제시문 (가)

기원전 5세기의 중국 철학자 묵자는 그 당시 전쟁이 불러온 참상에 놀라 다음과 같이 물었다. “무엇이 보편적인 사랑과 상호 이익으로 가는 길인가?” 그리고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것은 다른 나라를 내 나라처럼 여기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어느 나라 출신이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나는 세계의 시민이다.” 20세기 말, 존 레논은 “나라가 없다고 상상해본다…… 온 세계를 함께 나누는 모든 사람을 상상해본다”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노래했다. 이러한 이상은 세계화된 사회에서 생활하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소중한 가치이지만, 민족국가로 구성된 현실에 대해 실제적인 영향력을 미치기엔 아직 미약한 꿈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모든 인간이 보편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 생명은 국적이나 인종과 상관없이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는 주장을 지지한다.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큰 재난에 처한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상대적 빈곤 상태에 놓인 우리나라 사람들을 같은 동포라는 이유로 우선시한다. 우리는 자국민의 이익을 타국민의 이익보다 훨씬 더 우위에 둔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우리가 태어난 장소는 단지 하나의 우연일 따름이라는 것이다. 디오게네스를 계승했던 스토아학파는 이 점을 인지하여, 국적이나 민족, 또는 문화 차이가 우리와 타인들 사이에 경계선을 긋도록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을 우리의 이웃이자 동료 시민으로서 간주해야 한다. 우리가 충성해야 할 대상은 특정한 정부나 세속적 권력이 아니라 인류 공동체인 것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국적이나 민족과 상관없이 무조건 돕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칸트는 인류가 지구 땅덩어리를 공동으로 소유하므로 모든 사람에게는 환대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래 어떤 사람도 지구상의 특정 지역에 대해 남보다 더 우선적인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또 사람들은 지구 위에서 영원토록 점점이 흩어져 살 수 없는 까닭에 결국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교류해야만 한다. 환대란 이방인이 낯선 땅에 도착했을 때, 적으로 간주되지 않고 존중받을 권리를 말한다. 칸트는 이를 통해 멀리 떨어진 지구상의 각 지역이 서로 평화적으로 관계를 맺게 되고, 인류는 세계 시민적 체제에 점차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체제는 인류의 모든 근원적인 소질을 계발하고 완전한 시민적 통합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의 세계'라는 개념을, 민족국가를 뛰어넘는 도덕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나)

There are two kinds of cosmopolitanism.* One is the idea that we have obligations to others, obligations that go beyond those to whom we are related by the ties of families and friends, or even the more formal ties of a shared citizenship. The other is that we take seriously the value not just of human life but of particular human lives, which means seriously accepting the significance of the cultural practices and beliefs from particular human lives. People are different, the cosmopolitan knows, and there is much to learn from our differences. Because there are so many human possibilities worth exploring, we neither expect nor desire that every person or every society should integrate into a single mode of life. Whatever our obligations are to others (or theirs to us), they often have the right to go their own way. There will be times when these two ideals—universal concern and respect for legitimate difference—clash. There is a sense in which cosmopolitanism is the name not of the solution but of the challenge. For instance, we agree that more aid to an extremely poor country is a good thing, but government officials in relatively rich countries need to consider their own trade and immigration policies in order to support their industries at home.

A citizen of the world: how far can we take that idea? Are you really supposed to give up all local loyalties and attachments in the name of humanity? Some supporters of cosmopolitanism were pleased to think so; but they often became easy targets of ridicule and were

blamed for "rootless cosmopolitanism." "A lover of humankind, but a hater of his family," Edmund Burke said of Jean-Jacques Rousseau, who handed each of his five children to an orphanage.**

Yet, the ideal version of the cosmopolitan belief has continued to hold a strong fascination. Virginia Woolf once argued "freedom from unreal loyalties"—to nation, school, neighborhood, and on and on. Some contemporary philosophers have similarly urged that the boundaries of nations are morally irrelevant—accidents of history with no rightful claim on our conscience.

But, fortunately, we need to take sides neither with the nationalist who abandons all foreigners nor with the strict cosmopolitan who regards her friends and fellow citizens with cold fairness. The position worth defending might be called a "rooted cosmopolitanism," which pursues universal values of world citizens, being grounded upon the differences in the lives of individuals, regions, and nations.

* cosmopolitanism: 세계시민주의 ** orphanage: 고아원

제시문 (다)

나보다 한 살 아래인 연주네는 딸을 두었는데 우리 준표 녀석이랑 같은 어린이집, 같은 '사랑반'에 다녔다. 유학생 시절 같은 학교 유학생 선배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는 한국인 연주는 이 도시에서 애를 가지고 낳고 키워온 덕분에 '한국인 거리'라 불리는 계림로 부근의 골목골목을 이젠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

"넌 참 좋겠다……."

외할머니가 보내준 학습지로 받침 없는 한글을 거의 뗐다는 연주네 딸내미, 그 어린 것이 발음하는 '표준 한국어' 억양을 들을 때마다 소위 대학교 한국어 강사라는 나 자신이 슬그머니 무색해지곤 했다.

"왜? 난 언니가 부러운걸? 언니는 두루두루 다 통하잖아."

연주는 택배 기사가 주소를 확인하는 전화를 걸어올 때마다 한참을 버벅거리다가 나한테 휴대폰을 넘겨주며 투덜댔다.

"아, 답답해. 룽리루* 후퉁**……. 이봐, 나도 언니처럼 하잖아. 그런데 왜 내 말은 못 알아듣는 거냐고?"

닝도 가끔 내게 그런 말을 하곤 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우리 집에서 샤부샤부를 해 먹던 날, 위성으로 한국 방송을 보며 그 분위기를 깊이 즐기는 나를 신기하게 바라보면서, 너는 조선족이라 두 나라 말을 다 하니 참 좋겠다고 부러워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다. 요즘 들어, 나는 때로 한국에서 온 연주처럼, 혹은 한족***인 닝처럼 차라리 한 가지 말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 만약 그랬더라면 나는 그 둘 중의 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준표를 한족 유치원에 보낼지 조선족 유치원에 보낼지와 같은 문제 따위로 머리를 썩일 일은 절대로 없었을 것이다.

연주와 닝, 매번 그들과 만나고 돌아올 때면, 나는 어느 누구하고도 같지 않은 나 자신을 더 또렷이 느끼곤 했다. 옛날에 디오게네스라는 이는 온 세상이 제집이라 했다던데……. 사람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고, 하늘 아래 땅 딛고 서면 결국 다 같은 사람이라고들 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디오게네스는 아니었다. 여러 문화의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 사는 이 도시에서 나야말로 모두와 다 통할 수 있는 사람일 거라는 애초의 희망과 믿음은 그렇게 묘하게 꺾이고 있었다.

아기자기한 한국 소품들로 가득 찬 연주네 집 거실 마룻바닥에 앉아서 연주가 사온 '코리안 빵집'의 앙금 빵에 믹스 커피를 마시며, 책장 옆에 붙은 '한국 지도'와 거기 그려진 무궁화를 구경하다가 나는 속으로 문득, 아, 그렇구나, 나는 아무리 해도 그녀들이 될 수 없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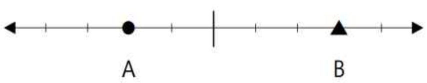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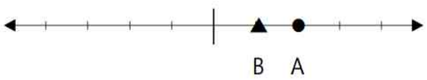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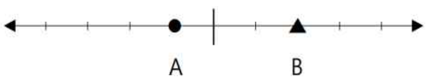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사람이 있을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그 자체일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이'와 '저' 사이에 존재하는 무수한 회색 지대, 그 지대마다 완전히 그 지대에 속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두 개의 완전수 사이에 확실하게 존재하는 무수한 소수처럼. 조선족이라는 울타리에 갇힌 나처럼.

* 룽리루: 중국의 촌급 행정구 '융리촌'에 있는 길
** 후퉁: 중국의 좁은 골목길을 이르는 말
*** 한족(漢族): 중국 본토에서 예로부터 살아온, 중국의 중심이 되는 종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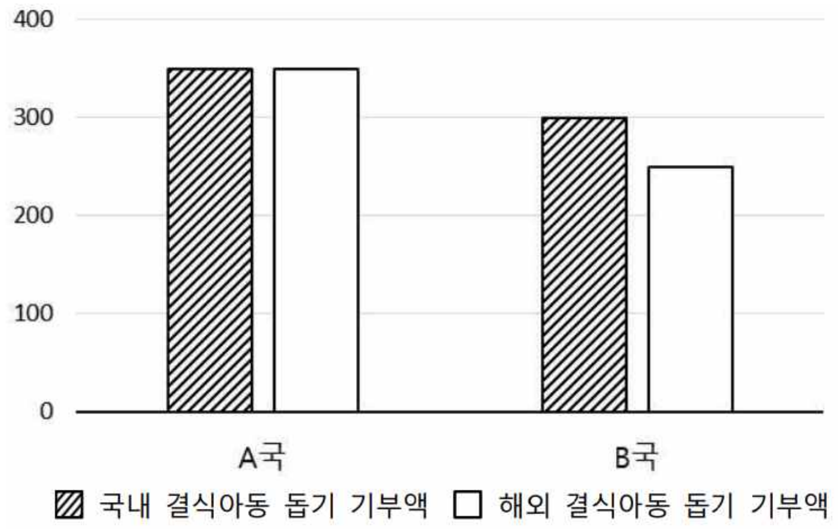
제시문 (라)

아래 <표>는 2022년 A국과 B국에서 각각 무작위로 뽑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ㄱ)과 (ㄴ) 중 무엇에 더 동의하는지 묻고 그 평균값을 표시한 것이다. 아래 <그림>은 2022년 1년간 A국과 B국의 국민들의 기부금 총액이다. 두 국가의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표> A국과 B국의 세계시민의식 조사

(ㄱ)	(ㄱ)에 더 동의 / (ㄴ)에 더 동의	(ㄴ)
일자리가 귀할 때 외국인도 차별 없이 고용해야 한다.		일자리가 귀할 때 자국민을 우선 고용해야 한다.
자국의 이익은 인류 공동의 이익에 우선한다.		인류 공동의 이익은 자국의 이익에 우선한다.
인류 보편의 가치는 문화적 특수성보다 존중되어야 한다.		문화적 특수성은 인류 보편의 가치보다 존중되어야 한다.

<그림> A국과 B국의 국내 결식아동 돕기 기부액과 해외 결식아동 돕기 기부액 (단위: 억 원)



문제 1-1

제시문 (다) 화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논지를 비교, 평가하시오. (600자 안팎, 25점)

문제 1-2

[지문 A] 화자와 제시문 (다) 화자의 내면적 변화를 세계시민주의의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시오. (600자 안팎, 25점)

[지문 A]

국철*을 타고 앉아 가다가
문득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들려 살피니
아시안 젊은 남녀가 건너편에 앉아 있었다
늦은 봄날 더운 공휴일 오후
나는 잔무하러 사무실에 나가는 길이었다
저이들이 무엇하려고
국철을 탔는지 궁금해서 쳐다보면
서로 마주 보며 떠들다가 웃다가 귓속말할 뿐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모자 장사가 모자를 팔러 오자
천 원 주고 사서 번갈아 머리에 써보고
만년필 장사가 만년필을 팔러 오자
천 원 주고 사서 번갈아 손바닥에 써보는 저이들
문득 나는 천박한 호기심이 발동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황급하게 차창 밖으로 고개 돌렸다
국철은 강가를 달리고 너울거리는 수면 위에는
깃털 색깔이 다른 새 여러 마리가 물결을 타고 있었다
나는 아시안 젊은 남녀와 천연하게
동승하지 못하고 있어 낯짝 부끄러웠다
국철은 회사와 공장이 많은 노선을 남겨 두고 있었다
저이들도 일자리로 돌아가는 중이지 않을까

* 국철: 서울 지하철 1호선

문제 2-1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제시문 (라)를 해석하시오. (600자 안팎, 25점)

문제 2-2 C국은 국민 대다수를 이루는 소비자와 소수의 기업가로 구성된다. 기업가는 생산을 통해 C국에 경제적 이득을 주지만, 탄소를 배출하여 C국과 다른 나라에 환경 피해를 유발한다. C국의 탄소 배출량이 x(단, $x \geq 0$)인 경우, 기업가의 삶의 질은 $f(x) = 20x - 2x^2$이고, 소비자의 삶의 질은 $g(x) = 8x - 2x^2$이며, 다른 나라 사람들의 삶의 질은 $h(x) = -x^3$이다. C국 정부는 탄소 배출량을 국민 다수인 소비자의 여론을 반영하여 다음 중 하나로 정한다.

(a) 소비자가 자국만을 고려할 경우, C국 전체의 삶의 질 $f(x)+g(x)$가 최댓값을 가질 때의 x의 값

(b) 소비자가 타국에 미칠 환경 피해도 고려할 경우, 세계 전체의 삶의 질 $f(x)+g(x)+h(x)$가 최댓값을 가질 때의 x의 값

두 경우 각각에 대해, C국의 탄소 배출량 x와 그에 따른 $f(x)$, $g(x)$, $h(x)$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이 결과를 해석하고, C국 소비자가 다른 나라를 대하는 태도가 C국 소비자, C국 전체, 세계 전체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시오. (글자 제한 없음, 25점)

2024학년도 기출문제 해설

[문제 1]

1. 출제 의도

1) 이번 <인문계열> 논술시험은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지문과 문제를 통해 수험생의 종합적인 사고능력을 측정하려는 취지로 구성되었다.
2) 고등학교 교과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에서 다루는 '세계시민주의'를 대주제로 설정하고, '차별없는 세계시민주의', '개인적, 지역적, 국가적 차이에 바탕을 둔 세계시민주의', '문화적 정체성', '세계시민주의의 수용' 등의 개념을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하고 추론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3) 제시문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등재된 지문을 발췌하고 편집하였으며, 교과서에 출처가 표시된 원전의 일부를 활용하였다.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접하는 주제와 개념을 이해하고 교과서 지문에 익숙한 수험생이라면 제시문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4) 세계시민주의의 두 가지 형태와 관련된 제시문들을 비교, 분석하게 하여 수험생의 독해력, 논리력, 표현력과 독창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2. 문항 해설

<제시문 해설>

제시문 (가)는 이상적인 세계시민주의를 다루는 것으로, 교과서에서 다루는 저자들인 피터 싱어, 마사 누스바움, 칸트의 지문들에서 발췌한 내용을 출제 의도에 맞추어 수정한 것이다. 피터 싱어의 저서 <세계화의 윤리>는 교과서 <윤리와 사상>(미래엔, 2021, 214쪽), <생활과 윤리>(미래엔, 2021, 209쪽) 등에 나오며, 마사 누스바움은 교과서 <윤리와 사상>(천재교과서, 2020, 209쪽)에, 칸트의 저서 <영구평화론>은 교과서 <생활과 윤리>(미래엔, 2021, 206쪽)에 나온다. 제시문 (가)는 세계시민주의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윤리적 가치이지만, 민족국가가 우세한 현실에서 아직까지는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우리 역시 인간 보편의 가치나 인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대의명분에는 동의하면서도, 현실에서는 자국중심주의와 자민족중심주의적인 입장에 따르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국가, 어떤 인종에 속하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는 순전히 우연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자기 나라와 민족을 우선시하는 태도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따라서 제시문 (가)는 우리가 민족국가의 기준을 뛰어넘어 세계시민의 일원이라는 관점에서 사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인류가 세계시민적 체제에 근접하면, 모든 보편적인 소질을 계발하고 완전한 시민적 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이상적 세계시민주의의 관점에서는 고통을 겪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도와야 한다는 윤리적 의무가 부과된다.

제시문 (나)는 교과서 <생활과 윤리>(지학사, 2020, 209쪽)에 제시된 콰메 앤터니 애피아(Kwame Anthony Appiah)의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

Ethics in a World of Strangers)>에 나오는 내용을 사용하고 원전의 일부를 부분적으로 발췌하여 편집한 것이다. 애피아는 세계시민주의에는 두 가지가 있으며, 한 가지는 보편적인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는 세계시민주의,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개인과 국가들의 차이와 특수성을 인정하는 세계시민주의이다. 이 두 가지 세계시민주의는 충돌할 수 있으며, 세계시민주의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애피아는 또한 인류라는 추상적인 이름으로 개인, 지역, 국가의 차이를 극복하고 세계시민주의를 적용하는 데 의문을 제기한다. 또한 이를 뿌리 없는 세계시민주의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세계시민주의의 이상적인 해석은 지속적으로 강한 매력을 지녀왔으며, 일부 철학자들은 국경을 설정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애피아는 결론에서 우리는 자국 중심의 민족주의를 옹호하거나 엄격한 세계시민주의를 지향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개인과 지역, 국가의 차이와 특수성에 바탕으로 둔 "뿌리를 둔 세계시민주의"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시문 (다)는 교과서 <문학>(창비, 2018, 235-236쪽)에 나오는 금희의 소설 <세상에 없는 나의 집>에서 발췌한 내용을 출제 의도에 맞추어 편집한 것이다. 제시문 (다)의 화자는 중국 내 조선족으로 중국어와 한국어 두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중국의 대학에서 한국어 강사로 일하고 있다. 화자는 다문화적 도시에 살면서 디오게네스와 같은 세계시민으로서의 이상을 추구했고, 한족 중국인인 친구 닝과 한국인 연주는 화자가 두루두루 통할 수 있을 것이라 부러워한다. 하지만 화자는 닝과 연주를 만나면서 그들과의 차이와 경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 제시문은 이도 저도 아닌 조선족 출신이라는 회색지대가 장벽이 되어 화자가 품었던 세계시민주의적 이상의 실현이 좌절되는 경험을 표현한다.

제시문 (라)는 연구지원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수리적 개념을 활용하여 사고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참고: 제시문 <나> 영문 번역

세계시민주의 개념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우리에게 타인에 대한 의무, 즉 가족과 친구들과의 유대나 심지어 더 형식적인 시민적 유대조차 넘어서는 더욱 확장된 의무가 있다는 생각이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보편적인 인간의 삶뿐 아니라 특수한 삶의 가치까지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그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관행과 믿음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뜻한다. 세계시민들은 사람들이 각양각색이며 그 차이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탐구할 가치가 있는 수많은 인간적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개인이나 모든 사회가 단일한 삶의 양식으로 수렴되어야 한다고 기대하지도 바라지도 않는다. 타인에 대한 우리의 의무(혹은 우리에 대한 타인의 의무)가 무엇이든, 그들에게는 자기 방식대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이상들, 즉 보편적 관심과 정당한 차이에 대한 존중은 충돌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세계시민주의는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일종의 문제 제기다. 예를 들어, 아주 가난한 나라에 원조를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모두가 동의하지만, 좀 더 잘사는 개별 국가의 정부 관료들은 자

국의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정책과 이민정책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세계의 시민이라는 생각을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을까? 인류라는 이름으로, 자신이 사는 지역에 대한 충성과 애착을 모두 포기할 수 있는가? 세계시민주의를 주창하는 몇몇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자주 웃음거리가 되거나 "뿌리없는 세계시민주의"로 비난을 받곤 했다. 에드먼드 버크는 다섯 아들을 고아원으로 보냈던 장자크 루소를 두고 "자기 인류는 사랑했지만 자기 가족은 미워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세계시민주의적 믿음에 대한 이상적인 해석은 지속적으로 강한 매력을 지녀왔다. 버지니아 울프는 한때 "민족, 학교, 이웃 등에 대한 비현실적인 충성에서 벗어나라"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몇몇 현대 철학자들은 국경을 설정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적절치 않으며, 우리의 양심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지 못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는 모든 외국인들을 저버리는 민족주의자를 편들 필요도 없고, 자신의 친구나 동료 시민을 냉담하고 공평무사하게 대우하는 엄격한 세계시민주의자를 편들 필요도 없다. 우리가 옹호해야 할 입장은 '뿌리를 둔 세계시민주의'라고 불릴 것이다. 이는 서로 다른 개인과 지역, 국가의 삶에서의 차이에 바탕을 두면서 세계시민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문제 2]

1. 출제 의도

[문제 2-1]

1) 사회과학 연구 결과를 해석하고, 인문·사회 현상을 수리적 개념을 활용하여 사고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2) 세계시민의식 조사와 국내와 해외 결식아동 돕기 기부액과의 관계를 표와 그림을 통해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문제 2-2]

1) 한 국가의 경제 활동이 탄소 배출을 통해 다른 국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회 현상을 수리적 개념을 사용해서 접근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2) 세계시민주의를 통해 국가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수리적 개념을 활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2. 문항 해설

[문제 2-1]

제시문 (라)의 <표>와 <그림>은 가상의 A국과 B국의 세계시민의식 조사와 국내, 해외 결식아동돕기 기부액을 출제 의도에 맞춰 작성한 것이다. <표>에 나타난 세계시민의식 조사는 서로 경쟁하는 두 가지 주장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묻고 그 평균값을 표시하였다. <그림>에서 보여주는 국내, 해외 결식아동 돕기 기부액은 A국와 B국 간의 차이를 보인다.

제시문 (가)와 (나)의 관점에서 <표> 해석

① <표>는 자국민/외국인의 일자리, 자국 이익과 인류 공동의 이익, 인류의 보

편적 가치와 문화적 특수성 간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있음.

② 자국 이익과 인류 공동의 이익 간 우선순위의 경우, A국과 B국 모두 인류 공동의 이익을 우선하는 가치에 더 동의함. A국이 B국보다 인류 공동의 이익을 더 추구하지만 두 국가 간 차이는 크지 않음. 두 국가 모두 세계시민주의적 인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해석할 수 있음.

③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문화적 특수성 간 우선순위의 경우, A국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B국은 문화적 특수성을 우선시함. A국은 제시문 (가)의 보편적 세계시민주의에 동의하는 반면, B국은 제시문 (나)의 지역적 차이를 존중하는 뿌리 내린 세계시민주의 (rooted cosmopolitanism)에 더 동의한다고 해석할 수 있음.

④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자국민과 외국인 고용 간 우선순위의 경우, A국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없는 고용을, B국은 자국민 고용을 우선시함. A국은 제시문 (가)의 국적이나 인종에 상관없이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는 세계시민주의에 동의하는 반면, B국은 제시문 (나)의 지역적 필요를 고려하는 세계시민주의에 동의한다고 해석할 수 있음.

⑤ 변수들의 우선순위 간격에 대해, 인류 공동의 이익 추구는 A국과 B국 간에 1 정도의 차이를 보임. 인류 보편의 가치와 문화적 특수성에 대해서는 A국과 B국 간에 3 정도의 차이를 보임. 경쟁상황에서의 고용에 대해서는 A국과 B국 간에 5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세계시민주의에 대한 인식 차이가 더 커질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음.

제시문 (가)와 (나)의 관점에서 <그림> 해석

① <그림>은 A국과 B국의 국내와 해외 결식아동 돕기 기부액의 차이를 제시하고 있음.

② A국의 기부 총액은 700억 원임. 그중 350억 원은 국내 결식아동 돕기 기부액이고, 350억 원은 해외 결식아동 돕기 기부액임.

③ B국의 기부 총액은 550억 원임. 그중 300억 원은 국내 결식아동 돕기 기부액이고, 250억 원은 해외 결식아동 돕기 기부액임.

④ 보편적 세계시민주의를 옹호하는 제시문 (가)의 관점에서 A국은 해외 결식아동 돕기 기부액이 국내 결식아동 돕기 기부액과 동일하다고 해석할 수 있음.

⑤ 뿌리내린 세계시민주의를 옹호하는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B국은 국내 결식아동 돕기 기부액이 해외 결식아동 돕기 기부액보다 더 많다고 해석할 수 있음.

⑥ 국가에 상관없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제시문 (가)의 입장에서 A국의 기부금 총액이 B국보다 더 크다는 점을 유추하여 해석할 수 있음.

[문제 2-2]

(1) 소비자가 자국만을 고려할 경우

C국의 삶의 질은 $f(x)+g(x)=-4x^2+28x=-4\left(x-\frac{7}{2}\right)^2+49$이다. 이차함수의 성질에 의해 $x=\frac{7}{2}$에서 최댓값을 가진다. 그러므로 C국 정부는

탄소 배출량을 $\frac{7}{2}$로 정한다. 그에 따른 $f(x)$, $g(x)$, $h(x)$의 값은 다음과 같다.

- C국 기업가 삶의 질: $f\left(\frac{7}{2}\right)=20\times\frac{7}{2}-2\left(\frac{7}{2}\right)^2=\frac{91}{2}=45.5$
- C국 소비자 삶의 질: $g\left(\frac{7}{2}\right)=8\times\frac{7}{2}-2\times\left(\frac{7}{2}\right)^2=\frac{7}{2}=3.5$
- 다른 나라 사람들 삶의 질: $h\left(\frac{7}{2}\right)=-\left(\frac{7}{2}\right)^3=-\frac{343}{8}=-42.875$

(2) 소비자가 타국에 미칠 환경 피해도 고려할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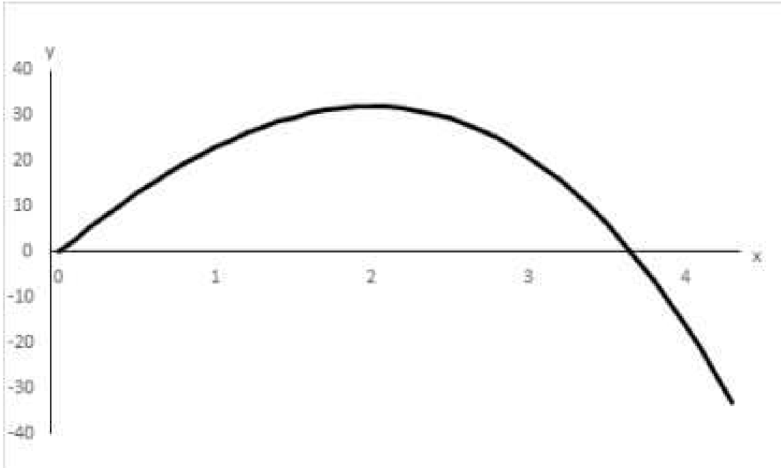
세계 전체의 삶의 질은 $f(x)+g(x)+h(x)=-x^3-4x^2+28x$이다. 즉, 정의역이 $x\ge 0$인 삼차함수이다. 이 삼차함수의 최댓값을 찾기 위해 도함수를 구하고, 인수분해한다.

$f'(x)+g'(x)+h'(x)=-3x^2-8x+28=-(3x+14)(x-2)$.

따라서 이 도함수는 $x\ge 0$ 구간에서 $x=2$일 때, 유일하게 극값을 가진다. 다른 점에서 도함수의 부호와 함수의 증감은 다음과 같다.

x	0	$0<x<2$	2	$x>2$
$f'(x)+g'(x)+h'(x)$		$+$	0	$-$
$f(x)+g(x)+h(x)$		증가		감소

그러므로 $f(x)+g(x)+h(x)$는 $x=2$에서 최댓값을 가지며, 함수의 그래프는 아래와 같다.



그러므로 C국은 탄소 배출량으로 2를 선택한다. 그에 따른 $f(x)$, $g(x)$, $h(x)$의 값은 다음과 같다.

- C국 기업가 삶의 질 : $f(2)=20\times2-2\times2^2=32$
- C국 소비자 삶의 질 : $g(2)=8\times2-2\times2^2=8$
- 다른 나라 사람들 삶의 질 : $h(2)=-2^3=-8$

(3) 결과 해석 및 C국 소비자가 다른 나라를 대하는 태도의 영향

(a)에서는 C국 소비자가 자국중심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b)에서는 세계시민주의적 태도를 보인다. 두 경우의 탄소 배출량과 그에 따른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a) 자국중심주의	(b) 세계시민주의
탄소 배출량	x	3.5	2
C국 기업가 삶의 질	$f(x)$	45.5	32
C국 소비자 삶의 질	$g(x)$	3.5	8
C국 전체 삶의 질	$f(x)+g(x)$	49	40
다른 나라 사람들 삶의 질	$h(x)$	-42.875	-8
세계 전체 삶의 질	$f(x)+g(x)+h(x)$	6.125	32

즉, C국 소비자가 세계시민주의 의식을 가질 경우, C국은 더 적은 탄소를 배출한다. 그러면 기업가의 삶의 질은 하락하지만, 소비자의 삶의 질은 상승한다. 하지만 기업가의 삶의 질 하락 폭이 소비자의 삶의 질 상승 폭보다 커서 C국 전체의 삶의 질은 하락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의 삶의 질은 대폭 증가한다. 따라서 C국 전체 삶의 질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세계 전체 삶의 질은 상승한다.

이 결과를 해석하면 C국 소비자가 세계시민주의 의식을 가질 경우, 다른 나라 사람들의 환경 피해를 의사 결정에 고려하기 때문에 C국은 더 적은 양의 탄소를 배출한다. 흥미롭게도, 탄소 배출량을 줄였음에도 C국 소비자의 삶의 질은 3.5에서 8로 올라간다. 이는 소비자가 다른 나라 사람들의 삶의 질도 고려하는 의사 결정을 할 때, 자신의 삶의 질도 올라갈 가능성을 보여준다. 즉, C국 소비자와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이해가 서로 상충하기보다 일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C국 소비자의 삶의 질 $g(x)=8x-2x^2$가 $x=2$에서 최댓값을 가진다. 즉, C국 소비자가 세계시민주의 관점에서 의사 결정을 할 때의 탄소 배출량인 $x=2$는 자신의 삶의 질도 최대가 되는 최선의 결과이다.

그러나 C국 전체 삶의 질은 C국 소비자가 세계시민주의에 기반하여 따라 탄소 배출량을 정할 때 더 낮다. C국 기업가의 삶의 질이 45.5에서 32로 대폭 하락하기 때문이다. 이는 탄소 배출을 통한 생산으로 가장 이득을 보는 집단이 C국의 기업가임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세계 전체의 삶의 질은 C국 소비자가 세계시민주의 의식을 가지면 6.125에서 32로 대폭 상승한다. 이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입는 환경 피해가 42.875에서 8로 대폭 감소하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 사람들의 삶의 질은 $h(x)=-x^3$이므로, 탄소 배출량의 세제곱에 비례하여 감소한다. 즉, 다른 나라 사람들의 삶의 질은 탄소 배출량에 매우 큰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C국의 탄소 배출량이 3.5에서 2로 감소할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의 삶의 질이 대폭 개선된다.

선생님 예시답안

[1-1]

(다)의 화자는 특수성이 존중되는 세계시민주의를 지향한다. 화자는 중국어와 한국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세계시민으로서의 이상을 추구한다. 하지만 화자는 한국인과 한족의 사이에서 그들과의 차이와 경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도 저도 아닌 자신의 상황을 회색지대로 인식하고, 자신과 같은 소수도 존중받을 수 있는 세계시민주의를 갈망한다.

(가)와 (나)는 모두 세계시민주의를 미래 사회의 대안으로 주장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성의 차이를 보인다. (가)는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는 반면, (나)는 특수성과 개별성의 가치를 중시한다.

(다)의 관점에서 (가)는 지나치게 이상적인 주장이다. (가)는 우리가 민족국가의 기준을 뛰어넘어 세계시민의 일원이라는 관점에서 사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회색지대의 문화는 개별성의 가치가 훼손되고, 자신의 정체성마저 존중받지 못하게 된다. 이 상황에서 그들에게 세계시민의 일원이 되라는 요구는 현실성이 없다.

(다)의 관점에서 (나)의 주장은 타당하다. (나)는 개인과 지역, 국가의 차이와 특수성을 바탕에 둔 '뿌리를 둔 세계시민주의'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개별 문화의 존중과 관용을 전제로 한다면, 완전수가 아닌 회색지대의 소수자들도 세계시민의 일원이 될 수 있다. (656자)

[1-2]

두 화자는 모두 세계시민주의적 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바람직한 삶의 태도로 상정하고 있다. 하지만, 두 화자는 바람직한 세계시민주의가 실현되기 위한 방향성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내면적 변화를 경험한다.

〔지문 A〕의 화자는 소수 문화의 특수성에 주목하다가,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는 세계시민주의를 지향하는 태도로 변화한다. 주류문화에 소속된 화자는 국철에서 만난 낯선 외국인들을 특수한 외부의 존재로 여기고 신기한 듯 그들을 관찰한다. 그러다 문득 그런 행동들이 자신의 선입관과 편견이라 인식하고 '천박한 호기심'을 반성한다. 이 경험을 통해 화자는 모두가 동일한 존재라는 깨달음을 얻으며 보편적 세계시민의 태도를 보인다.

반면, 〔다〕의 화자는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보편적 세계시민주의의 태도에서 특수성과 개별성에 뿌리를 둔 세계시민주의를 지향하는 태도로 변화한다. 화자는 한국과 중국의 문화를 모두 어우르며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는 소수문화에 속한 자신을 발견하고는 무조건적 동화의 현실적 벽을 체감한다. 그로 인해 보편성을 강조하는 세계시민주의에 대해 회의감을 갖고, 자신과 같이 회색지대에 놓여있는 소수자들도 존중받을 수 있는 특수성에 바탕을 둔 세계시민주의를 갈망한다. (641자)

[2-1]

〈표〉는 A국과 B국의 세계시민의식의 차이를 보여준다. 양국 모두 인류 공동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두 국가 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아, 모두 세계시민주의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A국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B국은 문화적 특수성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아 A국은 (가)의 보편적 세계시민주의에 동의하는 반면, B국은 (나)의 특수성을 존중하는 세계시민주의에 더 동의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A국이 외국인에 대한 차별 없는 고용을, B국은 자국민 고용을 우선시하는 태도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인류 공동의 이익 추구에 대한 우선순위 간격이 양국 간 1인데 비해, 인류 보편의 가치와 문화적 특수성에 대해서는 3의 차이를 보인다. 또한 경쟁상황에서의 고용에 대해서는 차이가 5로 벌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세계시민주의에 대한 인식 차이가 더 커질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그림〉을 통해 구체화 된다. A국은 결식아동 돕기 기부액이 국내와 해외가 모두 동일하고 총 기부액도 B국 보다 많다. 이는 국가에 상관없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가)의 입장과 같다. 반면, B국은 해외 보다 국내 기부액이 더 많은데, 이는 자국의 특수성을 우선시하는 (나)의 입장으로 설명할 수 있다. (653자)

[2-2] 대학 발표 해설 참고

제 3 강 2023학년도 기출문제

※ 아래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제시문 (가)

초나라에서 공수반이 ‘운제’*라는 신형 무기를 만들어 초나라가 곧 송나라를 공격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묵자가 한 제자에게 말했다. “공수반이 자기 재주만 믿고 또 풍파를 일으키는구나. 이전에는 ‘구거’**를 만들어 초나라가 월나라와 전쟁을 벌이게 하더니, 이번에는 또 무슨 운제라는 것을 만들어 전쟁을 부추기는구나. 송나라는 거듭된 전란으로 푸르던 산은 검게 불타고, 들에는 풀 한 포기 찾아보기 어려운데 말이다. 아무래도 내가 가서 전쟁을 말려야겠다.”

묵자는 그 길로 초나라에 가서 공수반과 초나라 왕을 만났다. 그는 인사를 올리고 부드럽게 입을 열었다. “듣자하니 왕께서 송나라를 치려고 하신다고요. 그런데 초나라 땅은 사방 5천 리나 되지만, 송나라는 겨우 사방 5백 리입니다. 초나라는 남아도는 것이 땅이요 부족한 것이 백성인데, 남아도는 것을 더 차지하려고 부족한 백성을 위험한 전쟁에 동원해가며 죄 없는 송나라를 치는 것은 의로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초나라에 운제가 있다 해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제가 들고 온 이 기계는 운제를 막기 위해 발명한 것이고, 저의 제자 삼백 명이 지금 이 기계를 가지고 송나라에서 초나라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묵자는 공수반과 초왕 앞에서 시연해 보였는데, 과연 공수반의 공격은 전혀 먹히지 않았다.

왕이 감탄하며 말했다.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방어 기계라니, 정말 대단하구려. 알겠소. 송나라를 치지 않겠소.”

그날 저녁 묵자는 공수반의 초대에 응하여 술자리를 함께 하였다. 취기가 돌자 공수반이 입을 열었다. “여보시오, 선생. 당신 식대로 의로움을 행하자니 내 밥줄이 다 끊어지게 되었소!”

“하지만 송나라 사람들의 밥줄을 모두 끊어 버리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소?”

“그럼 난 전에 하던 다른 실험들이나 다시 이어가야겠구려. 참! 선생, 잠깐만 기다려 보시오. 최근에 내가 만든 것을 좀 보여 드리겠소.”

공수반은 궤짝에서 나무와 대쪽으로 만든 까치를 꺼내 묵자에게 건네주며 자랑스레 말했다.

“한번 날리면 바람을 타고 사흘 동안이나 날 수 있지요. 정말 흥미롭지 않소? 진짜 새가 나는 것을 지켜보고 그 이치를 적용해 본 것이라오.”

묵자는 그것을 보고 나서 자리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듣던 대로 과연 정교한 솜씨군요. 하지만 이보다는 목수가 만든 수레바퀴가 더 훌륭합니다. 목수는 세 치의 나무를 깎아 거기에다 오십 석의 무거운 짐을 실을 수 있게 합니다. 사람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고 삶에 보탬이 되어야 훌륭하고 좋은 것이오. 사람들에게 이롭지 못한 것은 졸렬한 것입니다.”

* 운제(雲梯): 높은 성을 공격할 때 썼던 사다리 장치

** 구거(鉤拒): 상대방을 잡아당기는 갈고리 ‘구’와 상대방을 밀치는 밀대 ‘거’의 기능이 합쳐진 무기로, 수전(水戰)에서 사용되었다.

제시문 (나)

현재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의 적용 방법은 맹목적이고 어리석은 것이다. 사람들은 기술을 적용할 때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마치 놀이를 하듯이 하곤 한다. 장난삼아 이미 그 결과가 뻔한 것을 약간 변형해 보거나, 별로 소득이 없다 싶으면 금방 싫증을 내고 포기하고 마는 것이다. 간혹 진지하게, 꾸준히, 부지런히 한다 싶을 때도 특정 사례에 한두 가지 기술만 편협하게 적용해보곤 한다. 기술의 이러한 적용은 하나같이 하찮고 미숙한 짓들이다. 어떤 물체의 본성을 알아내려면 그와 비슷한 물체 몇 가지만 연구해서는 안 된다. 무릇 탐구란 신중히 분별하며 폭넓게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기술을 사용할 때 어떤 순수한 이론을 수립하려 하기보다는 언제나 우선 적응부터 하려고 덤비는 사람들도 있다. 그것으로 당장 이익과 성과를 얻으려고, 또한 자기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종류의 일을 하더라도 결코 무익한 것은 아니라는 보증을 얻으려고, 나아가 그 업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높은 평가를 받아 자기 이름을 빛내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다 보면 근시안적인 이익만 가져다주는 자극적인 기술이 주목을 받게 된다. 기술의 사용 방식은 실로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지성의 계발에 도움이 되는 것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어떤 기술을 응용부터 하려는 사람들은 진리 탐구에는 처음부터 관심이 없는 이들이다. 이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관심도 두지 않고 손수 나서지도 않는다. 그러나 눈앞의 이익만 가져다주는 이런

기술의 남용은 오히려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도 해칠 것이다.

반면에 그 자체로서는 수익성이 없지만, 원인을 발견하고 이치를 밝히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방대한 기술들이 있다. 순수하게 사물의 본성 그 자체를 제대로 알기 위해 사용되는 이러한 기술들은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과도 같은 지식을 가져다준다. 이러한 지식은 그 자체로서는 당장 눈에 띄게 큰 역할을 하지 못할지라도 가장 고귀한 원리의 원천을 담고 있기에 천지 만물의 모든 형체와 삼라만상의 오묘한 운행을 속속들이 밝혀준다. 이런 기술을 추구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갈릴레오 갈릴레이 같은 인물을 한껏 지원했던 나라는 훼손되지 않은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오랜 세월에 걸쳐 예술적, 문화적 번영뿐만 아니라 경제적 풍요까지 누렸다.

제시문 (다)

Future shock—the disease of change—can be prevented. But it will take radical social, even political action. No matter how individuals try to pace their lives, no matter what psychological help we offer them, no matter how we change education, the society as a whole will still be caught on a runaway treadmill* until we take control of the accelerative drive itself.

The high speed of change can be traced to many factors. Population growth, urbanization, the shifting proportions of young and old—all play their part. Yet, technological advance is clearly a critical point in the network of causes; indeed, it may be the point that activates the entire network. One powerful strategy in the battle to prevent massive future shock, therefore, involves the conscious regulation of technological advance.

We cannot and must not turn off the switch of technological progress. Only romantic fools talk about returning to a “state of nature.” A state of nature is one in which infants die due to lack of elementary medical care, in which insufficient nutrition worsens the brain, in which, as Thomas Hobbes reminded us, the typical life is “poor, nasty, brutal, and short.” To turn our back on technology would be not only stupid but immoral. Those who say anti-technological nonsense in the name of some vague “human values” need to be asked

"which human?" To intentionally turn back the clock would be to lead millions of people to enforced and permanent misery precisely at the moment in history when their liberation is becoming possible. We clearly need not less but more technology. In particular, applied technology, which directly benefits human beings and society, needs to be more emphasized than pure science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the upcoming future shock.

Our technological powers increase, but the side effects and potential hazards also increase. For example, we risk pollution of the oceans themselves, overheating them, destroying immeasurable quantities of marine life, perhaps even ruining the entire eco-system. Also, as we could see from the case of nuclear weapon transformed from uranium fission,** which was a huge scientific finding at the time, technological breakthrough can be used in negative ways regardless of the inventors' intention or social considerations.

As the effects of irresponsibly applied technology become more unpleasantly evident, social and political criticisms arise. The growing worldwide movement for control of technology, however, must not be permitted to fall into the hands of irresponsible pessimists who oppose technological advance. The power of the technological drive is too great to be stopped by Luddite*** movements. In worse cases, thoughtless attempts to stop technology will produce more destructive results than thoughtless attempts to advance it.

* treadmill: 러닝머신
** uranium fission: 우라늄 핵분열
*** Luddite: 산업혁명 시기에 기계화, 자동화에 반대한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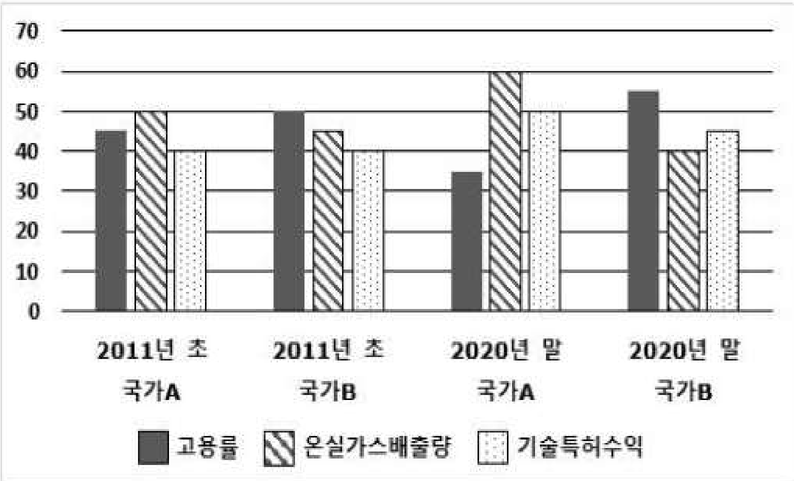
제시문 (라)

국가A와 국가B는 2011년 초부터 2020년 말까지 10년간 기초학문연구지원비와 응용기술연구지원비를 <표>와 같이 지출하였다. 이에 따른 고용률, 온실가스배출량, 기술특허수익의 변화는 <그림>과 같다. 두 국가는 2011년 초를 기준으로 비슷한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을 보였으며, 다른 모든 조건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표> 국가A와 국가B의 10년간 기초학문연구지원비와 응용기술연구지원비 (단위: 억 원)

국가A		국가B	
기초학문	응용기술	기초학문	응용기술
200	800	600	400

<그림> 국가A와 국가B의 고용률 (단위: %), 온실가스배출량 (단위: 100만 톤), 기술특허수익 (단위: 억 원)



문제 1-1 제시문 (나)를 바탕으로 기술에 대한 제시문 (가)와 제시문 (다)의 주장을 설명하시오. (600자 안팎, 25점)

문제 1-2 아래 [지문 A]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와 제시문 (다)를 평가하시오. (600자 안팎, 25점)

[지문 A]

산업혁명은 에너지를 전환하고 상품을 생산하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 그 덕분에 인류는 주변 생태환경에 예속된 상태에서 대체로 해방되었다. 인류는 숲을 베어내고, 늪의 물을 빼고, 강을 댐으로 막고, 들판에 물을 대고, 수십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철로를 놓고, 고층빌딩이 즐비한 거대도시를 건설하며 편의와 풍요를 누렸다. 하지만 이렇듯 세상이 호모 사피엔스의 필요에 맞게 변형되면서, 서식지는 파괴되고 종들은 멸종의 길을 걸었으며,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과거에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병원체와 세균에 노출되었다. 과거 녹색과 푸른색이던 우리의 행성은 콘크리트와 플라스틱으로 만든 쇼핑센터가 되어가는 중이며, 지구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전체 생태 용량을 이미 초과한 상태다.

문제 2-1

제시문 (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를 평가하시오. (600자 안팎, 25점)

문제 2-2

제시문 (라)의 두 국가는 2021년 초부터 2030년 말까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기초학문연구와 응용기술연구를 지원하기로 계획하였다. a_1와 b_1는 각각 국가A와 국가B가 t년에 응용기술연구지원비로 지출할 액수(단위: 억 원)를 수열로 나타낸 것이다.

$$a_1 = 0.002(t-2020)^3 - 0.75(t-2020)^2 + 13(t-2020) + 40$$
$$b_1 = -0.005(t-2020)^3 + 0.45(t-2020)^2 - 3(t-2020) + 40$$

여기서 t는 2020보다 크고 2031보다 작은 수이다. 기초학문연구에는 매해 각각 $100-a_1$와 $100-b_1$(단위: 억 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1) 각 국가의 2021년 초부터 2030년 말까지 10년간의 응용기술연구지원비를 계산하시오.

2) 제시문 (라)를 참고하여 2030년 말 각 국가의 온실가스배출량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예측하여 서술하시오. (글자 제한 없음, 25점)

2023학년도 기출문제 해설

[문제 1]

1. 출제 의도

1) 이번 <인문·사회계열> 논술시험은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지문과 문제를 통해 수험생의 종합적인 사고능력을 측정하려는 취지로 구성되었다.

2) 고등학교 교과『통합사회』,『생활과 윤리』,『사회·문화』에서 다루는 '기술 사용'을 대주제로 설정하고, '기술의 이로운 사용', '순수한 학문 추구', '응용기술 투자', '기술의 부작용'의 개념을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하고 추론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3) 제시문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등재된 지문이나 그와 관련된 일반 교양서적의 지문을 발췌하고 편집하여 활용하였다.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접하는 주제와 개념을 이해하고 교과서 지문에 익숙한 수험생이라면 제시문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 출처: 제시문 (가): <묵자>, 루쉰, <전쟁을 막은 이야기 (루쉰 전집 3)>
제시문 (나): 프란시스 베이컨, <신기관 (Novum Organon)>
지문 A: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4) 순수학문 추구와 응용기술 개발에 관련된 제시문들을 비교, 분석하게 하여 수험생의 독해력, 논리력, 표현력과 독창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5) 사회과학 연구 결과를 해석하고, 인문·사회 현상을 수리적 개념을 활용하여 사고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2. 문항 해설

<제시문 해설>

<제시문 가>는 춘추전국시대 사상가 묵자의 일화를 바탕으로 쓴 루쉰의 소설 <전쟁을 막은 이야기>(소설집『새로 쓴 옛 이야기(故事新編)』)에서 발췌하여 출제 의도에 맞게 편집한 것이다. 공수반이 발명한 공격용 무기로 초나라가 송나라를 침략하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 묵자는 방어용 기제를 만들어 송나라를 대비시키고, 초나라의 왕을 찾아가 설득하여 결국 불의의 전쟁을 막는다. 자신이 발명한 무기를 쓸 수 없게 된 공수반이 다시 묵자에게 자신의 뛰어난 솜씨로 만든 사흘 동안 날아다니는 나무 까치를 자랑하지만, 묵자는 수레바퀴처럼 사람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유용한 것을 만드는 기술이 더 훌륭한 것이라고 말한다. <제시문 가>는 묵자의 입을 빌어 기술은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고 이롭게 하는 의로운 일에 써야 하며,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유용한 일에 써야 하는 것임을 주장한다.

<제시문 나>는 프란시스 베이컨(Francis Bacon)의『신기관(Novum Organon)』에 나오는 일부 내용을 부분적으로 발췌하여 출제 의도에 맞게 재서술한 것이다. 본 제시문은 기술의 올바른 사용과 잘못된 사용을 구분하고 장기적으로 인간의 예술적, 문화적 번영과 경제적 풍요는 전자에 있음을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당장의 이익이나 성과, 아니면 그저 무익하지 않다는 보증이라도 얻으려고

사용하는 기술 또는 자신의 이름을 빛내려고 사용하는 기술, 아울러 너무 가벼운 호기심으로 장난삼아 사용하거나 편협하게 사용하는 기술 등은 모두 올바르지 못한 기술 사용의 사례들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본 제시문은 단기적인 수익성은 없지만, 분별력 있게 원인을 발견하고 공리를 세움으로써 사물의 본성 자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 순수한 이론을 수립함으로써 인간 지성의 계발에 일조하는 기술이야말로 참다운 기술 사용의 모범이라 주장한다.

<제시문 다>는 앨빈 토플러의 <미래의 충격>의 일부분을 발췌하여 출제 의도에 맞게 편집한 것이다. 제시문은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미래에 다가올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기술이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동력이므로 기술 진보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기술 진보에 반대해 자연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든지, 애매모호한 '인간적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한다. 또한 기술 진보는 인간과 사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응용기술이 순수 과학보다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시문 다>는 기술 진보가 가져오는 부정적 측면을 무시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진보의 부정적 측면을 고려하여 기술 진보를 거부하거나 기술 진보의 통제를 위해 무책임한 반대론자에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더 나쁜 경우는 기술 진보를 막으려는 시도가 기술 진보를 앞당기려는 시도보다 더 파괴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제시문 라>는 연구지원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수리적 개념을 활용하여 사고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참고: <제시문 다> 영문 번역

미래의 충격-변화에서 오는 병-은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도 근본적인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개인이 아무리 그의 생활 속도를 조정하려고 해도, 또한 그 어떤 심리적 도움을 주어도, 그리고 아무리 교육을 바꾸어도 우리가 가속적 추진력을 통제하기 전까지 사회 전체는 빠르게 진행되어 가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급속한 변화의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인구의 증가, 도시화, 연령별 인구 구성의 변화-이들 모두가 관련되어 있다. 그렇지만 많은 이유 중에서 중요한 지점이 되는 것은 기술 진보라 할 것이다. 사실 복잡하게 얽힌 사회의 네트워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이 기술 진보이다. 따라서 미래의 충격이 일제히 밀어닥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강력한 전략은 기술 진보를 조정하는 일이다.

우리는 기술 진보의 스위치를 끌 수는 없으며, 또한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낭만적인 어리석은 사람들만 이 '자연상태'로 돌아가자는 쓸데없는 말을 한다. 자연상태란 가장 기본적인 의료지원도 없기 때문에 유아는 죽게 되고, 영양실조로 두뇌가 나빠지는 상태를 말한다. 토마스 홉스가 말한 것처럼 이 자연상태란 일반적으로 '가난하고 불결하고 잔인하며 수명이 짧은'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다. 기술에 등을 돌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애매모호한 '인간적 가치'란 이름 하에 반 기술적인 넌센스를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인간이란 도대체 어떤 인간을 말하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 일부러 시계의 바늘을 거꾸로 돌린다는 것은 수십억의 사람들이 모처럼 비참한 생활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게 된 바로 그때, 다시 한번 그들을 언제까지나 빠져나올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 빠뜨려 넣는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현재 이상의 과학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간과 사회에 직접적으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응용기술이 순수 과학보다 강조되어야 하고, 그럼으로써 다가오는 미래의 충격을 예방할 수 있다.

우리의 과학기술의 힘은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그 부작용 그리고 잠재적인 위험 또한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바다에 열을 가해서 수많은 수중 생물을 파괴하고 나아가서는 전체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오염의 리스크를 범하고 있다. 또한 당시 위대한 과학적 발전이었던 우라늄 핵분열 기술이 핵무기로 악용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술 진보가 발명가의 의도나 사회적 고려와 관계없이 부정적인 방법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응용기술이 무책임하게 사용되었을 경우, 이로 인한 피해가 분명해짐에 따라 사회적, 정치적 비판 또한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모처럼 싹트고 있는 기술을 통제하려는 세계적인 움직임이 기술 진보를 반대하는 무책임한 비관론자들의 손에 맡겨져서는 안 된다. 또한 기술 진보의 힘은 너무 커서 이를 반대하는 러다이트 운동에 의해 멈춰질 수 없다. 그보다도 더 나쁜 경우, 생각 없이 기술 진보를 멈추려 하려는 것은 생각 없이 기술 진보를 발전시키려 하는 시도보다 더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 문제 해설

[문제 1-1]

<제시문 가>

① 묵자는 사람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유용한 것을 만드는 기술이 훌륭하다고 주장한다.

② 기술은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고 이롭게 하는 의로운 일에 써야 한다.

<제시문 나>

① 기술의 올바른 사용은 순수한 이론을 수립해 지성의 계발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② 기술의 그릇된 사용은 섣불리 응용해서 당장의 이익과 성과를 얻으려고 사용하는 것이다.

③ 기술의 남용은 오히려 인간과 자연을 파괴한다.

④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술을 순수하게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에게 번영을 가져다준다.

<제시문 다>

① 미래의 충격에 대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 진보를 앞당기는 것이다.

② ‘자연상태’, ‘인간적 가치’라는 말은 기술 진보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어리석고 도덕적이지 않다.

③ 과학기술의 부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기술 진보는 더 나아가야 한다.

<제시문 나>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의 주장 설명

① 묵자는 사람을 해치는 공수반의 운제, 구거 등의 무기 기술을 비판하지만 아울러 사람에게 이로움을 주지 않고 순수하게 자연 이치를 알고자 고안한 나무와 대쪽으로 까치 만드는 기술까지 비판.

② 공수반이 새가 나는 이치를 탐구하고 고안하여 만든 나무 까치는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순수한기술 적용 사례라 할 수 있음.

③ 묵자는 방어 기제나 수레바퀴처럼 이로움을 주는 응용 기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순수한 기술 적용을 주장한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음.

<제시문 나>를 바탕으로 <제시문 다>의 주장 설명

① <제시문 다>는 인간의 기본적 필요 충족과 삶의 번영을 가져다줄 수 있는 기술 발전, 특히 순수 과학보다 미래 충격을 예방할 수 있는 응용기술의 발전을 그 부정적 영향과 잠재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것으로 옹호함. 이미 가속화되고 있는 기술 발전의 흐름을 거역하는 것은 어리석고 무책임한 것으로 봄.

② 이러한 의미에서 <제시문 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순수기술의 적용을 통해 사물의 본성과 자연의 이치를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에게 번영을 가져다준다는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음.

③ 특히 눈앞의 이익을 위한 응용기술의 남용이 결국 자연과 인간을 해칠 수 있다는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제시문 다>는 순수기술에 비해 응용기술 발전을 강조하는 것의 부정적 영향과 잠재적 위험을 상대적으로 간과하며, 순수기술의 장기적 혜택에 대해 균형 있는 시각을 갖지 못한 입장이라고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 1-2]

[지문 A]

① 산업혁명의 기술 발전이 인간의 삶과 생태에 미친 영향은 양면적이다.

② 기술 발전은 인간에게 편의와 풍요를 가져다주면서 생태환경의 파괴를 가져왔다.

③ 생태환경 파괴는 인간을 새로운 질병, 자원 고갈과 같은 위험과 부작용에 노출시켰다.

④ 종들의 멸종, 생태 용량 초과 등은 기술 발전의 부작용을 제어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제시문 가>

① 묵자는 사람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유용한 것을 만드는 기술이 훌륭하다고 주장한다.

② 기술은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고 이롭게 하는 의로운 일에 써야 한다.

<제시문 다>

① 과학기술의 부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기술 진보는 더 나아가야 한다.

② 부작용 때문에 기술 발전을 멈추려 하는 것은 기술 발전이 초래할 부작용보다 더 큰 피해를 가져올 것이다.
③ 미래의 충격에 대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 진보를 앞당기는 것이다.

[지문 A]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 평가
① 기술이 미치는 영향의 양면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기술을 경계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그러나 인간에게 이로운 기술과 해로운 기술이 따로 있다고 보고, 인간에게 당장 이로운 기술도 결국 인간과 생태에 해로울 수도 있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문 A]를 바탕으로 <제시문 다> 평가
① 기술 발전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나 기술의 악용 가능성과 같은 여러 가지 피해와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② 그러나 미래의 충격을 예방하기 위해 기술의 진보를 더욱 필요로 한다고 보는 점에서, <제시문 다>는 지나치게 낙관적이며, 기술 진보로 인한 부작용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

[문제 2]

1. 출제 의도

1) 이번 <인문·사회계열> 논술시험은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지문과 문제를 통해 수험생의 종합적인 사고능력을 측정하려는 취지로 구성되었다.
2) 고등학교 교과『통합사회』,『생활과 윤리』,『사회·문화』에서 다루는 '기술 사용'을 대주제로 설정하고, '기술의 이로운 사용', '순수한 학문 추구', '응용기술 투자', '기술의 부작용'의 개념을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하고 추론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3) 사회과학 연구 결과를 해석하고, 인문·사회 현상을 수리적 개념을 활용하여 사고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4) 기초학문과 응용기술 개념을 경제적 번영(고용률), 환경파괴(온실가스배출량), 기술로 인한 수익(기술특허수익)이라는 현실적 주제에 적용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5) 연구지원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수리적 개념을 활용하여사고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2. 문항 해설

[문제 2-1]

*** 제시문 해설**

제시문 (라)의 <표>와 <그래프>는 가상의 국가 A와 국가 B의 10년간 기초학문연구지원비와 응용기술연구지원비에 따른 고용률(%), 온실가스배출량(100만 톤), 기술특허수익(억 원)의 변화를 출제 의도에 맞게 작성한 것이다. 응용기술연구지원 800억 원과 기초학문연구 200억 원을 지출한 국가 A는 10년 후 고용

률은 감소하고(45% → 35%), 온실가스배출량은 증가(5천만 톤 → 6천만 톤)하며, 기술특허수익(40억 원 → 50억 원) 역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기초학문연구지원에 600억 원과 응용기술연구에 400억 원을 지출한 국가 B는 10년간 고용률은 증가(50% → 55%)하고, 온실가스배출량은 감소(4천5백만 톤 → 4천만 톤)하며, 기술특허수익은 증가(40억 원 → 45억 원)하는 경향을 보인다.

*** 표 분석**

① <표>는 기초학문과 응용기술 지원비가 다른 국가 A(200, 800), 국가 B(600, 400)를 제시하였음.

② 국가 A는 2011-2020년 간 기초학문연구지원비가 200(억 원), 응용기술연구개발비가 800(억 원)임.

③ 국가 B는 2011-2020년 간 기초학문연구지원비가 600(억 원), 응용기술연구개발비가 400(억 원)임.

④ 국가 A는 응용기술연구에, 국가 B는 기초학문지원비에 더 투자하는 경향을 보임.

⑤ 국가 A에 비해 국가 B가 기초학문지원과 응용기술지원에 균형적으로 투자한다는 사실을 언급하면 추가적인 가점을 줄 수 있음.

*** 그래프 분석**

① <그림>은 기초학문과 응용기술 지원비가 다른 국가 A와 국가 B의 2011년과 2020년의 고용률, 온실가스배출량, 기술특허수익을 제시하고 있음.

② 국가 A의 고용률(%)은 2011년 45에서 2020년 35로 감소함.

③ 국가 A의 온실가스배출량(100만 톤)은 2011년 50에서 2020년 60으로 증가함.

④ 국가 A의 기술특허수익(억 원)은 2011년 40에서 2020년 50으로 증가함.

⑤ 국가 B의 고용률(%)은 2011년 50에서 2020년 55로 증가함.

⑥ 국가 B의 온실가스배출량(100만 톤)은 2011년 45에서 2020년 40으로 감소함.

⑦ 국가 B의 기술특허수익(억 원)은 2011년 40에서 2020년 45로 증가함.

***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 주장에 대한 평가**

① 고용률: <제시문 가>는 묵자의 관점에서 이로운 (응용) 기술의 사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옳다고 여김(예: "송나라 사람들의 밥줄이 다 끊어지는 것"). <제시문 라>에서 국가 A의 경우 응용기술연구지원이 고용률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제시문 가>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반면 <제시문 나>는 사물의 원리를 밝히는 기초학문의 발전은 "경제적 풍요"를 누린다고 주장한 국가 B에서 기초학문지원이 고용률을 증가시키는 결과는 <제시문 나>의 주장을 뒷받침함.

② 온실가스배출량: <제시문 가>는 기술 발전(공격 무기 기술의 사용)으로 전쟁이 발발하고 이에 따라 자연 파괴가 증가("전란으로 푸르던 산은 검게 불타고, 들에는 풀 한 포기 찾기 어려운데")할 수 있다고 주장함. <제시문 라>에서 응용기술투자가 증가한 국가 A는 온실가스배출량이 늘었다는 측면에서 <제시문 가>의 주장을 뒷받침함.
<제시문 나>는 순수기술의 발전은 "훼손되지 않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가져

온다고 주장함. 국가 B에서 기초학문지원이 온실가스배출량을 감소시켰다는 측면에서 <제시문 나>의 주장을 뒷받침함.

③ 기술특허수익: <제시문 가>는 (응용) 기술 발전으로 사람들의 "삶에 보탬"이 되는 기술을 이롭게 한다고 주장함. <제시문 가>의 주장처럼 응용기술투자가 증가한 국가 A에서 기술특허기술 수익이 증가하는 경향은 <제시문 가>의 주장을 뒷받침함.

<제시문 나>는 순수한 기술은 "그 자체로 수익성이 없다"고 주장함. 그러나 국가 B에서 기술특허수익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10년간 기초학문연구지원이 기술특허기술수익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보여줌.

[문제 2-2]

1) 우선 1부터 10까지의 수를 거듭제곱하여 더해야 한다.

$$\sum_{k=1}^{10} k = \frac{n(n+1)}{2} = \frac{10 \times 11}{2} = 55$$

$$\sum_{k=1}^{10} k^2 = \frac{n(n+1)(2n+1)}{6} = \frac{10 \times 11 \times 21}{6} = 385$$

$$\sum_{k=1}^{10} k^3 = \left(\frac{n(n+1)}{2}\right)^2 = \left(\frac{10 \times 11}{2}\right)^2 = 3025$$

그러므로 각 국가의 10년간 응용기술연구지원비를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sum_{t=2021}^{2030} a_t = 832.3, \quad \sum_{t=2021}^{2030} b_t = 393.125$$

혹은 공식을 이용하지 않고 1부터 10까지의 수를 하나하나 거듭제곱하여 더할 수도 있다.

혹은 매년 지원금을 각각 계산할 수도 있다.

	a_t	b_t
2021	52.252	37.445
2022	63.016	35.76
2023	72.304	34.915
2024	80.128	34.88
2025	86.5	35.625
2026	91.432	37.12
2027	94.936	39.335
2028	97.024	42.24
2029	97.708	45.805
2030	97	50

혹은 정적분을 이용해 근사치를 계산할 수도 있다. 수열의 합은 밑변의 길이가 1인 직사각형의 면적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다시 말해, $\sum_{t=2021}^{2030} a_t = \sum_{t=2021}^{2030} a_t \times 1$ 이다. 그러므로 $\sum_{t=2021}^{2030} a_t$, $\sum_{t=2021}^{2030} b_t$는 각각 아래 그림에 표시된 면적이다.





그러므로 10년간 응용기술연구지원비는 정적분을 이용해 근사치를 계산할 수 있다.

$$\sum_{t=2021}^{2030} a_t = \int_0^{10} (0.002x^3 - 0.75x^2 + 13x + 40)dx = 805$$

$$\sum_{t=2021}^{2030} b_t = \int_0^{10} (-0.005x^3 + 0.45x^2 - 3x + 40)dx = 387.5$$

결론적으로 국가 A의 10년간 응용기술연구지원비를 대략 800억 원, 국가 B는 대략 400억 원을 지출했다.

2) 두 국가가 2011~2020년에 <표>와 같이 연구를 지원했을 때 국가 A의 온실가스배출량은 증가했고, 국가 B의 배출량은 감소했다. 그리고 국가 A와 국가 B는 2021~2030년에도 <표>의 패턴대로 연구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만약 연구지원비와 온실가스배출량 사이의 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국가 A의 배출량은 증가, 국가 B의 배출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혹은 더 보수적으로 말해서 국가 A와 국가 B 사이의 온실가스배출량 차이가 줄어들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생님 예시답안

[1-1] 답안 ① [대 + 결소결 + 결소결]

(나)는 기술의 잘못된 사용을 비판하며 기술의 올바른 사용을 강조한다. 당장의 이익을 추구하여 자극적인 기술을 편협하게 사용하면 결국 인간과 자연은 파괴된다. 반면, 원인을 발견하고 공리를 세움으로써 사물의 본성 자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 순수한 이론을 수립함으로써 인간 지성의 계발에 일조하는 기술은 장기적으로 예술적, 문화적 번영과 경제적 풍요를 가져온다.

(나)의 관점으로 본다면 (가)의 주장은 순수기술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묵자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유용한 것을 만드는 기술만이 훌륭하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사람을 지키는 방어 기계나 수레바퀴처럼 이로움

을 주는 응용기술만이 의로운 것이고, 공수반이 만든 나무 까치는 실용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폄하한다. 하지만, 이는 자연의 이치를 바탕으로 연구한 순수한 기술이 가져올 장기적인 이익을 놓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나)의 관점으로 본다면 (다)의 주장은 응용기술 남용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다. (다)는 순수 과학 보다 응용기술의 발전이 부정적 영향과 잠재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미래 충격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눈앞의 이익을 위한 응용기술의 남용은 결국 자연과 인간을 해칠 수 있다. 이는 순수기술의 장기적 혜택에 대해 균형 있는 시각을 갖지 못한 근시안적 태도일 뿐이다. (652자)

[1-1] 답안 ② [결 + 대 + 소결 + 소결]

(나)의 관점으로 본다면 (가)와 (다)의 주장은 순수기술의 중요성을 간과한 편협한 태도일 뿐이다. (나)는 기술의 잘못된 사용을 비판하며 기술의 올바른 사용을 강조한다. 당장의 이익을 추구하여 자극적인 기술을 편협하게 사용하면 결국 인간과 자연은 파괴된다. 반면, 원인을 발견하고 공리를 세움으로써 사물의 본성 자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 순수 이론을 수립함으로써 인간 지성의 계발에 일조하는 기술은 장기적으로 예술적, 문화적 번영과 경제적 풍요를 가져온다. 그러나 (가)의 묵자는 유용한 것을 만드는 기술만이 훌륭하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사람을 지키는 방어 기계나 수레바퀴처럼 이로움을 주는 응용기술만이 의로운 것이고, 공수반이 만든 나무 까치는 실용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폄하한다. 하지만, 이는 자연의 이치를 바탕으로 연구한 순수한 기술이 가져올 장기적인 이익을 놓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또한, (다)의 주장은 응용기술 남용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다. (다)는 순수 과학보다 응용기술의 발전이 부작용과 잠재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미래 충격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눈앞의 이익을 위한 응용기술의 남용은 결국 자연과 인간을 해칠 수 있다. 이는 순수기술의 장기적 혜택에 대해 균형 있는 시각을 갖지 못한 근시안적 태도일 뿐이다. (649자)

[1-2]

〔지문 A〕는 산업혁명이 인간의 삶과 생태에 미친 양면적 영향을 설명한다. 기술발전은 인간에게 편의와 풍요를 가져다주었지만, 생태환경의 파괴를 가져와 인간을 새로운 질병, 자원 고갈과 같은 위험과 부작용에 노출시켰다. 종들의 멸종, 생태 용량 초과 등은 이미 인간이 기술 발전의 부작용을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이를 바탕으로 (가)는 양가적 평가가 가능하다. 묵자는 유용한 것을 만드는 기술에 가치를 두고, 기술은 사람을 지키고 이롭게 하는 의로운 일에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기술이 미치는 영향의 양면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기술을 경계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에게 이로운 기술과 해로운 기술이 따로 있다고 보고, 인간에게 당장 이로운 기술도 결국 인간과 생태에 해로울 수도 있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는 단편적 인식의 한계를 보인다.

(다) 또한 양가적 평가가 가능하다. (다)는 기술발전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나 기술의 악용 가능성과 같은 피해와 부작용을 인정한다. 이처럼 무분별한 기술사용을 경계하는 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미래의 충격을 예방하기 위해 기술의 진보를 더욱 필요로 한다고 보는 점에서 지나치게 낙관적이며, 기술 진보로 인한 부작용을 과소평가하는 한계를 보인다. (650자)

[2-1]

〈표〉는 A국이 응용기술연구에, B국이 기초학문에 더 지원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림〉은 〈표〉의 지원 결과에 따른 10년간의 변화를 보여준다. A국은 고용률 감소, 온실가스배출량 증가, 기술특허수익 증가의 변화가, B국은 고용률 증가, 온실가스배출량 감소. 기술특허수익 증가의 변화가 나타난다.

(라)를 바탕으로 기술의 실용성을 강조하는 (가)는 양가적 평가가 가능하다. A국은 응용기술투자를 늘리자 온실가스배출량이 증가했는데, 이는 무기기술의 사용으로 자연 파괴를 우려한 묵자의 견해를 뒷받침한다. 또한 기술특허수익의 증가는 사람들의 삶에 보탬이 되는 기술을 강조한 묵자의 주장과 같은 결과다. 반면, 묵자는 응용기술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준다고 했지만, A국의 고용률이 감소한 결과를 보면 묵자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라)를 바탕으로 순수과학을 강조하는 (나) 역시 양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B국은 기초학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을 했는데 그 결과 고용률이 증가하고, 온실가스배출량이 감소했다. 이는 기초학문의 발전이 경제적 풍요는 물론 자연의 아름다움을 가져온다는 (나)의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다. 다만, (나)는 순수기술은 그 자체로 수익성이 없다고 했지만, B국에서 기술특허수익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이 주장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660자)

[2-2] 대학 해설 참고

제 4 강 2022학년도 기출문제

※ 아래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제시문 가>

이스라엘의 하이파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살펴보자. 그곳의 어린이집은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아이를 맡긴 부모 중 25%가 운영 시간이 지나 늦게 아이를 데리러 오는 바람에 아이들은 불안해하고 직원들은 초과 근무를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어린이집은 부모가 늦게 올 때마다 3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좋은 계획처럼 들리는가? 이제 부모들에게는 제 시간에 도착하게 하는 인센티브가 도덕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 두 가지가 되었다.

새로운 방안이 발표된 뒤, 늦게 도착한 부모의 수는 기대와 달리 증가했다. 오래지 않아 30%가 마감시간 이후에 도착했으며 몇 주만에 40%가 되었다. 그 이유는 간단했다. 부모들은 지각 요금을 벌금이 아니라 할증금으로 해석하고 이제 아이를 제 시간에 데리러 와야 하는 의무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후 많은 다른 연구에서 이 결과를 재확인했다. 사실 사람들이 일하는 이유는 가끔 서로 충돌하게 마련이다. 몇 년 전 메사추세츠 대학의 연구자들은 직장에서 경제적 인센티브가 가져오는 효과에 관한 51건의 연구를 분석했다. 그들은 보너스가 직원의 자발적인 동기와 도덕적 잣대를 둔화시킬 수도 있다는 압도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는지 그들은 보너스와 목표가 창의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예컨대, 시간당으로 임금을 지불하면 근무 시간만 늘어난다. 출판물별로 비용을 지불하면 출판물 수만 증가한다. 외과 수술 횟수로 비용을 지불하면 수술 횟수만 늘어난다.

이 점에서 서구 자본주의 경제와 구소련 경제체제는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구소련 시대의 관리자들은 목표치를 가지고 일했다. 예를 들어 가구 공장에서 목표치를 높이면 제품의 품질이 떨어졌다. 다음으로 테이블과 의자의 가격이 무게에 따라 책정되자 갑자기 공장에서는 무거워서 옮기기 힘든 부품이 생산되었다. 재미있게 들릴지 모르지만 슬픈 사실은 오늘날 많은 조직에서 이런 일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치료 횟수로 돈을 받는 외과 의사는 더 나은 치료를 제공하는 것보다 수술 건수를 늘이려 골몰할 뿐이다. 직원에게 최소 시간(연간 1,500시간) 근무 청구서를 요구하는 거대 로펌은 변호사로 하여금 일을 더 잘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오래 하게 만들 뿐이다. 공산주의나 자본주의 두 시스템 모두에서 숫자의 폭정은 우리에게서 내재적 동기를 앗아간다.

<제시문 나>

These days, the politicians argue that we should all be able to rise as far as our talent and hard work will take us. But why exactly that far? Why assume that our talents should determine our destiny, and that we deserve the rewards that flow from them?

There are two reasons to question this assumption. First, my having this or that talent is not my doing but a matter of good luck, and I do not deserve the benefits (or burdens) that derive from luck. People who value merit acknowledge that I do not deserve the benefits that arise from being born into a wealthy family. So why should other forms of luck—such as having a particular talent—be any different? If I won a million dollars in the state lottery*, I would be delighted at my good fortune. But it would be foolish to claim I had earned the unexpected gain, or that my winning had anything to do with my merit. Similarly, if I bought a lottery ticket and failed to win, I might be disappointed, but I could not complain that I had been denied something I deserved.

Second, that I live in a society that prizes the talents I happen to have is also not something for which I can claim credit. This too is a matter of good fortune. An NBA** superstar makes tens of millions of dollars playing basketball, a hugely popular game. Beyond being blessed with exceptional athletic gifts, he is lucky to live in a society that values and rewards them. It is not his doing that he lives today, when people love the game at which he excels, rather than in Renaissance Florence, when fresco painters, not basketball players, were in high demand. The same can be said of those who excel in pursuits our society values less highly. The world champion arm wrestler may be as good at arm wrestling as the superstar is at basketball. It is not his fault that, except for a few supporters, no one is willing to pay to watch him pin an opponent's arm to the table.

Much of the appeal of the faith in merit consists in the idea that

our success is our own doing, at least under the right conditions. Insofar as the economy is a field of fair competition, free from privilege*** or prejudice****, we are responsible for our fate. We succeed or fail based on our merits. We get what we deserve. This is a liberating picture, for it suggests we can be self-made human agents, the authors of our fate, the masters of our destiny. It is also morally satisfying, because it suggests the economy can answer to the ancient notion of justice as giving people their due. But the recognition that our talents are not our own doing complicates this picture of self-making. It puts in doubt the faith that overcoming prejudice and privilege is sufficient to bring about a just society. If our talents are gifts for which we are indebted—whether to the genetic lottery or to God—then it is a mistake to assume we deserve the benefits that flow from them.

*lottery: 복권, **NBA: 미국 프로농구연맹,
***privilege: 특권, ****prejudice: 편견

<제시문 다>

공정이란 개개인의 재능과 노력에 대한 합당한 평가를 통해 실현된다. 불평등은 그 자체로 정의롭지 않다고는 할 수 없다. 재능을 타고났다고 하더라도 그 재능을 활용하여 성과를 내는 것은 개인의 노력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의 재능과 노력에 기초한 기여도를 중시해야 한다. 누군가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재화를 소유하거나 특정한 자격을 얻었다면, 그 사람의 업적은 정당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즉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개인의 성취가 정당한 노력의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결과가 비록 어느 정도의 불평등을 유발하더라도 그것은 정의를 위하여 치러야 할 대가로 보아야 한다. 그 결과가 불평등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이를 정의롭지 않다고 느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만약 천부적 재능을 한 사회의 공동 자산으로 생각하고 이 재능이 산출하는 이익을 구성원들이 함께 나누자고 한다면, 이는 개인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자 정의를 침해하는 일이 될 수 있다.

마찬가지 이유로 대학의 학생선발 과정이나 절차는 지원자의 재능과 노력을 반영하는 학업성취도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만약 그런 과정과 절

차를 거치지 않고 학업능력과 상관없이 성별, 출신 지역, 국적, 소득수준, 혹은 순전한 운 등을 기준으로 선발한다면 다양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우선 지원자의 학업성취 욕구를 현저히 저하시킬 것이며, 소모적인 공정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재능과 노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지 않는 선발 절차가 대학을 넘어 사회 발전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제시문 라>

최후통첩 게임(Ultimatum Game)에서는 두 명의 참가자가 '제안자'와 '응답자'의 역할을 맡아 돈을 나눈다. 제안자는 먼저 이 돈을 둘로 쪼개어 자신의 몫과 상대의 몫을 제안한다. 응답자가 이를 수락하면, 두 사람은 각자의 몫을 챙겨 게임을 끝낸다. 응답자가 제안을 거부해도 게임은 끝난다. 다만, 이때는 두 사람 모두 빈털터리로 집에 돌아가야 한다. 최후통첩 게임을 활용한 두 건의 실험이 진행되었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게임 전에 동전 던지기를 통해 제안자와 응답자의 역할을 나누었다. 두 참가자는 이전에 서로 만난 적이 없고 앞으로도 만날 일이 없다. 참가자들이 냉철한 의사결정자라면 게임은 항상 제안자가 응답자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가진 채 끝나야 한다. 경제적 관점에서 응답자는 1원이라도 챙기는 것이 빈손으로 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 사실을 제안자도 알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몫을 더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게임에서는 대부분 두 사람이 60:40에 가까운 비율로 돈을 나누어 가지면서 끝난다. 제안자는 더 큰 몫을 가지길 주저하고, 응답자는 당연히 절반에 가까운 돈을 받을 거라 기대한다. 드물게 어떤 제안자가 더 큰 돈을 챙기려 하면, 그래서 가령 80:20 혹은 90:10으로 제안을 하면, 응답자는 즉시 표정이 굳어지고 제안을 거절할 것이다.

왜 그럴까? 한 가지 이유는 두 사람의 역할을 결정했던 방식에 있다. 만약 사람들이 다른 절차를 통해 자격을 획득했다면 어떨까? 두 번째 실험에서는 동전을 던지는 대신에 참가자들이 일련의 상식 문제에 답하게 하였다.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에게 제안자 역할을,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에게는 응답자 역할을 맡겼다. 이후 절차는 같았지만, 게임 결과는 크게 달랐다. 제안자들은 평균 80:20의 비율로 제안하였고, 응답자들은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문제 1-1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 각각의 관점에서 아래 지문을 평가하시오. (600자 안팎, 2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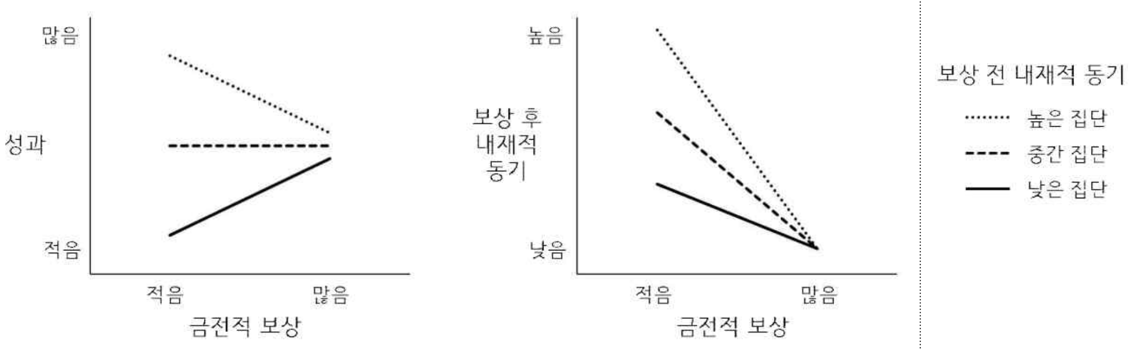
> 성과급 제도는 직원을 실적에 따라 경제적으로 보상한다. 회사에서 모든 직원이 능력, 업적, 성과에 상관없이 같은 임금을 받는다면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더 많은 교육을 받았고 경력도 많고 열심히 일하여 그 조직에 많은 보탬이 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직원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기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문제 1-2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 각각의 관점에서 <제시문 라>의 실험 결과를 설명하시오. (600자 안팎, 25점)

문제 2-1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일에 대한 내재적 동기에 따라 사람들을 세 집단으로 나누었다. 아래 왼쪽 그림은 집단별로 금전적 보상과 성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추세선이고, 오른쪽 그림은 금전적 보상과 '보상 후'의 내재적 동기의 관계를 보여주는 추세선이다. 두 개의 그래프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제시문 가>의 주장을 평가하시오. (600자 안팎, 25점)



문제 2-2 최후통첩 게임에서 두 참가자가 1만 원을 나눈다. 먼저 제안자가 자신의 몫으로 $(1-x)$만 원, 응답자의 몫으로 x만 원을 제안한다(단, $0 \le x \le 1$). 응답자는 제안을 수락 또는 거부할 수 있다. 응답자가 수락하면 제안대로 배분하고, 두 사람의 만족감은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제안자: $y_1 = 1-x$

응답자: $y_2 = x - c \times \max(0,\ 0.5-x)$

(단 $c \ge 0$이고 $\max(a,\ b)$는 a와 b의 최댓값을 의미함.)

응답자의 만족감은 수익 x에서 균등한 배분 0.5를 받지 못해서 생기는 불만감 $c \times \max(0,\ 0.5-x)$를 뺀 것이다. 여기서 c는 개인이 균등한 배분을 중요시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만약 응답자가 제안을 거부하면 두 사람 모두 돈을 받지 못하고, 만족감도 둘 다 0이 된다. 따라서 응답자는 $y_2 \ge 0$이면 제안을 수락하고, $y_2 < 0$이면 거부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안자는 x를 정한다. 이때 제안자는 응답자의 c를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 이런 상황에서 제안자의 만족감 y_1을 최대화하는 x를 구하여 c의 함수로 표현하고, <제시문 라>의 실험 결과를 그 함수를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글자 수 제약 없음, 25점)

2022학년도 기출문제 해설

[문제 1]

1. 출제 의도

1) 이번 <인문·사회계열> 논술시험은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지문과 문제를 통해 수험생의 종합적인 사고능력을 측정하려는 취지로 구성하였다.

2) 고등학교 교과「통합사회」,「생활과 윤리」,「사회·문화」에서 다루는 '정의와 불평등'을 대주제로 설정하고 '사회 불평등', '분배적 정의', '업적주의', '사회적 계층과 권리'의 개념을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하고 추론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3) 제시문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등재된 지문이나 그와 관련된 교양서적의 지문을 발췌하고 윤문하여 활용하였다.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접하는 주제와 개념을 이해하고 교과서 지문에 익숙한 수험생이라면 제시문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출처:

<제시문 가> 뤼트허르 브레흐만,『휴먼카인드: 감춰진 인간 본성에서 찾은 희망의 연대기』

<제시문 나> 마이클 샌델,『공정하다는 착각: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

<제시문 다> 고등학교 교과서『통합사회』(미래엔, 천재교육)

<제시문 라> 출제위원회 작성(출처: Hoffman 등, 1994, Games and Economic Behavior)

[문제 1-1] 소지문 고등학교 교과서「사회·문화」(미래엔)

4) '능력과 노력에 근거한 경제적 보상'에 연관된 제시문들을 비교·분석하게 하여 수험생의 독해력, 논리력, 표현력과 독창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5) 사회과학 연구 결과를 해석하고, 인문·사회 현상을 수리적 개념을 활용하여 사고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2. 문항 해설

<제시문 가>는 금전적 보상의 효과를 논한다. 금전적 보상이 내재적 동기를 낮추고, 도덕적 감각을 둔화시키며, 창의성을 훼손시키고, 성과를 낮춘다고 지적한다.

<제시문 나>에 따르면, 흔히 개인의 재능과 노력에 의한 성취라고 여겨지는 것도 사실 우연히 타고난 소질과 사회적 조건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개인의 성공이 온전히 그 사람의 몫이라고 믿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제시문 다>는 개인의 성과나 업적이 오롯이 각자의 재능과 노력의 산물이라고 본다. 그 결과 야기되는 사회적 불평등은 감수해야 할 대가이며, 그 이익을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려는 것은 권리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자 정의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한다.

<제시문 라>는 최후통첩 게임에서 제안자를 정하는 방식이 다른 두 실험을 소개한다. 동전 던지기를 통해 제안자를 정한 첫 번째 실험과 달리, 상식시험을 통해 제안자에게 일종의 자격을 부여한 두 번째 실험에서 더 불균등한 배분이 이루어졌다.

참고: <제시문 나> 영문 번역

요즘 정치인들은 한 사람의 재능과 노력이 허용하는 한 그 사람의 신분이 상승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대체 왜 그렇게 해야 할까? 우리의 재능이 우리 운명을 결정해야 하며, 따라서 그에 따른 보상은 당연히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어야만 하는 것일까? 이 가정에 의문을 제기할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내가 어떠한 재능을 갖게 된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행운의 결과다. 그리고 행운에 따른 혜택(또는 부담)은 내게 당연히 보장된다고 할 수 없다. 능력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내가 부잣집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 혜택을 누릴 당연한 자격은 없다고 한다. 그러면 다른 행운, 가령 특별한 재능을 갖고 태어났다거나 하는 것은 다르게 보아야 하는가? 내가 만약 복권을 사서 100만 달러에 당첨되었다면, 나는 그 행운에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하지 못한 이득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내 능력의 성과라고 주장한다면 어리석게 들릴 것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복권을 샀는데 당첨되지 않았다면, 나는 실망하겠지만 내가 당연히 가져야 할 것을 놓쳤다며 불평하지는 않을 것이다.

두 번째로, 내가 재능을 후하게 보상하는 사회에 산다면 그것 역시 우연이며, 내 능력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또한 행운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한 NBA 스타는 인기 있는 스포츠인 농구를 통해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인다. 그는 탁월한 운동 재능 외에도, 그 재능을 가치 있게 여기고 보상해 주는 사회에서 산다는 행운을 누린다. 그가 잘할 수 있는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사회에 살고 있음은 그가 노력한 결과가 아니다. 가령 르네상스 시대 피렌체처럼, 농구선수가 아닌 프레스코 화가가 각광을 받던 사회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우리 사회가 그리 높이 평가하지 않는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이라면 어떤가. 팔씨름 세계 챔피언은 농구 스타의 능력만큼 귀한 재능을 팔씨름이란 분야에서 보이는 셈이다. 하지만 그가 상대의 팔을 테이블에 내리꽂는 걸 보고자 돈을 내려는 사람이 소수의 후원자를 제외하고는 많지 않음은 그의 잘못이 아니다.

능력에 관한 신념의 매력 대부분은 '우리 성공은 우리 몫'이라는 생각(적어도 적절한 조건에서는)으로 이뤄져 있다. 경제판이 공정하며 특권과 편견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 운영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우리는 우리 능력에 따라 성공하거나 실패한다. 우리는 우리가 받아 마땅한 것을 받는다. 이것은 해방을 약속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자수성가하는 인간, 운명의 설계자, 삶의 주인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도덕적으로도 만족스러울 듯하다. '각자에게 그 몫을 준다'는 고전적인 정의에 경제가 응답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재능이 노력의 결과가 아님을 인식하면 이러한 자수성가의 그림은 복잡해진다. 그것은 특권과 편견을 극복하는 것만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에 충분하다는 신념에 회의를 가져온다. 우리 재능이 누군가에 빚진 것이라면 (그것이 유전이든, 우연의 결과든, 신의 선물이든), 우리가 거기서 비롯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수이다.

[문제 1-1]

<제시문 가>

① 인센티브는 자발적 동기를 경제적 이득으로 대체한다.
② 인센티브는 사람들의 도덕성, 창의성, 내재적 동기를 훼손한다.
③ 인센티브는 오히려 성과를 떨어뜨린다.

<제시문 나>

① 성취는 개인의 재능과 노력만의 산물이 아니다.
② 개인의 능력과 성취는 우연히 타고난 소질과 사회적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③ 한 개인의 성취를 온전히 그 사람의 몫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제시문 가>의 관점에서 소지문 평가

① 소지문은 성과급이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본다. 그에 반해, <제시문 가>는 성과급이 직원들의 도덕성, 창의성, 내재적 동기를 훼손할 거라 주장한다.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소지문 평가

① 성취의 우연적 요인을 강조하는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보면, 직원 개인이 자신의 실적에서 비롯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자격은 없고, 이를 원칙으로 하는 성과급 제도는 정당하지 않다.

[문제 1-2]

<제시문 나>

① 성취는 개인의 재능과 노력만의 산물이 아니다.
② 개인의 능력과 성취는 우연히 타고난 소질과 사회적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③ 한 개인의 성취를 온전히 그 사람의 몫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제시문 다>

① 개인의 성취와 업적은 오직 각자의 재능과 노력의 산물이다.
② 그 결과 야기되는 사회적 불평등은 감수해야 할 대가이다.
③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회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제시문 라> 설명

①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두 실험이 자격을 결정하는 방식은 같다. 동전 던지기만큼 상식시험의 결과도 우연히 결정된다고 본다. 두 번째 실험에서 제안자의 재능이 더 뛰어나거나 상식점수로 역할을 결정하는 일은 모두 우연의 산물이다. 단지 한 참가자가 다른 참가자보다 더 높은 상식점수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유리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
② 두 실험 모두에서 참가자들은 50:50으로 배분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는 사람들이 자격과 혜택의 관계를 오해하기 쉽다는 것을 뜻한다(마지막 줄의 ‘mistake’ 주목).

③ <제시문 나>는 실험 결과에 반영된 현실을 지적하고, 사람들이 착각을 피하여 바람직한 배분에 힘쓰도록 촉구할 것이다.

<제시문 다>의 관점에서 <제시문 라> 설명

① <제시문 다>의 관점에서 실험 결과는 재능과 노력을 인정하는 것이 공정성을 실현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해준다. 사람들은 운(동전 던지기)으로 자격이 정해질 때보다 능력(상식시험)으로 자격이 정해질 때 80:20과 같은 불균등한 배분에 쉽게 동의한다.

② 실험 참가자들이 실수하고 있다고 보는 <제시문 나>와 달리, <제시문 다>는 참가자들이 비교적 합리적으로 판단한다고 본다. 운이 자격을 결정할 때(첫 번째 실험)는 상대적으로 균등한 분배를, 능력이 자격을 결정할 때(두 번째 실험)는 상대적으로 불균등한 분배를 선호했기 때문이다.

[문제 2]

1. 출제 의도

1) 이번 <인문·사회계열> 논술시험은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지문과 문제를 통해 수험생의 종합적인 사고능력을 측정하려는 취지로 구성하였다.

2) 고등학교 교과「통합사회」,「생활과 윤리」,「사회·문화」에서 다루는 '정의와 불평등'을 대주제로 설정하고 '사회 불평등', '분배적 정의', '업적주의', '사회적 계층과 권리'의 개념을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하고 추론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3) 제시문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등재된 지문이나 그와 관련된 교양서적의 지문을 발췌하고 윤문하여 활용하였다.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접하는 주제와 개념을 이해하고 교과서 지문에 익숙한 수험생이라면 제시문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출처:

<제시문 가> 뤼트허르 브레흐만,『휴먼카인드: 감춰진 인간 본성에서 찾은 희망의 연대기』

<제시문 나> 마이클 샌델,『공정하다는 착각: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

<제시문 다> 고등학교 교과서『통합사회』(미래엔, 천재교육)

<제시문 라> 출제위원회 작성(출처: Hoffman 등, 1994, Games and Economic Behavior)

[문제 1-1] 소지문 고등학교 교과서「사회·문화」(미래엔)

4) '능력과 노력에 근거한 경제적 보상'에 연관된 제시문들을 비교·분석하게 하여 수험생의 독해력, 논리력, 표현력과 독창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5) 사회과학 연구 결과를 해석하고, 인문·사회 현상을 수리적 개념을 활용하여 사고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2. 문항 해설

[문제 2-1]

*** 그래프 분석**

① <제시문 가>에서 다루는 금전적 보상의 효과가 사람들의 내재적 동기 수준에 따라 다르다.

② 왼쪽 그래프

i) '보상 전 내재적 동기가 높은 집단'에서는 금전적 보상이 많아지면 성과가 낮아짐.

ii) '보상 전 내재적 동기가 중간 집단'에서는 금전적 보상이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iii) '보상 전 내재적 동기가 낮은 집단'에서는 금전적 보상이 많아지면 성과가 많아짐.

iv) 세 집단의 평균을 고려하면 보상이 적거나 많거나 성과 차이는 없음.

③ 오른쪽 그래프

v) 세 집단 모두 금전적 보상이 많아지면 보상 후 내재적 동기가 낮아짐.

vi) 그러한 경향은 보상 전 내재적 동기가 높을수록 뚜렷하게 나타난다(기울기가 다르다).

vii) 보상 후 모든 집단의 내재적 동기가 전에 비해 더 낮은 수준으로 수렴됨.

*** <제시문 가> 주장에 대한 평가**

④ 금전적 보상이 성과를 감소시킨다는 <제시문 가>의 주장은 내재적 동기가 높은 집단에만 적용되고, 내재적 동기가 중간인 집단과 낮은 집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⑤ <제시문 가>의 주장처럼 모든 집단에서 보상 후 내재적 동기가 감소했지만, 이러한 경향은 '보상 전 개인이 가지고 있던 내재적 동기' 수준에 따라 다르다.

⑥ 금전적 보상을 지급해도 전체 성과의 평균이 일정했다고 해석하면, 비용 대비 성과는 오히려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제시문 가>의 주장과 일치한다.

⑦ 장기적으로 모든 구성원의 동기 수준은 낮아질 것이고(즉, 모두 '낮은 집단'이 된다), 금전적 보상을 많이 지급해도 전체 집단의 성과가 예전 평균을 밑돌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예측은 <제시문 가>의 주장과 일치한다.

[문제 2-2]

1. 제안된 x에 대한 응답자의 의사 결정을 파악

① $0.5 \le x \le 1$인 경우, 응답자가 제안을 수락하면 만족감은

$y_2 = x - c \times \max(0,\ 0.5 - x) = x - c \times 0 = x$

$x \ge 0.5$이므로 만족도 y_2가 0보다 크다. 따라서 $0.5 \le x \le 1$이면 응답자는 제안을 수락한다.

② $x < 0.5$인 경우, 응답자가 제안을 수락하면 만족감은

$y_2 = x - c \times \max(0,\ 0.5 - x) = x - c(0.5 - x)$

응답자는 $y_2 \ge 0$, 즉 $x - c(0.5 - x) \ge 0$이 성립하는 경우에만 제안을 수락한다. 이 부등식을 정리하면 제안 수락을 위한 x의 범위를 얻는다.

$x \ge \frac{c}{2(c+1)}$

이 부등식의 우변에서 $\frac{c}{(c+1)} < 1$이므로 부등식의 우변은 항상 $\frac{1}{2}$보다 작다. 그리고 이 조건은 $x < 0.5$인 경우에 적용되므로 제안 수락을 위한 x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frac{c}{2(c+1)} \le x < 0.5$

③ 지금까지의 결과를 종합하면 제안 수락을 위해서는 $0.5 \le x \le 1$이거나 $\frac{c}{2(1+c)} \le x < 0.5$이 성립해야 한다. 두 조건을 결합하면 응답자가 제안을 수락하는 x의 범위를 얻는다.

$x \ge \frac{c}{2(c+1)}$

2. 제안자의 만족감을 최대화하는 x를 c의 함수로 표현

① 제안자는 응답자의 제안 수락 여부를 고려해서 x를 정해야 한다. 만약 $x < \frac{c}{2(c+1)}$을 제안하면 응답자는 거부하고, 제안자의 만족감은 0이 된다.

② 반면에 $x \ge \frac{c}{2(c+1)}$이면 응답자의 만족감은 $y_2 \ge 0$이므로 응답자는 수락한다. 그러므로 제안자는 $\frac{c}{2(c+1)}$보다 크거나 같은 x를 제안해야 양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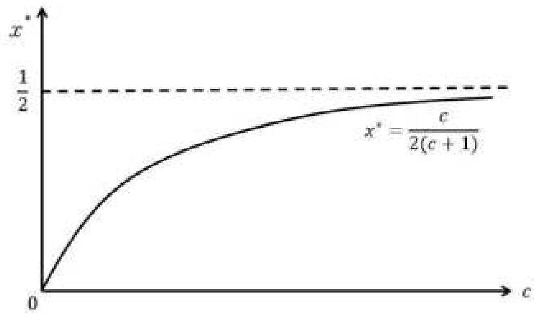
③ 하지만 만족감 y_1이 최대가 되려면 x가 최소가 되어야 하므로, 제안자는 응답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인 $x = \frac{c}{2(c+1)}$을 제안한다. 그러면 응답자는 제안을 수락하고 제안자의 만족감은 최대가 된다. 그러므로 제안자의 만족감을 최대화하는 $x = x^*$는 다음과 같은 c의 함수로 표현된다.

$x^* = \frac{c}{2(c+1)}$

3. 함수 관계를 바탕으로 <제시문 라>의 실험 결과 설명

① x^*와 c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x^*를 다음과 같이 다시 쓴다.

$$x^* = \frac{c}{2(c+1)} = \frac{1}{2}\left[\frac{(c+1-1)}{c+1}\right] = \frac{1}{2}\left[1 - \frac{1}{c+1}\right]$$



위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x^*는 c의 증가함수이며 $c=0$일 때 $x^*=0$이 되고, $c \to \infty$이면 x^*는 $\frac{1}{2}$로 수렴한다.

② 이 함수를 해석하면, c가 클수록 응답자는 균등한 배분을 중요하게 여기고, $x < 0.5$일 때 큰 불만을 느낀다. 따라서 응답자는 x가 작으면 제안을 거부한다. 제안자는 이 점을 고려하여 응답자에게 상대적으로 큰 몫을 떼어준다. 그러므로 c가 증가하면 x^*도 증가한다.

③ <제시문 라>의 실험에서는 제안자가 배분 비율을 결정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런데 동전던지기를 통해 '우연히' 제안자가 결정된 경우, 응답자는 불균등한 배분에 대한 불만이 커서 c가 클 것이다. 따라서 제안자는 50:50에 가까운 배분을 제안하여 응답자의 수락을 유도한다. 반면에 상식시험을 통해 제안자가 결정되면, 응답자는 제안자의 자격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어 불균등한 배분에 대한 불만이 작고 c도 작을 것이다. 따라서 제안자가 훨씬 큰 몫을 가져도 응답자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④ x^* 함수를 이용해 첫 번째 실험의 60:40 배분 결과에 대응되는 $c=4$와 두 번째 실험의 80:20 배분 결과에 대응되는 $c=\frac{2}{3}$를 찾은 경우 가산점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정답 여부는 실험 과정에 따라 c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실험 결과가 달라지는 부분을 설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선생님 예시답안

[1-1]

지문에 제시된 성과급 제도는 실적에 따른 경제적 보상을 통해 직원들의 동기 부여를 유도한다. 그리고 노력과 실적에 상응하는 보상을 기대하는 것을 인간의 자연스러운 속성으로 바라본다.

하지만, (가)의 관점으로 본다면, 지문에 제시된 성과급 제도는 기대하는 효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가)의 연구결과는 금전적 보상의 역효과를 보여준다. 금전적 보상은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사람들의 내재적 동기를 낮출 뿐만 아니라 도덕적 감각을 둔화시키며, 창의성을 훼손시켜 오히려 성과를 낮춘다고 지적한다. 그러므로 성과급 제도는 인간을 경제적 보상에 반응하는 단순한 존재로 파악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또한, (나)의 관점으로 본다면, 성과급 제도는 그 실효성을 논하기 전에 정당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나)는 성취의 결과물이 개인의 재능과 노력만의 산물이라는 능력주의를 비판한다. 흔히 개인의 성취라고 여겨지는 것도 사실 우연히 타고난 소질과 사회적 조건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개인의 성공이 온전히 그 사람의 몫이라고 믿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우연적 요소를 고려한다면 직원 개인이 자신의 실적에서 비롯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자격은 없고, 이를 원칙으로 하는 성과급 제도는 정당하지 않다. (608자)

[1-2]

(나)의 관점에서 (라)의 실험 결과는 사람들이 우연의 요소를 고려하지 못하는 비합리성 보여준다. (나)는 개인의 성취가 우연의 산물이라는 입장이다. 이렇게 본다면 (라)의 실험에서 제안자를 정하는 두 방식은 모두 우연히 결정된 것일 뿐이다. 동전 던지기는 물론이고 단지 한 참가자가 다른 참가자보다 더 높은 상식점수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유리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 우연의 요소를 고려했다면, 두 실험 모두에서 참가자들은 50:50으로 배분했어야 하는데, 결과는 늘 제안자가 많은 금액을 가져갔다, 이는 사람들이 자격과 혜택의 관계를 오해하기 쉽다는 것을 뜻한다.

반면, (다)의 관점에서 (라)의 실험 결과는 사람들의 합리성을 보여준다. (다)는 개인의 성과는 각자의 재능과 노력의 산물이라고 보고, 이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은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사람들은 운(동전 던지기)으로 자격이 정해질 때는 상대적으로 균등한 분배를 선택한다. 하지만 능력(상식시험)으로 자격이 정해질 때 상대의 능력을 존중해 80:20과 같은 불균등한 분배마저 기꺼이 인정을 한다. 즉 대다수의 사람들은 상대의 재능을 정당한 권리로 존중하는 합리적 선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13자)

[2-1] 답안사례 ① - (가)주장 옹호

개인들이 가지고 있던 내재적 동기에 따라 세 집단으로 나누었을 때, 왼쪽 그래프는 금전적 보상과 성과의 관계를 보여준다. 보상 전에 동기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은 보상에 따라 성과가 각각 반비례, 비례 관계를 보인다. 중간 집단은 보상이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세 집단의 평균을 고려하면 보상이 적거나 많거나 성과의 차이는 없다. 오른쪽 그래프는 보상이 이루어진 후, 보상에 따른 동기의 변화를 보여준다. 세 집단 모두 보상이 많아질수록 동기가 낮아지는데, 결국에는 보상 후 모든 집단의 동기가 전에 비해 더 낮은 수준으로 수렴된다. 특히 기울기의 차이에서 알 수 있듯이 보상 전 동기가 높은 집단일수록 감소폭이 크게 나타난다.

이를 바탕으로 본다면 금전적 보상의 역효과를 설명하는 (가)의 주장은 타당하다. 왼쪽 그래프에서 금전적 보상을 지급해도 전체 성과의 평균이 일정하다면, 비용 대비 성과는 오히려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즉 보상을 하지 않아도 전체 성과에는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금전적 보상이 장기화될 경우, 모든 구성원의 동기 수준은 낮아질 것이고, 심지어 금전적 보상을 많이 지급해도 전체 집단의 성과가 예전 평균을 밑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인센티브가 자발적 동기를 약화시킨다는 (가)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659자)

[2-1] 답안사례 ② - (가)주장에 대한 양가적 평가 A

개인들이 가지고 있던 내재적 동기에 따라 세 집단으로 나누었을 때, 왼쪽 그래프는 금전적 보상과 성과의 관계를 보여준다. 보상 전에 동기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은 보상에 따라 성과가 각각 반비례, 비례 관계를 보인다. 중간 집단은 보상이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세 집단의 평균을 고려하면 보상이 적거나 많거나 성과의 차이는 없다. 오른쪽 그래프는 보상이 이루어진 후, 보상에 따른 동기의 변화를 보여준다. 세 집단 모두 보상이 많아질수록 동기가 낮아지는데, 결국에는 보상 후 모든 집단의 동기가 전에 비해 더 낮은 수준으로 수렴된다. 특히 기울기의 차이에서 알 수 있듯이 보상 전 동기가 높은 집단일수록 감소폭이 크게 나타난다.

이를 바탕으로 본다면 보상의 역효과를 설명하는 (가)의 주장은 양가적 평가가 가능하다. 보상을 지급해도 전체 성과의 평균이 일정하다면, 비용 대비 성과는 오히려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금전적 보상이 장기화될 경우, 모든 구성원의 성과가 예전 평균을 밑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인센티브가 자발적 동기를 약화시킨다는 (가)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반면, 보상이 성과를 감소시킨다는 (가)의 주장은 내재적 동기가 높은 집단에만 적용되고, 내재적 동기가 중간인 집단과 낮은 집단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반화할 수 없다. (656자)

[2-1] 답안사례 ③ - (가)주장에 대한 양가적 평가 B

개인들이 가지고 있던 내재적 동기에 따라 세 집단으로 나누었을 때, 왼쪽 그래프는 금전적 보상과 성과의 관계를 보여준다. 보상 전에 동기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은 보상에 따라 성과가 각각 반비례, 비례 관계를 보인다. 중간 집단은 보상이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세 집단의 평균을 고려하면 보상이 적거나 많거나 성과의 차이는 없다. 오른쪽 그래프는 보상이 이루어진 후, 보상에 따른 동기의 변화를 보여준다. 세 집단 모두 보상이 많아질수록 동기가 낮아지는데, 결국에는 보상 후 모든 집단의 동기가 전에 비해 더 낮은 수준으로 수렴된다. 특히 기울기의 차이에서 알 수 있듯이 보상 전 동기가 높은 집단일수록 감소폭이 크게 나타난다.

이를 바탕으로 본다면 보상의 역효과를 설명하는 (가)의 주장을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금전적 보상이 성과를 감소시킨다는 (가)의 주장은 내재적 동기가 높은 집단에만 적용되고, 내재적 동기가 중간인 집단과 낮은 집단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집단에서 보상 후 내재적 동기가 감소했고 심지어 금전적 보상이 많아짐에도 전체 집단의 성과가 예전 평균보다 더 낮아졌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은 '보상 전 개인이 가지고 있던 내재적 동기'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일반적 현상으로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655자)

[2-1] 답안사례 ④ - (가)주장에 대한 제3의 견해

개인들이 가지고 있던 내재적 동기에 따라 세 집단으로 나누었을 때, 왼쪽 그래프는 금전적 보상과 성과의 관계를 보여준다. 보상 전에 동기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은 보상에 따라 성과가 각각 반비례, 비례 관계를 보인다. 중간 집단은 보상이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세 집단의 평균을 고려하면 보상이 적거나 많거나 성과의 차이는 없다. 오른쪽 그래프는 보상이 이루어진 후, 보상에 따른 동기의 변화를 보여준다. 세 집단 모두 보상이 많아질수록 동기가 낮아지는데, 결국에는 보상 후 모든 집단의 동기가 전에 비해 더 낮은 수준으로 수렴된다. 특히 기울기의 차이에서 알 수 있듯이 보상 전 동기가 높은 집단일수록 감소폭이 크게 나타난다.

이를 바탕으로 본다면 (가)의 주장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 두 자료 모두에서 보상이 동기 부여에 긍정적이지 않음은 확인할 수 있다. 보상이 진행될수록 사람들의 동기가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것이 (가)에 주장하는 보상(보너스)의 역효과에 대한 근거는 될 수 있지만, 어린이집 부모들에게 부과된 손실(패널티)의 경우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벌금제도 시행 후, 그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이 늘긴 했지만 절대 다수가 이에 반응하지는 않았다. 이는 손실을 회피하려는 심리나 도덕적 가치 등이 여전히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현상을 주어진 자료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 (718자)

제 5 강 2021학년도 기출문제 1

※ 아래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가) 미덕의 실행은 우리에게 달려 있고, 그 점은 악덕도 마찬가지이다.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는 곳에서는 행하지 않는 것도 우리에게 달려 있으며, 거부하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는 곳에서는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에게 달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매한 행위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면 수치스러운 행위를 하지 않는 것도 우리에게 달려 있을 것이며, 고매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면 수치스러운 행위를 하는 것도 우리에게 달려 있다고 하겠다. 고매한 행위나 수치스러운 행위를 하고 안 하고가 우리에게 달려 있고 고매한 행위를 하는지 수치스러운 행위를 하는지가 좋음과 나쁨의 요체라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지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는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

'세상에는 자발적으로 사악한 사람도 없고 비자발적으로 복 받는 사람도 없다'는 말은 일부는 틀리고 일부는 맞다. 복 받기를 원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사악함은 자발적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방금 말한 것을 반박하며 인간이 자기 행위의 제1 원리임을, 또는 자식을 낳듯 자기 행위를 낳는 자임을 부인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이 분명 그렇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제1 원리들을 넘어 다른 제1 원리로 거슬러 올라갈 수 없다면, 제1 원리가 우리 안에 있는 행위들 역시 우리에게 달려 있으며 자발적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입법자들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실제로 입법자들은 무지에 대한 책임이 범죄자에게 있다고 생각되면 무지 자체 때문에 범죄자를 처벌한다. 이를테면 술취한 범죄자에게는 가중처벌을 내린다. 술에 취하지 않을 수도 있었으므로 제1 원리는 그에게 있고 술에 취한 것이 그의 무지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또한 입법자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간단한 법규를 모르는 사람들도 처벌한다. 이 점은 사람들이 부주의한 탓에 무지하다고 생각되는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에게는 조심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본성적으로 조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느슨한 생활 태도 탓에 그렇게 되는 것은 본인 책임이다.

(나)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전공과 진로의 '선택'이 과연 사회적 차별과 무관할 수 있을까? 여성으로서 어떤 전공이 취업에 유리할지, 결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게 되어도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어떤 직업이 좋을지 등의 선택은 이미 노동시장과 사회 전반의 차별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여성뿐만이 아니다.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등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불리한 조건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그 조건에 맞추어 행동한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결과는 차별적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직업시장이 성별에 따라 분리되면 여성에게 이로워 보이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아지는 현상은 계속된다. 노동의 가치에 대한 평가는 사회 전반의 성차별 의식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과 무관하지 않다. 여성이 많은 직업은 여성이 많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노동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현상이다. 여성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면서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상황은 직관적으로도 부당한 차별로 여겨진다. 하지만 여성이 애초에 임금이 낮은 직종에 진출하는 상황은 다르다. 어떤 면에서 여성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노동시장으로 자발적으로 진입한 셈이 되었으니, 여성이 스스로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구조적 차별은 이렇게 차별을 차별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이미 차별이 사회적으로 만연하고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어서 충분히 예측 가능할 때, 누군가 의도하지 않아도 각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차별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생긴다. 차별로 인해 이익을 얻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불이익을 얻는 사람 역시 질서정연하게 행동함으로써 스스로 불평등한 구조의 일부가 되어간다.

우리는 때로 의식적으로 사회적 편견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기도 한다. 평소에 청바지를 입고 운동화를 신는 사람이 정장을 갖춰 입고 구두를 신을 때가 있다. 대표적으로 취업 면접을 갈 때이다. 나의 스타일이 아닌, 상대가 원하는 스타일에 맞춘다. 내가 목표로 하는 직장에서 원하는 직원의 상을 분석해서 그 이미지에 부합하려고 노력한다. 상대의 편견에 맞추려는 철저히 의도적이고 이성적인 행동이다. 인생에서 중요한 일일수록 그 선택은 사회적 편견에서 자유롭지 않다. 아니, 최대한 안전한 결과를 얻기 위해 가장 보수적인 선택을 하기 마련이다. 차별이 없는 상태에서도 사람들은 지금과 같은 선택을 할까? 만약 고정관념과 편견이 없는 사회에서 자랐다면 우리의 관심과 적성이 분명 현재와 같지는 않을 것이다.

(다) The fact that people can change their selves and cultures does not mean that they do so readily. A major obstacle is that many people don't even realize that they have cultures. They think that they are standard, normal, natural, and neutral. It's all those other annoying people who let cultures bias their ability to perceive the world as it actually is. This line of thinking is especially widespread in middle-class European-American culture, where the independent I is thought to be a self-made self. Consequently, middle-class European Americans often ignore social forces when explaining why people do the things they do, and instead focus on people's internal traits, talents, and preferences. Psychologists Michael Morris and Kaiping Peng tracked two dramatically different styles in English- and Chinese-language newspapers' reporting on two mass murderers: Gang Lu, a Chinese graduate student in physics at the University of Iowa who killed his adviser, several colleagues, and himself after he lost an award competition; and Thomas McIlvane, an American postal worker who shot his supervisor, several bystanders, and himself after he lost his job in Royal Oak, Michigan. The New York Times and the World Journal (a Chinese-language newspaper published in New York) covered both tragedies, but told very different stories. American reporters spilled more ink describing Lu as a "darkly disturbed man" with a "bad temper[1]" and a "sinister[2] edge," and attributing McIlvane's crime to his "short fuse," mental instability, and other personal qualities. In contrast, Chinese reporters dedicated more column inches to situational factors. For Lu, it was the bad relationship with his adviser, the lack of religion in Chinese culture, and the availability of guns in American society that drove him to kill. For McIlvane, tensions with his supervisor, the example of other mass slayings[3], and the fact that he had recently been fired had led him to homicide[4] . Because independent selves believe that people's internal qualities drive their actions, they also believe that they react to what's inside people, not to their cultures. As a result, many Americans claim to be color-blind, gender-blind, class-blind, religion-blind, or otherwise

culture-blind. People in interdependent cultures, in contrast, pay more attention to external factors such as others, social structures, and inevitable situations, and explain people's behavior and its consequences with those social forces.

[1]temper 성질, [2]sinister 사악한, [3]slaying 살해, [4] homicide 살인

(라) 사람들은 흔히 비만이 유전적으로 결정된다고 믿는다. 물론 유전자는 개인이 얼마나 과체중이 되기 쉬운지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많은 나라에서 비만이 갑자기 증가했다는 사실은 유전적인 요소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창궐'이라고 표현할 만큼 급격히 확산된 비만의 원인을 삶의 방식이 바뀐 데에서 찾기도 한다. 사람들은 식료품 가격의 하락, 열량 높은 음식의 보급, 패스트푸드 식당의 확산, 요리 시간의 단축 등을 비만의 이유로 꼽는다. 때로는 부족한 육체적 활동, 자동차 사용의 증가, 학교 체육 수업의 감소 등을 비만율 증가의 원인으로 주목한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현대인들은 비만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만약 우리가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면, 식료품과 자동차 구매에 유리한 부유한 계층에서 과체중인 사람들이 더 많고, 부유한 나라일수록 비만 인구의 비율이 높으리라 예측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한 국제연구기관은 심혈관 질환 및 비만을 포함한 위험요소의 경향을 관찰하기 위하여 50개 국가를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다. 이 연구는 비만율이 여러 사회적 지표들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주요한 결과로 소득 불평등이 심한 국가들에서 높은 정도의 비만율이 나타났다. 그러나 개별 국가의 국민 1인당 소득 수준과 비만율은 상관관계가 없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경우 국민 1인당 소득 수준은 높았지만, 불평등도가 높게 나타났고 이는 높은 비만율로 이어졌다. 반면, 덴마크와 같은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국민 1인당 소득 수준은 높았지만, 소득 불평등도는 낮았으며 이는 낮은 비만율로 이어졌다. 이 연구에 따르면, 부유한 사회라고 해서 비만율이 항상 높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비만율은 소득 불평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문제 1-1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를 책임소재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제시문 나>의 입장에서 <제시문 가>의 주장을 비판하시오.

(600자 안팎, 25점)

문제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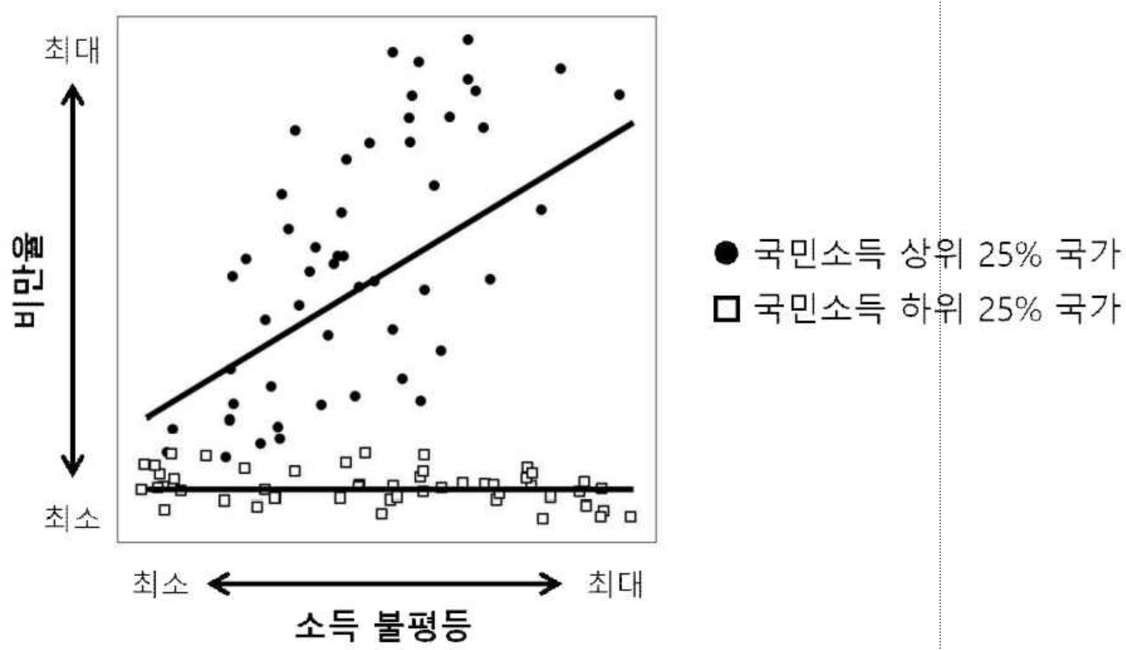
<제시문 라>의 주장을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문 다>에 나타난 두 신문의 책임소재를 다루는 관점을 평가하시오.

(600자 안팎, 25점)

문제 2-1

<제시문 라>의 연구는 국민 1인당 소득이 상위 25%인 국가들만을 대상으로 수행되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 1인당 소득이 하위 25%인 국가들의 소득 불평등과 비만율을 추가로 조사했다고 가정하자. 아래 그래프는 전체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실선은 소득 불평등도와 비만율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추세선이다.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는 결과들을 바탕으로 <제시문 라>의 주장을 여러 이유를 들어 비판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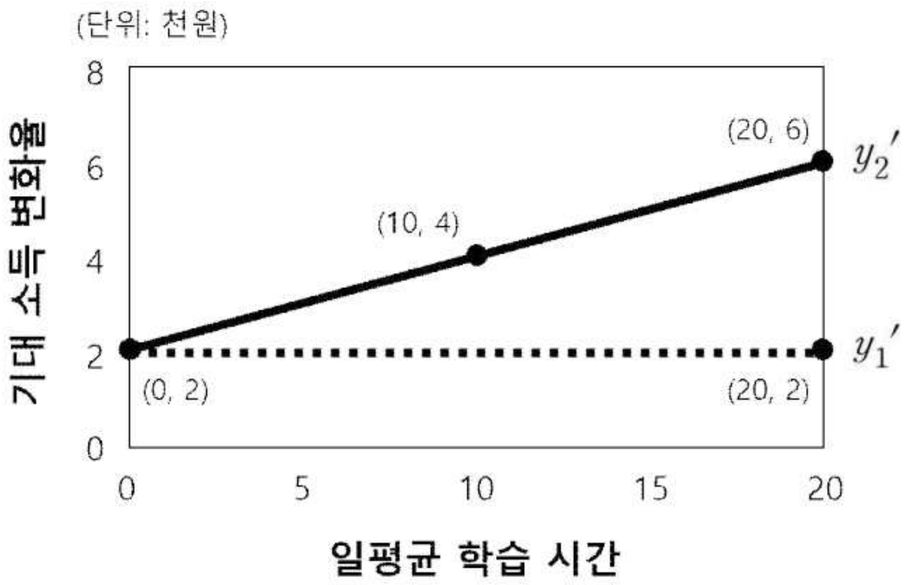
(600자 안팎, 25점)



문제 2-2

아래 설명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글자 수 제약 없음, 25점)

자녀의 유년기 학습시간 x와 성인기 소득 y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관찰된 두 변인의 관계는 다음과 같았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부모의 자녀 집단: $y_1 = mx + n$ (단, $0 \le x \le 20$)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의 자녀 집단: $y_2 = a(x-b)^2 + c$ (단, $0 \le x \le 20$)
x는 1일 평균 학습시간이고, y_1와 y_2는 시간당 기대 소득이라고 할 때, 유년기 학습시간에 따라 기대되는 성인기 소득의 변화율 $y_1{}'$과 $y_2{}'$을 아래 그래프에 제시하였다.



1) 두 집단 모두 전혀 공부하지 않았을 때의 시간당 소득이 10(단위: 천원)이라고 할 때, 주어진 함수의 m, n, a, b, c를 구하시오.

2) 두 함수를 하나의 좌표평면에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책임소재의 관점에서 <제시문 나>의 주장을 평가하시오.

2021학년도 기출문제1 해설

1. 출제 의도

가)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다면사고형 논술을 통해 응시자의 종합적인 사고능력을 평가하였다.

본 논술시험은 ‘책임소재’를 중심으로 고등학교「윤리와 사상」,「생활과 윤리」,「통합사회」등에서 다루는 ‘개인과 사회의 책임’, ‘다문화 및 문화 차이’, ‘불평등과 차별’의 주제들을 여러 관점에서 분석해보도록 유도하였다. 개인과 사회의 책임을 검토하는 일은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기 발달과업이다. 본 논술시험은 익숙한 개념을 활용하여 응시자가 데이터와 수리적 개념에 근거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 이를 제시문의 맥락에서 논리정연하게 추론하고 확산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문항의 그래프는 교과서와 신문, 교양서적에서 자주 접하는 형식으로 자료를 제시한다. 수학 문항은 연산 능력보다 개념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나) 고교 교육과정을 착실히 이행한 응시자라면 자주 경험했을 만한 내용과 형식의 지문들로 제시문을 구성하였다.

<제시문 가>의 출처인 아리스토텔레스의『니코마코스 윤리학』은「윤리와 사상」(씨마스, 교학사),「생활과 윤리」(천재교과서) 교과서에 등재되어 학생들에게 익숙하다. <제시문 나>와 <제시문 라>는 각각 교양서적『선량한 차별주의자』(김지혜 저)와 교양서적『The Spirit Level』(윌킨슨과 피켓 저)에서 발췌되었다. 두 지문은「통합사회」(천재교육, 미래엔),「사회·문화」(미래엔, 비상교육) 등의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정의와 불평등, 개인과 사회구조, 사회계층과 불평등의 주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제시문 다>는 문화심리학자들이 쓴『Clash!』(마커스와 코너 저)라는 교양서적에서 발췌한 영어지문으로서「통합사회」(천재교육, 미래엔),「영어II」(비상, 천재교육) 등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는 문화와 다양성의 주제와 관련된다. 고등학교 영어를 이수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독해할 수 있는 수준의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영어단어는 그 의미를 제시문 하단에 표시하였다.

2. 문항 해설

<제시문 가> 아리스토텔레스의『니코마코스 윤리학』(천병희 역) 3권『도덕적 책임』5장에서 발췌하여 출제 의도에 맞게 수정하였다. 미덕과 악덕의 문제를 통해 개인의 책임소재를 논하며, 미덕과 악덕을 행하는 것이 개인에게 달려있다고 설명한다.

<제시문 나> 김지혜의『선량한 차별주의자』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출제 의도에 맞게 편집하였다. 여성이 경험하는 차별과 불평등이 사회적 구조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논하고 있으며, 여성이 겪는 불평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 문제라고 주장한다.

<제시문 다> 문화심리학자 헤이즐 마커스(Hazel Markus)와 앨래나 코너(Alana Conner)가 쓴 교양서적『Clash!』에서 발췌하고 출제 의도에 맞게 편집하였다. 영자신문과 한자신문이 살인사건을 보도하는 방식을 비교하고, 문화적 배경

에 따라 책임소재가 어떻게 달리 인식되는지를 논한다. 영자신문은 개인의 책임을 상대적으로 강조하지만, 한자신문은 사회적 요인을 더 비중 있게 다룬다.

<제시문 라> 리차드 윌킨슨(Richard Wilkinson)과 케이트 피켓(Kate Pickett)이 쓴 교양서적『The Spirit Level』에서 발췌하여 출제 의도에 맞게 수정하였다. 비만율의 중요한 원인을 소득 불평등에서 찾고 있다.

[문제 1-1]

출처가 다른 두 제시문의 연관성을 이해하고, 한 관점에서 다른 관점의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생각을 간결하고 논리정연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가>는 개인의 책임을 강조한다. 개인은 행위와 판단의 제1 원리이자 주체로서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잘못된 행동이 무지와 부주의로 인해 벌어졌다고 해도 그 책임은 쉽게 면제되지 않는다. 무지와 부주의조차 개인이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제시문 나>는 개인의 판단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에 주목한다. 사회적 차별의 경우, 약자들은 구조적으로 이미 제약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선택은 다시 차별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소모된다. 개인이 의도적으로 행한 일조차 실제로는 사회적인 압력의 결과일 수 있다.

<제시문 나>는 개인적 행위의 책임소재가 개인 바깥에 있을 가능성을 지적함으로써 책임소재가 전적으로 개인에게 있다고 보는 <제시문 가>를 비판할 수 있다. <제시문 가>의 입장은 개인이 자신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들을 인식할 수 있고 마음대로 배제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제시문 나>는 그러한 가정이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개인은 사회구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이므로 독립적인 의사결정자를 가정하는 입장은 비판받을 수 있다.

[문제 1-2]

서로 다른 방식의 조사 결과를 포함하고 언어가 다른 두 제시문의 관점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생각을 간결하고 논리정연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다>는 서구문화와 동양문화가 책임소재를 이해하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고 있다. 두 건의 총기 사건에 대하여 영자신문은 사건의 원인을 범인의 개인적 특질과 능력, 그리고 성향에서 찾는다. 그에 비해, 한자신문은 범인의 대인관계와 제도, 문화·경제적 상황 등 사회적 맥락에서 사건을 분석한다.

<제시문 라>는 소득 불평등이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유전이나 생활습관 같은 개인적 요인으로는 여러 나라에서 비만율이 급히 증가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소득 격차가 큰 나라에서 비만율이 높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개인의 비만에는 사회에도 책임이 있다.

비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제시문 라>의 입장에서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영자신문의 논지를 비판할 수 있다. 유전이나 개인 소득이 비만율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그에 비해, 개인이 처한 사회적 정황을 고려하는 한자신문의 논지는 사회 구조적 책임을 강조하는

<제시문 라>의 관점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문제 2-1]

서로 다른 포맷으로 제시된 두 정보(제시문과 그래프)를 비교하여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 조사 결과(그래프)를 근거로 기존의 지식(제시문)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보완된 자료에서 알 수 있는 사실과 <제시문 라>의 주장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① 국민소득에 따라 소득 불평등과 비만율의 상관관계가 다르다. <제시문 라>가 제시한 근거 자료는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들의 경우에만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소득 하위 25% 국가들에서는 소득 불평등과 비만율의 상관관계가 없었다. ② 국민소득 상위 25% 국가의 비만율이 하위 25% 국가보다 높다. 이는 소득 수준과 비만율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제시문 라>의 주장과 어긋난다. ③ 국민소득 하위 25% 국가들의 자료에 비해, 상위 25% 국가들의 자료는 분산(산포율)이 크다. 소득 불평등 정도가 비슷해도 비만율이 크게 다를 수 있다는 점은 비만율의 원인이 되는 다른 요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는 <제시문 라>의 근거를 약화시킨다.

이밖에도 ④ 국민소득이 중위권에 속하는 국가들의 자료가 누락되었고, ⑤ 그래프에 상관 자료만 제시되어 있어서 인과적인 추론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으나, 이러한 답안은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는 결과들을 바탕으로" <제시문 라>를 비판해야 하는 문항의 요구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

[문제 2-2]

1) **수리적 개념을 활용하여 사회 현상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함수로 표현된 사회경제적 요인들의 관계를 근거로 제시문의 관점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미적분법을 활용하여 함수의 계수와 상수를 구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다.

① 주어진 그림에서 y_1'의 함수식을 구하기 위해 기울기를 구하면, $\frac{0-0}{20-0}=\frac{0}{20}=0$, y절편은 2이므로, y_1'의 함수식은 $y_1'=2$이다.

② 주어진 그림에서 y_2'의 함수식을 구하기 위해 기울기를 구하면, $\frac{6-4}{20-10}=\frac{2}{10}=0.2$, y절편은 2이므로, y_2'의 함수식은 $y_2'=0.2x+2$이다.

③ 문제에서 주어진 y_1에 관한 식 $y_1=mx+n$을 x에 대하여 미분하면 $\frac{dy_1}{dx}=m$이다. 이를 ①의 식과 비교하면 $m=2$이고, $x=0$일 때 $y_1=10$이므로 $n=10$이다. 즉, $y_1=2x+10$이다.

또는, ①의 $y_1'=2$에서 x에 대하여 부정적분을 하면 $y_1=2x+C_1$ (단, C_1은 적분상수)이고, 두 집단이 전혀 공부를 하지 않았을 때의 시간당 소득이 10이므로 $x=0$일 때, $y_1=10$이다. 따라서 $10=2\times 0+C_1$이므로 $C_1=10$이다. 즉, $y_1=2x+10$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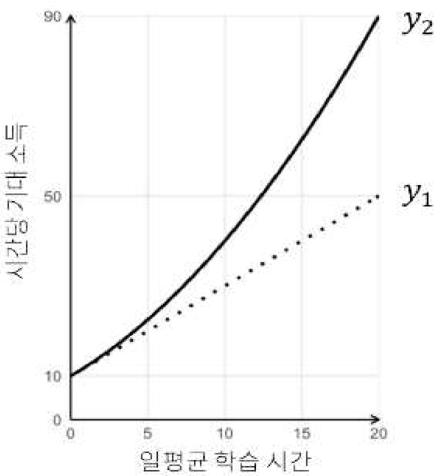
④ 문제에서 주어진 y_2에 관한 식 $y_2=a(x-b)^2+c$를 x에 대하여 미분하면,

$\dfrac{dy_2}{dx} = 2a(x-b) = 2ax - 2ab$이다. 이를 ②의 식과 비교하면 $a = \dfrac{1}{10} = 0.1,\ b = -10$이고, $x=0$일 때 $y_2 = 10$이므로 $c = 0$이다. 즉, $y_2 = 0.1(x-(-10))^2 + 0 = \dfrac{1}{10}(x+10)^2$이다.

또는, ②의 $y_2{}' = 0.2x + 2$에서 x에 대하여 부정적분을 하면 $y_2 = 0.2 \times \dfrac{1}{2}x^2 + 2x + C_2$ (단, C_2는 적분상수)이고, 두 집단이 전혀 공부를 하지 않았을 때의 시간당 소득이 10이므로 $x=0$일 때, $y_2 = 10$이다. 따라서 $10 = \dfrac{1}{10} \times 0^2 + 2 \times 0 + C_2$이므로 $C_2 = 10$이다. 즉, $y_2 = \dfrac{1}{10}x^2 + 2x + 10 = \dfrac{1}{10}(x+10)^2$이다.

①~④를 따르면, 두 함수의 계수와 상수는 각각 $m=2,\ n=10,\ a=0.1,\ b=-10,\ c=0$이다.

2) 하나의 좌표 평면에 그린 두 함수는 다음과 같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자녀들은 학습량이 증가하면서 기대소득이 선형적으로 증가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자녀들은 기대소득이 이차함수로 증가한다. 즉,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으면 학습량이 기대소득을 더 가파르게 증가시킨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요인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제시문 나>의 주장과 대체로 부합한다. 그러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의 경우에도 학습량은 기대소득을 증가시킨다는 면에서 개인적 요인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 학습시간이 0일 때 기대소득은 계층과 상관없다는 점도 마찬가지이다. 개인이 전혀 노력하지 않으면 계층이 기대소득에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선생님 예시답안

[문제 1-1]

〈가〉와 〈나〉는 개인 행위의 책임소재를 서로 다른 측면에서 파악한다. 〈가〉는 개인의 책임을 강조한다. 개인은 행위와 판단의 제1 원리이자 주체로서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잘못된 행동이 무지와 부주의로 인해 벌어졌다고 해도 그 책임은 쉽게 면제되지 않는다. 무지와 부주의조차 개인이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나〉는 사회적 영향에 주목한다. 사회적 구조적 차별에 따라 약자들은 이미 제약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선택은 다시 차별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소모된다. 개인이 의도적으로 행한 일조차 실제로는 사회적인 압력의 결과일 수 있다.

〈나〉의 관점으로 볼 때, 〈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나〉는 개인은 사회구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이므로,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상황에서 개인의 선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 선택이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었기에 그에 대한 책임 역시 개인에게 물을 수 없다. 그러나 〈가〉는 개인이 자신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들을 인식할 수 있고 마음대로 배제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하여, 개인 행위의 선택과 책임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개인적 행위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강압이나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그에 따른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비논리적인 주장일 뿐이다. (655자)

[문제 1-2]

〈라〉는 소득 불평등이 비만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유전이나 생활습관 같은 개인적 요인으로는 여러 나라에서 비만율이 급히 증가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소득 격차가 큰 나라에서 비만율이 높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비만 원인과 책임을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의 관점에서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다〉의 영자신문의 논지는 편협한 주장이다. 〈다〉의 영자신문은 사건 원인을 범인의 개인적 특질과 능력, 성향에서 찾는다. 서구문화에서는 독립적 자아를 강조하기 때문에 개인의 행동은 문화적 요인과 상관없이 내면적 자질에 의해 결정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개인적 요인으로는 비만율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라〉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볼 때, 사회 구조의 영향을 간과한 주장이다.

반면, 〈라〉의 관점에서 〈다〉의 한자신문의 논지는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다〉의 한자신문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사회 구조적 원인과 책임을

강조한다. 한자신문은 범인의 대인관계와 제도, 문화·경제적 상황 등 사회적 맥락에서 개인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사건을 분석한다. 상호의존적인 동양 문화권의 사람들은 사회적 힘으로 인한 개인의 행동과 결과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이는 비만의 원인을 사회구조의 문제로 지적하는 〈라〉의 관점과 부합한다. (635자)

[문제 2-1]

그래프는 소득 불평등이 비만율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1인당 소득 상위 25%인 국가에서는 소득 불평등과 비만율이 대체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라〉의 연구 결과와 일치함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한 1인당 소득 하위 25%인 국가의 조사 자료는 〈라〉의 주장이 일반화된 결론일 수 없음을 보여준다.

우선, 국민소득에 따라 소득 불평등과 비만율의 상관관계가 다르게 나타난다. 소득 상위 국가에서는 대체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지만, 소득 하위 국가에서는 소득불평등과 상관없이 비만율이 낮게 나타난다. 이를 통해 〈라〉의 주장이 소득이 높은 나라들의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소득 상위 25% 국가의 비만율이 하위 25% 국가보다 높다. 이는 소득 수준과 비만율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라〉의 주장과 배치되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소득 하위 25% 국가들의 자료에 비해, 상위 25% 국가들의 자료는 분산(산포율)이 크게 나타난다. 소득 불평등 정도가 비슷해도 비만율이 크게 다를 수 있다는 점은 비만율의 원인이 되는 다른 요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소득 불평등 정도만을 비만율 증가의 원인으로 파악하는 〈라〉의 주장이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 못한 편협한 주장이라는 반증이다. (638자)

[문제 2-2]

※ 대학 해설 참고

제 6 강 2021학년도 기출문제 2

※ 아래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가) 노동이란 인간 존재의 근본적 행위이다. 노동은 자연의 세계를 인간의 세계로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인간을 둘러싼 환경은 공동의 노동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생산된 세계이다. 또한, 노동은 의도와 목적으로부터 나오는 행위이다. 이것이 인간과 동물의 근본적 차이다. 동물의 욕구는 자연을 통해 직접 충족된다. 이에 반해 인간은 자신의 욕구를 오직 의식적이고 계획적인 활동을 통해서만 충족시킬 수 있다. 그러한 활동은 노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인간은 재료를 자연 속에서 찾으나, 재료 그 자체가 아니라 재료의 가공과 그 산물에서 마침내 만족을 얻게 된다. 노동의 희열은 단순한 근육 사용이나 숙련성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인간세계의 건설에 참여한다는 인식에서 생겨난다. 노동하는 사람은 생산한 결과물을 통해 자기 자신을 의식하게 된다. 노동자의 만족감은 공동으로 창조한 생활양식 속에서 그리고 주변 환경을 함께 건설하는 데서 비롯된다.

역사적으로 노동에 대한 평가는 변해왔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모든 육체적인 노동을 저속한 것으로 경멸했다. 완전한 인간은 귀족으로서 한가롭게 여유를 즐기며 정신적이고 예술적인 활동을 하는 존재여야 했다.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은 노동을 죄에 대한 벌로 보았다. 인간이 천국에서 쫓겨났고 죄의 몰락을 짊어지고 있으며 결국 얼굴에서 땀을 흘려야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교는 노동을 큰 축복으로 본다. 칼뱅주의는 노동의 성과를 구원의 징표로 이해했으며, 이러한 관점은 종교의 영역을 넘어서 세속적 직업의 책임 개념으로 이어졌다. 노동이 축복이고 존엄이며 인간의 가치척도라는 인식은 그러한 바탕에서 생겨났다. 여기에는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아야 한다”는 당위적인 요구와 “일함으로써 절망하지 않는다”는 내면의 축복이 포함된다.

(나) 인간은 창조된 이래 처음으로 자신이 풀어야 할 진정 영구적인 문제와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절박한 경제적 걱정에서 해방된 상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과학과 축적된 자본 덕분에 얻게 된 여가를 어떻게 사용해야 지혜롭고 훌륭하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악착같고 집요한 돈벌이꾼들은 인간을 경제적 풍요의 품으로 데려다줄 수 있다. 하지만 막상 풍요가 왔을 때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은 삶의 기술 자체를 생생하게 구현할 줄 알고 더욱 완벽해지도록 가꿀 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생계 수단을 위해 자신을 팔지 않는 사람들일 것이다.

내 생각에 어떤 나라나 민족도 여가와 풍요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인간은 너무나 오랫동안 즐길 줄은 모르고 그저 죽도록 일만 하도록 훈련받아왔기 때문이다. 별다른 재능이 없는 보통 사람에게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무얼 하며 시간을 보내야 할지가 실로 두려운 문제가 될 것이 틀림없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부유한 계급들이 벌이고 있는 행태나 그들이 기껏 성취랍시고 해놓은 것들을 보면 참으로 암울하다. 이들은 저 약속된 땅을 먼저 보고 캠프를 마련한 선발대라고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재난에 가까운 실패만 저질러왔다.

나는 확신한다. 우리가 약간만 더 경험을 쌓으면 자연으로부터 얻을 이 새로운 전리품을 오늘날 부자들이 쓰고 있는 방식과는 아주 다르게 쓸 수 있게 될 것이며, 부자들이 계획하는 삶과는 아주 다른 계획으로 삶을 짜나갈 수 있다고.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이래 인간은 노동에 얽힌 원죄 의식이 너무나 강했기에 무언가 일을 하지 않으면 만족을 느낄 수 없었다. 우리는 오늘날의 부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 자신을 위해 하게 되고, 의무와 과제와 지루한 일상으로 찌든 노동을 기꺼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아직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남은 노동을 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많은 사람과 공유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는 경제적 강제로서가 아니라 되레 풍요를 분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분배하는 노동의 양이 세 시간 정도의 교대시간 혹은 주당 15시간 정도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정도면 당분간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노동의 원죄 의식이라는 것도 대부분 하루 세 시간 정도 노동이면 충분히 달랠 수 있을 것이다.

(다)

“비가 오면 또 다른 벌이가 있어요?”

“비 오는 날엔 아침부터 가리봉동에 가야 합니다.”

“가리봉동에?”

“예, 사장님은 몰라도 됩니다요. 암튼 비가 오면 난 가리봉동으로 갑니다.”

임 씨가 잠시 일손을 멈추고 알 수 없는 표정을 언뜻 지었다. 이렇게 힘든 일을 매일같이 계속했으면 비 오는 날 하루쯤은 쉬어야 할 게 아닌가, 하고 말해 주려다가 그는 입을 다물었다. 누군들 쉬고 싶지 않을 거냐는, 하루에 두 끼는 라면으로 배를 채우는 식구들을 거느린 가장으로서 어찌 비 오는 날이라 하여 아랫목에서 뒹굴기만 하겠느냐는 데 생각이 미쳤던 까닭이었다.

간단하게 여겼던 옥상의 공사는 의외로 시간을 끌었다. 홈통으로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경사면을 맞춰야 하는 것도 시간을 더디게 했고 깨 놓은 자리와 기왕의 자리의 이음새 사이로 물이 새지 않도록 면을 고르다 보니 조금씩 더 깨부숴야 하는 추가 부담도 잇따랐다. 이미 밤은 시작된 것이나 진배없어 이웃집들의 창문에 하나둘 불이 밝혀졌다. 그런데도 임 씨는 만족하다 싶을 때까지는 일손을 놓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다.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그러고도 모자라 이왕 덮어 놓은 곳을 한 번에 으깨어 버리고 또 새로 흙손질을 거듭하곤 했다. 옆에서 보고 있자니 임 씨는 도무지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사람 같았다.

몇 번씩이나 옥상에 얼굴을 디밀고 일의 진척 상황을 살피던 아내도 마침내 질렸다는 듯 입을 열었다.

“대강 해 두세요. 날도 어두워졌는데 어서들 내려오시라구요.”

“다 되어 갑니다, 사모님. 하던 일이니 깨끗이 손봐 드려얍지요.”

다시 방수액을 부어 완벽을 기하고 이음새 부분은 손가락으로 몇 번씩 문대어 보고 나서야 임 씨는 허리를 일으켰다. 임 씨가 일에 몰두해 있는 동안 그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일을 하는 양을 지켜보았다. 저 열 손가락에 박인 공이*의 대가가 기껏 지하실 단칸방만큼의 생활뿐이라면 좀 너무하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솟아오르기도 했다. 목욕탕 일도 그러했지만 이 사람의 손은 특별한 데가 있다는 느낌이었다. 자신이 주무르고 있는 일감에 한 치의 틈도 없이 밀착되어 날렵하게 움직이고 있는 임 씨의 열 손가락은 손가락 이상의 그 무엇이었다.

*공이: 굳은살

(라) In a psychological experiment, researchers investigated the balance between work and leisure. They placed participants at computer terminals with headsets on. The experiment consists of two consecutive* phases, each lasting 5 minutes. In Phase I, participants could listen to pleasing music ("leisure") or choose to have blasts of harsh noise ("work") interrupt the music. Listening to the harsh noise 20 times earned one group (high earners) a chocolate; the other group of participants (low earners) had to hear the noise 120 times to earn their chocolate. The participant can only earn (not eat) the chocolates in Phase I and can only eat (and not earn more of) the chocolates in Phase II. The participant does not need to eat all of the earned chocolates in Phase II, but if any remain, they must be left on the table at the end of the study. Participants learn about these conditions in advance and are informed that they can decide how many chocolates to earn in Phase I and how many to eat in Phase II, and that their only objective is to make themselves as happy as possible during the experiment. This study simulates a microcosmic** life with a fixed life span. First you choose between leisure and work, then you consume what you've earned. As in real life, you can't take it with you.

Surprisingly, the participants didn't just earn as much chocolate as they could enjoy and then go back to listening to music. Instead, the high earners collected 10.74 chocolates on average but ate only 4.26, leaving most of what they'd suffered for on the table. The low earners also brought in more chocolates than they could eat and heard harsh sounds about as many times as the high earners. It appears that both groups weren't considering the optimal results, but rather how much work they could bear. Instead of trying to create the most enjoyable experience, they unthinkingly worked as much as possible, stockpiling useless treasure. The researchers called this phenomenon "mindless accumulation" and compared overearning to overeating. They described both as specifically modern problems, brought on by the material

overabundance of contemporary life. Indeed, in today's world, work seems to trump all other values. Work nearly monopolizes human attention and, along with its by-product, money, almost becomes the only value.

*consecutive: 연이은, **microcosmic: 소우주적

문제 1-1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제시문 다>의 등장인물 '임 씨'의 노동을 설명하시오. (600자 안팎, 2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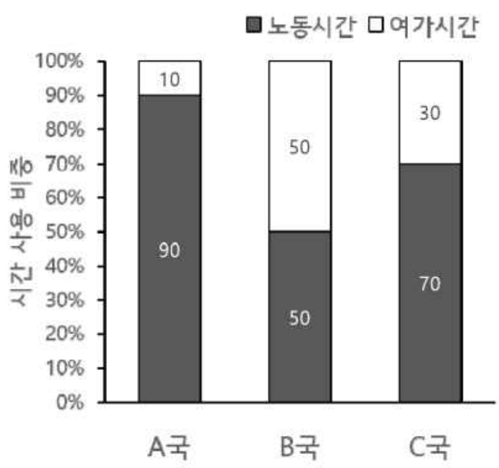
문제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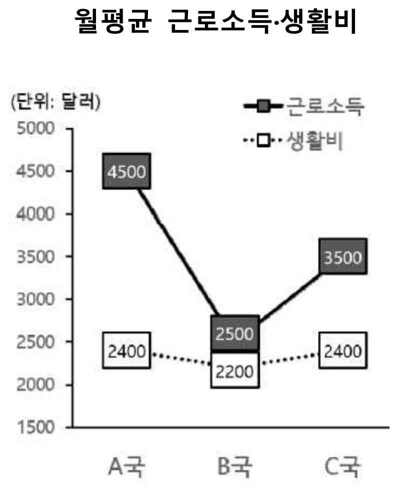
<제시문 라>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관점을 평가하시오. (600자 안팎, 2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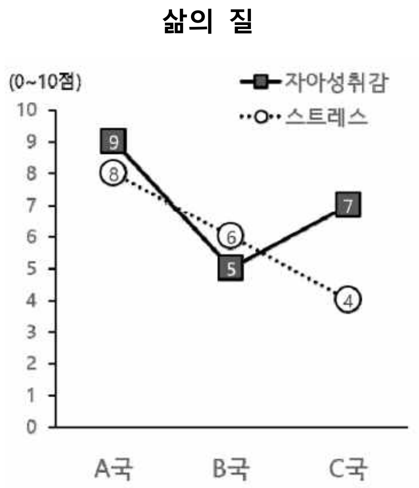
문제 2-1

어떤 국제기구에서 노동과 여가, 소득과 생활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A, B, C 3개국을 조사하여 아래 그림의 결과들을 얻었다. 세 국가를 비교하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라>의 주장을 평가하시오. 단, 문항에 언급되지 않은 다른 조건들은 3개국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600자 안팎, 25점)

노동과 여가 시간 비중







문제 2-2

어떤 국가에서 국민 각각의 삶의 질(y)은 노동시간(x)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y = wx - \frac{h}{3}x^3$ ($x \geq 0$, w는 시간당 임금, h는 노동을 싫어하는 정도)

즉, 삶의 질은 근로소득 wx에서 여가 감소, 스트레스, 피로 등 노동의 정신적 비용 $\frac{h}{3}x^3$을 뺀 값으로 정의된다. h는 $0 < h \leq \frac{1}{3}$의 범위에서 사람마다 다르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h와 w를 고려하여 삶의 질 y가 최대가 되도록 노동시간 x를 정한다. 단 모든 국민은 생존을 위해 최소한 3 이상의 소득이 필요하다. $w = 1$일 때 h와 노동시간 x의 함수 관계를 구하고, 그 의미를 설명하시오. (글자 수 제약 없음, 25점)

2021학년도 기출문제2 해설

1. 출제 의도

가)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다면사고형 논술을 통해 응시자의 종합적인 사고능력을 평가하였다.

본 논술시험은 '직업 생활과 행복한 삶'을 중심으로 고등학교「통합사회」,「생활과 윤리」,「고전과 윤리」등에서 다루는 '직업과 행복', '행복의 의미', '삶의 목적'에 관련된 주제들을 여러 관점에서 분석해보도록 유도하였다. 노동의 의미와 윤리적 문제를 검토하는 일은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기 발달과업이다. 본 논술시험은 익숙한 개념을 활용하여 응시자가 데이터와 수리적 개념에 근거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 이를 제시문의 맥락에서 논리정연하게 추론하고 확산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문항의 그래프는 교과서와 신문, 교양서적에서 자주 접하는 형식을 자료로 제시한다. 수학 문항은 연산 능력보다 개념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나) 고교 교육과정을 착실히 이행한 응시자라면 자주 경험했을 만한 내용과 형식의 지문들로 제시문을 구성하였다.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는 각각 칼 야스퍼스의『역사의 기원과 목표』와 존 메이나드 케인스의『우리 손주 세대의 경제적 가능성』에서 발췌되었다. 두 지문은「생활과 윤리」(금성출판사, 미래엔),「윤리와 사상」(천재교육, 미래엔) 등의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직업관·노동관의 변화,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 중 인간 소외 현상 등의 주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제시문 다>는 양귀자의 소설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의 일부이다. 이 문학작품은 다수의 고등학교 교과서(「문학」, 천재교육 등)에 실려 있으며, 응시자가 중고교 교육과정에서 접해보았을 법한 매우 친숙한 텍스트이다. <제시문 라>는 크레이그 램버트의 교양서적『Shadow Work』에서 발췌한 영어 지문으로서「윤리와 사상」(천재교육, 미래엔),「영어II」(천재교육, 지학사) 등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과 인간의 삶 문제 등의 주제와 관련된다. 고등학교 영어를 이수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독해할 수 있는 수준의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영어단어는 그 의미를 제시문 하단에 표시하였다.

2. 문항 해설

<제시문 가> 칼 야스퍼스의 저작인의『역사의 기원과 목표』(백승균 역)에서 발췌하여 출제 의도에 맞게 수정하였다. 노동을 인간 존재의 근본적 행위로 본다. 인간이 노동을 통해 만족감을 얻는 과정을 설명하고, 노동에 도덕적 가치가 부여된 역사·종교적 맥락을 소개하고 있다.

<제시문 나> 존 메이나드 케인스가 1930년에 쓴 에세이『우리 손주 세대의 경제적 가능성』에서 발췌하여 출제 의도에 맞게 수정하였다. 저자는 기술혁신과 자본축적에 의해 100년 후 인류 역사상 없었던 풍요로운 사회가 실현될 거라 예상하며, 물질주의와 노동에 찌든 일상을 극복하고 여가를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제안한다.

<제시문 다> 양귀자의『원미동 사람들』에 실린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에서 발췌하였다. 먹고살기 위해 끊임없이 일을 해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양심과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는 성실한 빈자의 노동을 섬세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그렸다.

<제시문 라> 크레이그 램버트(Craig Lambert)가 쓴 교양서적『Shadow Work』에서 발췌하여 출제 의도에 맞게 수정하였다. 저자는 역사상 가장 번창한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왜 가장 바쁘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지 묻고, 그 원인을 탐구한다.

[문제 1-1]

출처와 형식이 다른 제시문들의 연관성과 차이를 이해하고,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 각각의 관점에서 문학작품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생각을 간결하고 논리정연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가>는 노동을 인간 존재의 요건으로 본다. 제시문에 따르면, 인간은 노동을 통해 자신의 세계를 생산하며, 그 과정과 산물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존재의 의미를 경험할 수 있다. 신교에 의해 종교적 가치와 당위성이 노동에 부여되면서, 인간은 근면하게 직업적 책임을 완수함으로써 내면의 축복을 얻게 된다는 인식이 생겨났다.

<제시문 나>는 노동에 대한 강박을 극복의 대상으로 여긴다. 경제적으로 절박한 세상에서는 삶을 즐길 줄 모르고 죽도록 일만 하는 것이 미덕일지 모른다. 그러나 과학과 축적된 자본 덕분에 풍요로운 세상이 실현된다면 노동에 얽힌 원죄 의식과 의무감은 삶을 완벽하게 가꾸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될 것이다. 과도한 노동과 돈에 대한 집착을 지양하고 여가를 지혜롭게 활용해야 행복해질 수 있다.

<제시문 다>는 집주인 화자의 시점에서 옥상을 수리하는 '임 씨'의 태도를 묘사하고 나아가 '임 씨'의 삶이 처한 상황을 독자에게 전달한다. 제시문을 통해 '임 씨'로 표상된 노동하는 주체의 성격과 그의 노동이 지닌 사회경제적 맥락을 생각해볼 수 있다. 임 씨는 숙련된 솜씨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노동 과정에서 최대한 완벽을 추구하려 애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시문이 기술적 완성과 책임의 완수에서 의미를 찾는 노동 주체를 그린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시문은 또한 임 씨가 사회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려준다. 비가 와서 집수리가 어려운 날에도 임 씨가 쉴 수 없거나 쉬지 않는다는 사실이 인물들의 대화를 통해 제시된다. 임 씨는 생계유지를 위해 노동을 계속해야 하는 존재이다. 전체적으로 제시문은 노동을 함으로써 절망하지 않지만 동시에 끝없이 노동해야 하는 절망적 현실을 사는 '성실한 빈자'의 노동을 이해의 시선으로 담고 있다.

임 씨의 노동이 단순히 먹고살기 위한 수단을 넘어 자아를 완성하는 창조 활동이자 직업적 책임을 완수하는 이상적인 행위로 그려진다는 면에서 <제시문 가>의 노동관과 일치한다. 그러나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임 씨의 노동은 평판을 높이고 더 많은 작업을 수주함으로써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절박한 몸짓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임 씨의 노동에서 <제시문 가>가 강조하는 궁극적인 가치를 발견할 수 있지만, 이는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불완전한 현실이고 극복의 대상이 된다.

[문제 1-2]

조사 결과가 뜻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한 내용에 근거하여 다른 제시문의 관점들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생각을 간결하고 논리정연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라>는 여가를 즐길 줄 모르고 일에 몰두하는 현대인들의 성향을 실험을 인용하여 지적한다. 이 실험은 부를 축적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참가자들이 여가를 삼가고 벌이에 급급한 상황을 제시한다. 고소득 집단은 소비할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많은 초콜릿을 얻기 위해 애썼고, 저소득 집단은 수지가 맞지 않는 노동을 하기 위해 음악 듣기를 포기하였다.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참가자들이 생각 없이 일에 몰두하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제시문은 현대인의 과잉 노동과 재산 축적이 가진 문제를 환기하고 일과 여가의 균형을 회복할 것을 묵시적으로 촉구한다.

<제시문 라>의 실험은 현대인들이 강박적으로 노동하고 과도하게 벌이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음을 증명한다. 이 결과를 감안할 때,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는 각각 양가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제시문 라>의 실험 결과를 통해 볼 때, <제시문 가>는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낙관적인 탓에 무의미한 반복으로 이뤄진 현실 노동의 문제점을 간과하였지만,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반복할 정도로 노동이 인간의 근원적 행위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제시문 라>의 실험 결과를 통해 볼 때, <제시문 나>는 노동에 대한 강박이 영혼 없는 축적으로 귀결되는 돈벌이꾼, 혹은 노동의 원죄 의식에 짓눌려 즐길 줄은 모르고 죽도록 일만 하도록 훈련받아온 보통 사람들의 전형을 제시하였지만, 고통을 감내할 정도로 노동이 자아실현의 요건이라는 점을 외면하고 있다.

[문제 2-1]

서로 다른 포맷으로 제시된 두 정보(제시문과 그림)를 비교하여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 조사 결과(그림)를 근거로 기존의 지식(제시문)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각 그래프를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① 노동과 여가시간 비중 : 상대적으로 A국은 노동시간이 길고 B국은 여가시간이 길다. C국의 시간 사용 비중은 다른 두 나라의 중간 수준이다.

② 월평균 근로소득·생활비 : 세 나라는 생활비보다 근로소득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생활비 대비 근로소득의 크기를 잉여소득으로 정의하면, A국의 잉여소득이 가장 많고 B국의 잉여소득이 가장 작았다. C국의 잉여소득은 다른 두 나라의 중간 수준이다.

③ 삶의 질 : A국은 자아성취감과 스트레스 점수가 모두 다른 나라보다 높았다. B국에서만 자아성취감 점수보다 스트레스 점수가 높았다. 자아성취감이 삶의 질에 비례하고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반비례한다고 가정하여 두 점수를 비교하면, C국의 삶의 질이 가장 높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다.

① 자아성취감은 노동시간에 비례하고, 소득에도 비례한다. 오래 일할수록 많이 벌고 자아성취감을 크게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혹은 자아성취 욕구가 높은

국민이 더 오래 일하고 많이 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② 스트레스 수준은 단순히 노동시간(여가시간)이나 소득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A국 국민은 근로소득이 많지만 과도한 노동(부족한 여가)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B국 국민은 C국 국민에 비해 여가시간이 많지만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 잉여소득이 적다는 부담이 여가가 많은 장점을 상쇄하는 것으로 보인다.

③ 삶의 질은 소득에 비례하지 않는다. 잉여소득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과도한 노동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 C국의 노동과 여가시간 비중은 최적에 가깝다.

<제시문 라>는 여가를 즐길 줄 모르고 일에 몰두하는 현대인들의 성향을 실험을 인용하여 지적한다. 이 실험은 부를 축적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참가자들이 여가를 삼가고 벌이에 급급한 상황을 제시한다. 고소득 집단은 소비할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많은 초콜릿을 얻기 위해 애썼고, 저소득 집단은 수지가 맞지 않는 노동을 하기 위해 음악 듣기를 포기하였다.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참가자들이 생각 없이 일에 몰두하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제시문은 현대인의 과잉 노동과 재산 축적이 가진 문제를 환기하고 일과 여가의 균형을 회복할 것을 묵시적으로 촉구한다.

<제시문 라>는 필요 이상으로 버는 행위(overearning)를 과식(overeating)에 비유하면서 '영혼 없는 축적(mindless accumulation)'이라고 비판한다. 실험 참가자들의 행동은 A국의 상황과 일치한다. A국은 여가를 포기한 대가로 생활비를 훨씬 상회하는 소득을 벌어들이지만 삶의 질(자아성취감과 스트레스 점수 차)은 그리 높지 않다. <제시문 라>의 관점에서 C국의 상황은 모범이 된다. C국은 과도한 노동을 피하고 적절한 수준의 잉여소득을 추구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영위하고 있다.

반대로 A국의 자아성취감 점수가 가장 높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문 라>의 주장을 비판할 수도 있다. 현실에서는 노동의 어려움을 참고 소득을 축적함으로써 노후대비, 상속, 기부 등을 통해 자아의 성취감을 높일 수 있다. A국의 국민들처럼 참가자들은 감각적 즐거움을 억제하고 불쾌감을 참는 과정에서 더욱 높은 수준의 행복감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시문 라>의 주장은 절제와 근면, 몰입에 녹아있는 '진정한 행복'의 가치를 무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실험의 목적과 전제에 배치된다. '과잉 노동'을 일상생활에서 관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일 자체를 즐기는 경우,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거나 상속을 위해 재산을 모으는 경우가 실제로 많기 때문이다. <제시문 라>의 실험은 그러한 요인들이 배제된 상황에서도 과잉 노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끔찍한 소음을 즐긴 참가자는 없었을 것이다. 또한, 참가자들은 초콜릿을 축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따라서, 참가자들이 소음을 듣고 쓸데없이 초콜릿을 축적하면서도 행복감을 느꼈다면, 그것을 과연 자아성취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실험 결과는 A국의 국민들이 느끼는 높은 자아성취감이 부분적으로 착각 혹은 '정신승리'에 불과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합리화하는 병리적인 상황이라는 것이다.

[문제 2-2]

수리적 개념을 활용하여 사회 현상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미분법을 이용해 다항함수의 최댓값을 구하여 노동을 싫어하는 정도(h)와 노동시간(x) 사이의 함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먼저, 함수를 미분하여 도함수를 구한다.

① $w=1$이므로 주어진 삶의 질 함수는 $y=x-\frac{h}{3}x^3$이 된다.

② 주어진 함수의 최댓값을 구하기 위해서 x에 관해 미분하면 $y'=1-hx^2$을 얻는다.

다음으로 도함수를 이용해 함수의 극댓값을 파악한다.

③ 극값을 찾기 위해 $y'=0$을 풀면 $1-hx^2=0$이고, $x=\frac{1}{\sqrt{h}}(\because\ x\geq 0)$이다. 이를 함수에 대입하여 $y=\frac{2}{3\sqrt{h}}$를 얻는다.

④ $x\geq 0$일 때 y의 증감표는 다음과 같다.

x	0	$\cdots$	$\frac{1}{\sqrt{h}}$	$\cdots$
y'		$+$	0	$-$
y		$\nearrow$	$\frac{2}{3\sqrt{h}}$	$\searrow$

그러므로 이 함수는 $x\geq 0$인 구간에서 $x=\frac{1}{\sqrt{h}}$일 때, 유일한 극댓값 $\frac{2}{3\sqrt{h}}$을 갖는다.

이어서 함수의 정의역을 파악하고, 최댓값을 갖는 x를 구하여 h와의 함수 관계를 도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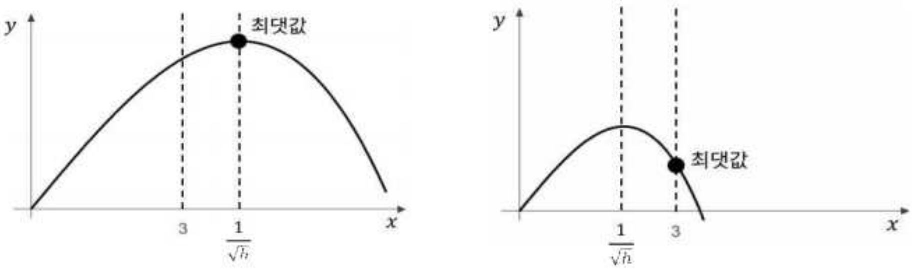
⑤ 모든 사람이 3 이상의 소득이 필요하므로 $wx\geq 3$을 만족해야 한다. $w=1$이므로 $x\geq 3$이 함수의 정의역이 된다.

⑥ 극값 $x=\frac{1}{\sqrt{h}}$이 정의역 $x\geq 3$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함수의 최댓값을 가지는 x가 달라진다.

(a) 만약 $\frac{1}{\sqrt{h}}\geq 3$, 즉 $h\leq\frac{1}{9}$이면 극값 $x=\frac{1}{\sqrt{h}}$이 정의역 $x\geq 3$에 포함되므로 $x=\frac{1}{\sqrt{h}}$에서 함수가 최댓값을 가진다. 그러므로 $h\leq\frac{1}{9}$이면 노동시간은 $x=\frac{1}{\sqrt{h}}$로 결정된다.

(b) 만약 $\frac{1}{\sqrt{h}} < 3$, 즉 $h > \frac{1}{9}$이면 극값 $x = \frac{1}{\sqrt{h}}$이 정의역에 포함되지 않고, 정의역 $x \geq 3$에서 함수는 항상 감소한다. 따라서 함수는 $x = 3$에서 최댓값을 가진다. 그러므로 $h > \frac{1}{9}$이면 노동시간은 $x = 3$으로 결정된다.

(a) $h \leq \frac{1}{9}$인 경우 (b) $h > \frac{1}{9}$인 경우



노동시간은 삶의 질 y가 최댓값을 가지게 하는 x이다. 지금까지 얻은 결과를 이용해 x와 h의 함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

$$x(h) = \begin{cases} \frac{1}{\sqrt{h}} & (0 < h \leq \frac{1}{9}) \\ 3 & (\frac{1}{9} < h < \frac{1}{3}) \end{cases}$$

일을 덜 싫어하는 사람들$(0 < h \leq \frac{1}{9})$은 원하는 만큼만 일해도 삶의 질이 최대화되고 먹고사는 데 지장이 없다. 그에 비해 일을 싫어하는 사람들 $(\frac{1}{9} < h < \frac{1}{3})$은 삶의 질을 최대화하여 원하는 만큼만 일하면 최소 소득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생존을 위해 더 일할 수밖에 없고 낮은 삶의 질을 경험하게 된다.

선생님 예시답안

[문제 1-1]

〈다〉의 임 씨는 노동을 함으로써 절망하지 않지만, 동시에 끝없이 노동해야 하는 절망적 현실을 사는 인물로 평가될 수 있다.

임 씨의 노동은 자아를 완성하는 창조 활동이자 직업적 책임을 완수하는 이상적인 행위로 그려진다는 면에서 〈가〉의 노동관과 일치한다. 〈가〉는 노동을 인간 존재의 요건으로 본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 자신의 세계를 생산하며, 그 과정과 산물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존재의 의미를 경험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임 씨는 숙련된 솜씨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노동 과정에서 최대한 완벽을 추구하려 애쓴다. 즉 임 씨는 노동 주체로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실현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의 관점에서 임 씨의 노동은 불완전한 현실이고 극복의 대상이 된다. 〈나〉는 노동에 대한 강박을 극복의 대상으로 여긴다. 경제적으로 절박한 세상에서는 죽도록 일만 하는 것이 미덕일지 모른다. 그러나 풍요로운 세상이 실현된다면 노동에 얽힌 원죄 의식과 의무감은 삶을 완벽하게 가꾸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과도한 노동을 지양하고 여가를 누려야 행복해질 수 있다. 하지만 임 씨는 곤궁한 상황에 놓여 있기에 쉴 수 없거나 쉬지 않고 생계유지를 위해 노동을 계속해야 한다. 즉 그의 노동은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절박한 몸짓으로 이해될 수 있다. (651자)

[문제 1-2]

〈라〉는 여가를 즐길 줄 모르고 강박적으로 일에 몰두하는 현대인들의 성향을 실험을 인용하여 지적한다. 이 실험은 부를 축적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참가자들이 여가를 삼가고 벌이에 급급한 상황을 제시한다. 고소득 집단은 소비할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많은 초콜릿을 얻기 위해 애썼고, 저소득 집단은 수지가 맞지 않는 노동을 하기 위해 음악 듣기를 포기하였다.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참가자들이 생각 없이 일에 몰두하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제시문은 현대인의 과잉 노동과 재산 축적이 가진 문제를 환기하고 일과 여가의 균형을 회복할 것을 묵시적으로 촉구한다.

〈라〉의 실험 결과를 감안할 때, 〈가〉와 〈나〉는 각각 양가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라〉의 실험 결과를 통해 볼 때, 〈가〉는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낙관적인 탓에 무의미한 반복으로 이뤄진 현실 노동의 문제점을 간과하였지만,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반복할 정도로 노동이 인간의 근원적 행위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라〉의 실험 결과를 통해 볼 때, 〈나〉는 노동에 대한 강박이 영혼 없는 축적으로 귀결되는 돈벌이꾼, 혹은 노동의 원죄 의식에 짓눌려 즐길 줄은 모르고 죽도록 일만 하도록 훈련받아온 보통 사람들의 전형을 제시하였지만, 고통을 감내할 정도로 노동이 자아실현의 요건이라는 점을 외면하고 있다. (654자)

[문제 2-1]

그래프는 3개국의 노동과 여가, 소득과 생활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추론할 수 있다. 첫째, 자아성취감은 노동시간과 소득에 비례한다. 오래 일할수록 많이 벌고 자아성취감을 크게 경험한다고 볼 수도 있고, 자아성취 욕구가 높은 국민이 오래 일하고 많이 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둘째, 스트레스 수준은 단순히 노동시간이나 소득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A국 국민은 근로소득이 많지만 과도한 노동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높다. 한편 B국 국민은 C국 국민에 비해 여가시간이 많아도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 소득이 적다는 부담이 여가의 장점을 상쇄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노동, 여가, 잉여 소득의 적절한 균형을 이룬 C국의 삶의 질(자아성취감과 스트레스 점수 차)이 가장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다면 여가를 즐길 줄 모르고 일에 몰두하는 현대인들의 성향을 지적한 〈라〉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특히 이는 A국의 상황과 일치한다. A국은 여가를 포기한 대가로 생활비를 훨씬 상회하는 소득을 벌어들이지만 삶의 질은 그리 높지 않다. 한편, C국의 상황은 모범이 된다. C국은 과도한 노동을 피하고 적절한 수준의 잉여소득을 추구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이다. (646자)

[문제 2-2]

※ 대학 해설 참고

제 7 강 2020학년도 모의논술

※ 아래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제시문 <가>

"아, 그래요...... 정원이 참 잘돼 있죠. 낮에 오면 더 좋아요. 저 창문으로 화단이 보이거든요."

그러나 음식들이 서빙되기 시작하자, 내가 간신히 유지하고 있던 팽팽한 노력의 끈은 끊어졌다.

처음 우리 앞에 놓인 것은 탕평채였다. 가늘게 채썬 묵청포와 표고버섯, 쇠고기를 버무린 정갈한 음식이었다. 그때까지 한마디의 말도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던 아내는, 웨이터가 자신의 접시에 탕평채를 덜어 놓으려고 국자를 드는 찰나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안 먹을게요."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좌중의 움직임이 멈췄다. 의아해하는 시선들을 한몸에 받은 그녀는 이번엔 좀더 큰 소리로 말했다.

"저는, 고기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 채식주의자시군요?"

사장이 호탕한 어조로 물었다.

"외국에는 엄격한 채식주의자들이 더러 있죠. 우리나라에선 이제 좀 형성돼가는 것 같아. 특히 요즘엔 언론에서 하도 육식을 공격해대니...... 오래 살려면 고기를 끊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죠."

"아무리 그래도, 고기를 아주 안 먹고 살 수 있나요?"

사장 부인이 미소 띤 얼굴로 말했다.

아내의 접시가 하얗게 빈 채 남아 있는 동안, 웨이터는 나머지 아홉 사람의 접시를 모두 채운 뒤 사라졌다. 화제는 자연스럽게 채식주의로 흘러갔다.

"얼마 전에 오십만 년 전 인간의 미라가 발견됐죠? 거기에도 수렵의 흔적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육식은 본능이에요. 채식이란 본능을 거스르는 거죠.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요샌 사상체질 때문에 채식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던데..... 저도 체질을 알아보려고 몇 군데 가봤더니 가는 데마다 다른 얘길 하더군요. 그때

마다 식단을 바꿔 짜봤지만 항상 마음이 불편하고...... 그저 골고루 먹는 게 최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골고루, 못 먹는 것 없이 먹는 사람이 건강한 거 아니겠어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원만하다는 증거죠.”

제시문 <나>

Compatibilism* emerges as a response to a problem posed by determinism. But what problem is that? Well, suppose, as the thesis of causal determinism tells us, that everything that occurs is the inevitable result of the laws of nature and the state of the world in the distant past. If this is the case, then everything human agents do flows from the laws of nature and the way the world was in the distant past. But if what we do is simply the consequence of the laws of nature and the state of the world in the distant past—then we cannot do anything other than what we ultimately do. Nor are we in any meaningful sense the ultimate causal source of our actions, since they have their causal origins in the laws of nature and the state of the world long ago. Determinism therefore seems to prevent human agents from having the freedom to do otherwise, and it also seems to prevent them from being the sources of their actions. If either of these is true, then it's doubtful that human agents are free or responsible for their actions in any meaningful sense.

However, compatibilists believe that free will is compatible with determinism. They argue that the view that free will is incompatible with determinism rests upon a confusion of causation with coercion** or control. I am unfree, certainly, if my actions are controlled by another agent: if, for instance, my desires and beliefs are simply irrelevant to what I end up doing. If someone physically manipulates me, or holds a gun to my head, then my actions have their source in someone else, and I am not responsible for them. But the mere fact that determinism is true (if it is true) doesn't show that our actions are coerced or controlled by others. When I go get myself a cheese sandwich, I do so because I want to, and this remains true even if I

am determined to want a cheese sandwich. No one forces me to get a cheese sandwich. Not even determinism forces me: to be determined to do something is nothing like being forced to do it. Once again, force is something that is applied to me in spite of what I want, by others or the external world, but determinism, if it is true, works through me and my desires. We rightly object to force, external control and coercion, but we are just confused if we identify determinism with these external powers. Even if determinism is true, rational agents are typically free: free to do what they like.

* compatibilism, 양립론. ** coercion, 강요.

제시문 <다>

실험자는 심리학 실험실이 있는 건물 로비에서 참가자를 맞았다.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 실험실로 올라가면서, 실험자가 참가자에게 가벼운 투로 서류가방에서 몇 가지 서류를 꺼내야 하니 커피가 담긴 종이컵을 잠시 들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런 다음 커피를 돌려받고 참가자에게 클립보드의 서류를 건넸다. 모두 10초 안에 벌어진 상황이지만, 참가자가 커피를 들고 있던 잠깐의 시간이 우리 연구의 결정적 순간이었다.

실험실에 들어가서 참가자는 어떤 사람에 관한 소개문을 읽었다. 다른 참가자들도 동일한 소개문을 읽었다. 흥미롭게도 따뜻한 커피를 들고 있었던 참가자들은 차가운 커피를 들고 있었던 참가자들보다 그 사람을 더 좋게 보았다. 물리적으로 따뜻하거나 차가운 온도를 경험한 것이 따뜻하거나 차가운 사회적 감정을 활성화시켰고, 이것은 다시 참가자들이 타인에게 느끼는 호감에 영향을 미쳤다. 모두 무의식중에 벌어진 일이었다. 실험이 끝나고 참가자들에게 자세히 물어보자, 커피를 들었던 경험이 그 사람에 대한 인상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 생각을 못 한 것은 당연했다. 따뜻하거나 차가운 무언가를 잠깐 들고 있는 행위가 타인에게 느끼는 감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하겠는가?

이 연구를 진행하고 발표한 이후 필라델피아의 한 호텔방에서 비슷한 일을 경험하였다. 오전 9시쯤에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학회장으로 내려가려던 참에 전화벨이 울렸다. 과학 전문 기자에게 온 전화였다. 몇 달 전에 발표한 커피 논문에 관해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고 했다. 심리학과 대학

원생들에 관한 기사라서 특히 나와 함께 연구에 참여한 로렌스 윌리엄스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 했다. 나는 열정적인 표현을 써가며 로렌스를 칭찬하고 그가 얼마나 대단한 연구자인지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했다. 그러다 잠시 숨을 고를 때 기자가 던진 한마디에 나는 무척 놀랐다. “혹시 지금 뜨거운 커피를 들고 계신가요?” 나는 믿기지 않는 얼굴로 오른손을 보았다. 기자 말이 맞았다. 오른손에는 객실 커피머신에서 뽑은 종이컵에 담긴 커피가 들려 있고, 왼손에는 전화기가 들려 있었다. “맙소사, 그렇군요. 와.” 기자가 웃으며 말했다. “딱 걸리셨네요!”

제시문 <라>

유아에서 성인으로, 그리고 노년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30년 이상 성장에 관한 연구를 지속하는 것은 최근에나 가능해진 일이다. 이러한 전향적(prospective) 연구를 통해, 그동안 중요하게 여겨지던 회고적(retrospective) 연구의 수많은 가설들이 폐기되었다. 회고적 연구는 성인기에 이른 개인의 모든 특성을 설명해 낼 수 있었다. 기억을 통해 개인의 삶을 되짚어보면 설명에 필요한 퍼즐 조각들을 모두 찾아낼 수 있었다. 한 가지 구체적인 단서만 있으면 충분했다.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던 친척, 엄격한 부모, 교통사고, 폭력적인 이웃 등을 끌어들일 수도 있었다.

유년기가 성인기의 행복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수행된 전향적 연구들에 따르면 그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가장 훌륭하게 노년에 이른 사람과 최악의 노년에 이른 사람의 유년기를 비교해 보았을 때, 둘 사이에는 주목할만한 차이가 없었다. 어린 시절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이 있었다거나, 일찍 대소변을 가렸다거나, 늘 감기를 달고 살았다거나, 신경이 예민한 아버지나 어머니를 두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정서적으로 불안해지거나 불행한 노년을 맞이하는 것은 아니었다. 50세쯤 되면 유아기 때의 신체건강, 형제간의 나이 터울이나 태어난 순서, 심지어 부모를 일찍 여읜 것에도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성인이 된 자녀가 정신 이상을 앓고 있는 경우, 모든 부모는 아이가 영유아기 시절에 겪은 문제들(공포증이나 지나친 수줍음 등)이 18세에도 계속 나타났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정상적인 성인 자녀를 둔 부모 중에도 60퍼센트 정도는 그와 똑같은 경험이 있었다고 회상했다. 고아로 자라난 사람이라 해도 80세 즈음이 되면 부모 품에서 사랑을 받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게 행복하고 기운

이 넘칠 수 있다는 얘기다.

불행한 유년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에 빠진다는 가설도 널리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 가설도 회고적 원인 조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알코올 중독자나 의사들은 회고적 견지에서 알코올 중독의 원인으로 불행한 유년기를 지목한다. 그러나 전향적 연구를 근거로 보자면, 기억은 원인과 결과를 뒤바꿔놓을 뿐이다. 알코올 중독자가 된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불행한 유년기를 보내지는 않았으며, 불우한 유년기를 보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알코올 중독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문제 1-1

자유의지와 결정론의 관계에 관하여 제시문 <나>에 나타난 양립론자의 입장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제시문 <다>와 <라>를 평가하시오. (800자 안팎, 30점)

문제 1-2

제시문 <가>에서 육식을 옹호하는 좌중의 태도를 제시문 <다>의 입장에서 분석하고, 육식을 거부하는 화자의 아내의 태도를 제시문 <라>의 입장에서 분석하시오. (600자 안팎, 20점)

문제 2-1

제시문 <다>에 기술된 실험을 계절별로 다시 수행하였다. 여름, 겨울, 봄/가을에 참가자 100명씩을 모집하였고, 이들을 절반씩 두 집단으로 나누어 차갑거나 따뜻한 음료를 들게 하였다. 이후 참가자들은 평가대상자에 대한 인상을 10점 만점으로 평가하였다(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평가). 각 집단의 평균 인상평가 점수는 아래와 같다. 본 실험 결과를 해석하고, 이를 근거로 제시문 <다>를 평가하시오. (600자 안팎, 25점)

온도 ₩ 계절	여름	겨울	봄/가을
차가운 음료	7	5	6
따뜻한 음료	6	8	6

문제 2-2

한 연구팀이 유년기 행복감과 성인기 행복감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30년간 790명의 발달과정을 추적하였다. 특히 연구자들은 자유의지와 결정론에 관한 신념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있었으므로, 참가자들을 자유의지를 더 믿는 사람들과 결정론을 더 믿는 사람들로 구분하였다. 아래 표는 유년기 행복감 수준(행복, 불행)과 성인기 행복감 수준(행복, 불행)에 따라 각 집단의 참가자들을 분류한 결과이다. 어린 시절에 불행했던 사람이 어른이 되어 높은 행복감을 느낄 확률을 계산하여 두 집단을 비교하고, 이를 근거로 제시문 <라>를 평가하시오. (600자 이내, 25점)

가. 자유의지를 믿는 사람

	성인기 행복	성인기 불행
유년기 행복	252	168
유년기 불행	126	84

나. 결정론을 믿는 사람

	성인기 행복	성인기 불행
유년기 행복	60	40
유년기 불행	24	36

2021학년도 모의논술 해설

1. 제시문 요약과 소개

제시문 <가>는 화자의 아내(주인공)가 육식을 거부하면서 생기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육식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주인공에게 강권하는 좌중과 채식주의를 선택한 주인공의 갈등을 잘 표현하고 있다. 제시문은 이러한 갈등을 통하여 개인의 식습관이 자유의지의 산물인지 아니면 사회적인 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지 생각해보게 한다. 제시문은 한강의『채식주의자』에서 발췌되었다.

제시문 <나>는 자유의지에 관한 결정론과 양립론의 입장을 다룬다. 만약 개인이 어떤 행위를 할지가 자연법칙에 의해 미리 결정되어 있다면, 개인에게는 자신의 행위를 선택할 자유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양립론자는 이러한 견해가 인과성을 강제와 혼동한 결과라고 본다. 이미 모든 것이 인과적으로 결정되었다고 해도 개인의 선택 자체는 자유롭게 이뤄진 행위이지 통제되고 강요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양립론에 따르면, 결정론이 실재하는 힘이더라도 개인의 욕구와 의지를 통해 실현될 수 있으므로 결정론과 자유의지가 대립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핵심 지문인 두 번째 문단을 Neil Levy의『Neuroethics』에서 수정 발췌하였고, 결정론과 자유의지의 관계를 소개하는 지문을『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에서 수정 발췌하여 첫 문단으로 제시하였다.

제시문 <다>의 실험 결과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따뜻한 음료를 들고 있었던 참가자가 차가운 음료를 들고 있었던 참가자보다 다른 사람을 더 따뜻하게 대했다. 둘째, 이러한 과정을 참가자는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 개인이 스스로 의도했다고 생각한 행위가 실은 환경에 의해 유도된 것일 수 있다. 자유의지와 결정론의 관점에서 제시문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없다’라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John Bargh의『우리가 모르는 사이에(Before you know it)』에서 제시문을 수정 발췌하였다.

제시문 <라>는 유년기 환경의 영향에 관한 회고적 연구의 결과를 반박한다. 회고적 연구는 연구 대상자의 기억(회고)에 의존하여 현재의 상태(성인기 행복 또는 불행)와 일치하는 과거의 조건(유년기 환경)을 찾으려 하였다. 그에 비해, 최근에 가능해진 전향적 연구는 연구 대상자를 장기간 추적함으로써 유년기 환경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예상보다 작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제시문은 ‘환경이 인간의 삶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자유의지의 중요성을 암시하고 있다. George Vaillant의『행복의 조건(Aging well)』에서 제시문을 수정 발췌하였다.

2. 문제 해설

[문제 1-1]

<출제 의도>

서로 다른 배경의 제시문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영어 제시문으로 고교 기본어휘목록에 속한 어휘와 평이한 문장들로 구성된 지문을 선정함으로써 영어 능력 자체보다는 사고력과 논리력을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평가 기준>

먼저, 제시문 <나>에 나타난 양립론자의 반박 대상(‘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결정론’)과 근거(‘인과관계와 강요를 혼동’), 그리고 결론(‘결정론적 환경에서 개인은 여전히 자유롭다’)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다>는 개인의 선택(‘타인에 대한 평가’)이 환경(‘음료의 온도’)의 영향을 받는 상황을 보여주는 실험을 통해 결정론적 인과성을 강조하는 데 비해, 제시문 <라>는 환경(‘유년기 환경’)이 개인의 삶(‘성인기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연구를 소개함으로써 자유의지의 역할을 더 강조하고 있다. 두 지문의 관점을 비교하여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양립론자의 입장에서 인과성과 강요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다>의 참가자가 외부의 힘에 의해 강제되지 않았다는 점을 양립론자의 입장에서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양립론은 결정론과 자유의지가 서로 모순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견해이므로 단순히 결정론이나 자유의지가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님에 유념해야 한다. 자유의지와 환경요인이 대립하는 관점에서 제시문 <라>를 해석하는 것은 양립론자의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모범 답안의 사례>

양립론자의 입장에서 제시문 <다>의 실험 결과는 자유의지의 존재를 부정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참가자는 비록 따뜻한 커피를 들었던 사전 경험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지만,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타인에게 호감을 느끼도록 강요받은 적이 없다. 참가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따뜻하게 타인을 대했으므로 자유의지를 실현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제시문 <라>에서 개인의 삶은 환경의 통제하에 있는 것이 아님이 밝혀졌지만, 그 사실이 곧 인간의 행위와 의사결정이 자연법칙을 따르지 않는다거나 과거 사건의 영향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양립론자의 입장에서 볼 때, 열악한 유년기 환경을 극복한 사람의 경우에도 그 사람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행하는 과정에는 인과적인 법칙이 작용할 것이다.

[문제 1-2]

<출제 의도>

제시문 <다>와 <라>에 소개된 연구를 이해하고, 두 연구가 각각 자유의지론과 결정론 중 어느 쪽을 지지하는지를 이해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얻은 결론을 문학작품에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평가 기준>

[문제 1-1]의 제시문 <다>와 <라>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결정론과 자유의지의 관점에서 좌중과 아내의 태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좌중은 다수가 따르는 육식을 받아들이고, 이를 아내에게 강권한다. 아내의 입장은 이들과는 반대로 인간의 식습관이 자유의지에 따른다고 믿으며, 결과적으로 채식을 하기로 선택한다. 즉 인간의 식습관을 사회적인 것으로 보고 그러한 사회적 결정을 아내에게 강요하는 좌중의 태도는 제시문 <다>에 나타난 결정론적인 사고에 가깝다. 반대로 자유의지를 따라 채식을 선택하는 아내의 입장은 인간이 환경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보는 제시문 <라>의 연구를 통해 좀 더 잘 설명된다.

<모범 답안의 사례>

제시문 <다>에 따르면 인간의 결정은 자유의지의 산물이라기보다는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여러 환경적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인간의 식습관에도 환경요인이 중요하게 반영되었을 것이다. 제시문 <가>의 좌중은 자신들의 식습관을 마치 스스로 선택한 것처럼 정당화하고 있지만, 그것이 사회문화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제시문 <다>는 좌중이 채식을 본능에 어긋나는 행위로 규정하고 주인공에게 육식을 권하는 행위를 자유의지의 발현이 아닌 환경적 요소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 분석할 것이다.

제시문 <라>는 전향적 연구를 통해 기존 회고적 연구의 결론, 즉 인간의 삶이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는 관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전향적인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자유의지를 발휘하여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 따라서 제시문 <라>의 입장에서, 한 개인이 육식을 당연시하는 환경에서 성장한다는 것이 음식에 대한 개인의 선호를 결정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제시문 <가>에서 좌중의 권유와 설득을 거부하며, 채식을 고수하는 아내의 행위는 자유의지의 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제 2-1]

<출제 의도>

실증적인 결과를 정확히 해석하여 기존의 지식을 갱신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평가 기준>

먼저, 실험 결과에서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을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 덥거나 추운 계절에는 음료의 온도가 인상평가에 영향을 끼쳤다. 더운 계절에는 차가운 음료가, 추운 계절에는 따뜻한 음료가 인상평가 점수를 향상시켰다. 차가운 음료와 따뜻한 음료의 차이의 절대값은 여름보다 겨울에 더 컸다.

관찰된 결과를 근거로 제시문 <다>를 재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실험의 결과는 제시문 <다>의 '음료 온도의 효과'에 관한 이해가 불완전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제시문 <다>는 따뜻한 감각이 따뜻한 태도를, 차가운 감각이 차가운 태도를 유발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새로운 실험 결과는 겨울에는 따뜻한 음료가, 여름에는 차가운 음료가 타인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이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본 실험은 결정론과 자유의지에 관한 제시문 <다>의 입장을 부정하지 않는다. 제시문 <다>의 핵심 주장은 '사람이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지 '따뜻한 음료가 따뜻한 태도를 일으킨다'는 것이 아니다. 덥거나 추운 조건이 갖춰지는 한, 음료의 온도는 여전히 인상평가에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본 실험은 전체적으로 제시문 <다>의 결정론적 입장을 지지하며, 계절 요인을 발견함으로써 제시문 <다>의 연구를 보완한다고 볼 수 있다.

'따뜻한 감각이 따뜻한 태도를, 차가운 감각이 차가운 태도를 유발한다'는 종전의 결론도 부분적으로는 유효하다. 겨울의 온도 효과(3=|8-5|)가 여름의 효과(1=|6-7|)보다 컸기 때문이다.

<모범 답안의 사례>

무조건 따뜻한 음료를 들고 있는 것이 타인에 대한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겨울에는 제시문 <다>의 실험 결과가 재현되었지만, 여름에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다만, 겨울에 따뜻한 음료가 미치는 영향력(8-5=3)이 여름에 차가운 음료가 미치는 영향력(7-6=1)보다는 큰 것으로 보인다. 봄과 가을에는 음료의 온도에 따라 인상평가가 달라지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음료의 온도가 미치는 영향력이 계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증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제시문 <다>에 함축된 결정론적 입장을 지지할 수 있다. 계절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개인의 의식적인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음료를 들고 있느냐가 사람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문제 2-2]

<출제 의도>

조건부확률의 개념을 활용하여 결과를 해석하고 제시문과 연관지어 해석하는 능력을 확인한다.

<평가 기준>

유년기에 불행했던 경험이 조건이므로, 아래 표에서 볼드체로 표시한 행의 조건부확률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가. 자유의지를 믿는 사람

	성인기 행복	성인기 불행	합
유년기 행복	252	168	420
유년기 불행	**126**	**84**	**210**
합	378	252	630

나. 결정론을 믿는 사람

	성인기 행복	성인기 불행	합
유년기 행복	60	40	100
유년기 불행	**24**	**36**	**60**
합	84	76	160

자유의지 집단: 자유의지를 믿는 사람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뽑았을 때 유년기에 불행했던 사람인 사건을 A, 성인기에 행복한 사람인 사건을 B라 하면 구하는 확률은 $P(B|A)$이다.$P(A)=\frac{210}{630}=\frac{1}{3}$, $P(A\cap B)=\frac{126}{630}=\frac{1}{5}$ 이므로

$$P(B|A)=\frac{P(A\cap B)}{P(A)}=\frac{\frac{1}{5}}{\frac{1}{3}}=\frac{3}{5}=0.6$$

결정론 집단: 결정론을 믿는 사람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뽑았을 때 유년기에 불행했던 사람인 사건을 C, 성인기에 행복한 사람인 사건을 D라 하면 구하는 확률은 $P(D|C)$이다.

$$P(C)=\frac{60}{160}=\frac{3}{8},\quad P(C\cap D)=\frac{24}{160}=\frac{3}{20}$$ 이므로

$$P(D|C)=\frac{P(C\cap D)}{P(C)}=\frac{\frac{3}{20}}{\frac{3}{8}}=\frac{2}{5}=0.4$$

<모범 답안의 사례>

자유의지를 믿는 경우에 유년기에 불행했던 사람이 어른이 되어 행복할 확률은 P(성인기 행복|유년기 불행) = 126/210 = 0.6였다. 결정론을 믿는 경우에 유년기에 불행했던 사람이 어른이 되어 행복할 확률은 P(성인기 행복|유년기 불행) = 24/60 = 0.4였다. 이 결과에 따르면, 결정론을 믿는 사람들에 비해 자유의지를 믿는 사람들이 유년기 행복감 수준의 영향을 덜 받았고, 성인기에 행복할 가능성은 더 컸다. 결정론을 믿는 사람들은 유년기 행복감 수준이 성인기에도 지속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뚜렷했다. 결정론보다 자유의지를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전체 참가자들의 결과는 당연히 자유의지를 믿는 집단의 결과와 비슷할 수밖에 없다. 제시문 <라>에서 유년기의 경험이 성인기에 끼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 이는 결정론을 믿는 사람들보다 자유의지를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일 것이다. 본 연구는 결정론을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제시문 <라>의 주장을 보완한다. 그러나 결정론에 관한 신념이 환경의 영향을 받게 하는 것인지, 환경의 영향을 받기 쉬운 사람들이 결정론을 믿게 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선생님 예시답안

[문제 1-1]

〈나〉의 양립론자는 자유의지와 결정론이 모순되지 않고 양립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만약 개인이 어떤 행위를 할지가 자연법칙에 의해 미리 결정되어 있다면, 개인에게는 자신의 행위를 선택할 자유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양립론자는 이러한 견해가 '인과성'을 '강요나 통제'와 혼동한 결과라고 본다. 이미 모든 것이 인과적으로 결정되었다고 해도 개인의 선택 자체는 자유롭게 이뤄진 행위이지 통제되고 강요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양립론에 따르면, 결정론이 실재하는 힘이더라도 개인의 욕구와 의지를 통해 실현될 수 있으므로 결정론과 자유의지가 대립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결정론적 환경에서도 개인은 여전히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양립론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의 실험 결과가 자유의지의 존재를 부정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다〉의 실험에서 참가자는 비록 따뜻한 커피를 들었던 사전 경험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지만,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타인에게 호감을 느끼도록 강요받은 적이 없다. 참가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타인을 대했으므로 자유의지를 실현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양립론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유의지와 환경요인을 대립적으로 파악하는 〈라〉의 관점 역시 편협한 관점일 뿐이다. 〈라〉에서 개인의 삶은 환경의 통제 하에 있는 것이 아님이 밝혀졌지만, 그 사실이 곧 인간의 행위와 의사결정이 자연법칙을 따르지 않는다거나 과거 사건의 영향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열악한 유년기 환경을 극복한 사람의 경우에도 그 사람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행하는 과정에는 인과적인 법칙이 작용할 것이다. (800자)

[문제 1-2]

〈다〉의 입장에서 〈가〉의 '육식을 옹호하는 좌중의 태도'는 인간이 환경적 요소에 지배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에 따르면 인간의 결정은 자유의지의 산물이라기보다는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여러 환경적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인간의 식습관에도 환경요인이 중요하게 반영되었을 것이다. 〈가〉의 좌중들 역시 채식을 주어진 본능에 어긋나는 행위로 규정하고, 주인공에게 육식을 권하고 있다. 이는 자유의지에 의해 개인이 행위를 결정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한 행위이며, 주어진 사회문화적 환경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결정론적 태도로 볼 수 있다.

반면, 〈라〉의 입장에서 〈가〉의 '육식을 거부하는 화자의 아내의 태도'는 자유의지의 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라〉는 전향적 연구를 통해 기존 회고적 연구의 결론, 즉 인간의 삶이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는 관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전향적인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자유의지를 발휘하여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 따라서 한 개인이 육식을 당연시하는 환경에서 성장한다는 것이 음식에 대한 개인의 선호를 결정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가〉에서 좌중의 권유와 설득을 거부하며, 채식을 고수하는 아내의 행위는 결정론을 거부한 자유의지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 (620자)

[문제 2-1]

본 실험은 계절과 음료의 온도라는 결정적 요인이 타인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실험 결과, 덥거나 추운 계절에는 음료의 온도가 인상평가에 영향을 끼쳤다. 특히 더운 계절에는 차가운 음료가, 추운 계절에는 따뜻한 음료가 인상평가 점수를 향상시켰다. 차가운 음료와 따뜻한 음료의 차이의 절댓값은 여름보다 겨울에 더 컸다. 실험의 결과는 음료의 온도가 미치는 영향력이 계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증명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다면, 〈다〉 주장이 완전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는 따뜻한 감각이 따뜻한 태도를, 차가운 감각이 차가운 태도를 유발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새로운 실험 결과는 겨울에는 따뜻한 음료가, 여름에는 차가운 음료가 타인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이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에 함축된 결정론적 입장을 지지할 수 있다. 계절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개인의 의식적인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음료를 들고 있느냐가 사람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그리고 '따뜻한 감각이 따뜻한 태도를, 차가운 감각이 차가운 태도를 유발한다'는 종전의 결론도 부분적으로는 유효하다. 겨울의 온도 효과(3=|8-5|)가 여름의 효과(1=|6-7|)보다 컸기 때문이다. (629자)

[문제 2-2]

※ 대학 해설 참고

제 8 강 2020학년도 기출문제 1

※ 아래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가)

<앞부분 줄거리>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백년 전쟁 중이던 1347년 프랑스의 도시 칼레는 영국군에 포위되어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영국 국왕은 칼레 시에 사신을 보내 항복 조건을 제시했고, 여기에 대처할 방법을 논의하기 위하여 칼레 시를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이 모였다.

장 드 뷔엔느(시의회 의장) : (육중한 목소리로) 영국 국왕에게는 칼레 시를 제압할 무력이 있소. 이제 그 왕이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오. 여섯 명의 의원들이 열쇠를 가지고 도시 밖으로 걸어 나오라는 것이오. 맨머리와 맨발로, 그리고 불쌍한 죄수복을 입고서, 목에는 오랏줄을 감고 말이오. (그는 고개를 쳐든다.) 여섯 명이 첫새벽에 도시를 출발해야 한다고 하오. 여섯 명은 칼레 시의 성 밖의 백사장에 넘겨져서 목의 동아줄이 여섯 번이나 감기는 죽임을 당하는 것이오. 그것이 칼레 시와 칼레의 항구를 온전히 보전하기 위한 속죄가 될 것이오! (잠시 기다린 후에) 여섯 번 여기서 소리 높여 질문하겠소. 여섯 번 대답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오! (매우 힘주어서 소리친다.) 어디에 그 여섯 명이 앉아 있소? (일어서서) 여기 앞으로 나설 여섯 명은 어디 있소?

질문이 지닌 부담이 좌중을 짓누르는 듯하다. 다음 순간 몸을 움직이고 소란해지면서, 이윽고 조롱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한다.

유스땃슈 드 쌩삐에르 : (일어서더니 제자리로부터 중앙으로 걸어 나온다.) 내가 가겠소!

좌중이 곧 조용해진다. 장 드 뷔엔느는 놀라며 유스땃슈 드 쌩삐에르를 뚫어지게 쳐다본다. 연단에서는 "유스땃슈 드 쌩삐에르!"라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 온다. […] 두 번째와 세 번째 사람이 손을 들고 나섰다. […]

네 번째 시의회 의원 : (왼쪽에서 일어선다. 서두름 없이 고개를 곧추 세우고) 내가 가겠소!

연단에서는 한층 큰 목소리로 "네 번째다!"라고 소리친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욱 커진다. 의원들 가운데 여러 명이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 좌중을 빙 둘러본다. [...] 두 사람의 의원이 벌떡 일어선다. 두 사람 사이에 현관이 있어 서로를 못 본다.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계단을 내려와 현관 앞에 이르러 서로 마주 보게 된다. 그들은 실로 놀란다.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이 동시에 유스땃슈 드 쌩삐에르의 손을 잡고, 똑같이 말한다. "내가 가겠소!" [...] 의장이 사신인 영국군 장교를 부른다.

장 드 뷔엔느 : (영국군 장교에게 중앙에 서 있는 여섯 명의 의원들을 가리키며) 내일 이들이 열쇠를 가지고 도시의 성 밖으로 나갈 것이오. 내일, 여섯 명의 시민들이 생명을 내맡길 것이오. 영국 국왕은 여섯 명의 속죄자를 요구하였소. 그 명령에 따르는 것이오.

<뒷부분 줄거리> 다음 날 아침 여섯 명의 의원들은 영국 국왕 앞으로 나아갔다. 처형이 집행되기 직전, 국왕은 이 시민들을 살려 주었다.

(나) It is a fairly widespread feature of our culture that suicide is looked upon with such a mixture of fear and disapproval that it's very hard to discuss the topic calmly and clearly. Most people think that you've got to be crazy to kill yourself. Indeed, the very fact that you are contemplating* suicide in a desperate situation is evidence that you're crazy. And if you're not crazy, then it shows that you're immoral. Suicide, they say, is never the morally right thing to do.

So it's easy to become emotional when thinking about this subject. Still, what I propose to do is to examine the issue systematically. And the very first thing to do, in thinking about the topic of ending one's own life, is to distinguish questions of rationality from questions of morality. I'm going to begin the discussion by focusing exclusively on the former, asking under what circumstances, if any, suicide would be the rational thing to do. Only later will we turn to questions about morality which concerns whether or not an act of suicide is right or wrong, and when, if ever, suicide would be a morally permissible thing to do. In posing this distinction, I argue that these questions must come apart, or at least that they need to be examined separately.

Let's simply say, as we turn to the evaluation of suicide from the rational point of view, that we are going to restrict our attention to questions of rational self-interest, questions of what benefits or harms the person who is contemplating suicide. Even if there is more to rationality than simply doing what is best for oneself, it is possible to think that normally, at least, considerations of self-interest are the most significant ones for determining the rationality of suicide.

Is it ever rational to end one's own life? Suppose, for example, that you accept a certain position, according to which the quality of life is a matter of adding up all the pleasure and subtracting** all the pain. Since the question we are asking is whether it would be better for me to have my life end now, we want to know whether the life I would have will be good on the whole, or bad. So we add up the total amount of pleasure and also add up the total amount of pain—taking intensity and duration into account for both calculations. We subtract the pain from the pleasure and look to see what the grand total is. If the total is positive, your life is worth continuing. If negative, it is not. A life with a negative balance would be filled with sufficient pain and suffering, and you would be better off not having it. Suicide can be rationally justified under certain circumstances if we are evaluating suicide from the perspective of rational self-interest.

Is it ever morally permissible to end one's own life? So, let's look at that topic now. As I said before, morality deals with the question of whether an act is right or wrong. Suppose an army pilot's single-seater plane goes out of control over a heavily populated area; he has the choice of staying in the plane and bringing it down where it will do little damage but at the cost of certain death for himself, and of escaping to save his life and letting the plane fall where it will, very possibly killing other people. Suppose he chooses to do the former because he feels obliged to perform a moral duty to save lives, and so

sacrifices himself. Does anyone want to say that his action is morally wrong? To end one's own life isn't always morally permissible, but it is sometimes permissible.

* contemplate: to consider doing something in the future
** subtract: to take a number from another number

(다)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는 세계를 경악하게 했다.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테러를 줄이기 위해 연구자들은 테러가 발생하는 원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테러리즘은 일정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폭력이나 위협을 행사하고, 이를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심리적 충격이나 공포심을 유발하여 목적한 바를 관철하려는 행위다. 이런 행위를 자행하는 테러리스트를 광신자나 적개심으로 가득 찬 미치광이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테러리스트가 수행하는 극단적인 행위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으로 볼 수 있다.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들은 공격을 감행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비용과 이익을 고려한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테러를 할 수 있다면 주어진 비용을 비교하여 이익이 가장 높은 방법이 선택될 것이다.

그렇다면 아무리 이익이 크더라도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자살 테러는 과연 합리적인가? 성공적인 자살 테러는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한의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또한 이후에 테러리스트가 검거되어 배후 세력이 밝혀지거나 조직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된다. 자살 테러를 시도했던 테러리스트들을 면접 조사한 학자에 따르면, 자살 테러는 사회적 약자가 자신이 처한 절박한 상황에서 탈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자살 테러에 실패하여 체포된 테러리스트들은 대부분 "비참한 삶을 사느니 죽는 것이 낫다"고 고백한다.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보면 자살 테러를 시도한 사람들은 극심한 가정 폭력이나 가난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극단적이고 절박한 상황에서 자살 테러가 성공하면 조직을 위해 헌신한 영웅이라는 명예가 남는다.

(라) 합리성과 도덕성이 어떻게 개인의 구조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Y 도시 60,000명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을 통한 실험 연구

를 진행했다. 먼저 모든 실험 대상자에게 설문 조사를 진행하여 "위험에 처한 사람을 반드시 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중 하나를 답하게 했다. 다음으로 이 실험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없애기 위해 A, B, C 세 집단을 20,000명씩 무작위로 배정하여 구성했다. 세 집단에 속한 실험 대상자의 연령, 성별, 소득, 교육 수준 등은 차이가 거의 없었다. 각 집단에 속한 실험 대상자에게 물에 빠진 친구가 구조를 요청하는 상황을 제시하고, A 집단에는 구조를 위해 뛰어들었을 때 본인이 생존할 확률을 0.2로 부여했다. B 집단과 C 집단에는 각각 0.5와 0.8을 부여했다. 구조 시 친구를 구할 확률은 A, B, C 세 집단 간 차이가 없다고 가정한다. 마지막으로 직접 구조를 위한 선택을 물어보는 질문에 "직접 구조한다", "신고하고 기다린다" 중 하나를 답하게 했다. 실험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A 집단 (생존 확률 = 0.2)

(단위: 명)	위험에 처한 사람을 반드시 구해야 한다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직접 구조한다	4,000	1,000
신고하고 기다린다	6,000	9,000

B 집단 (생존 확률 = 0.5)

(단위: 명)	위험에 처한 사람을 반드시 구해야 한다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직접 구조한다	5,000	4,000
신고하고 기다린다	5,000	6,000

C 집단 (생존 확률 = 0.8)

(단위: 명)	위험에 처한 사람을 반드시 구해야 한다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직접 구조한다	6,000	6,000
신고하고 기다린다	4,000	4,000

문제 1-1

제시문 (나)에 나타난 합리성과 도덕성에 대한 관점을 기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의 시의회 의원들과 (다)의 테러리스트들의 선택 행위를 분석하시오.

(600자 안팎, 25점 ⇨ 800자 쓰기 연습)

문제 1-2

다음 지문에 드러난 관점에서 제시문 (나)와 (다)를 평가하시오. (600자 안팎, 25점)

[지문 A]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상황에 처해서 이로움(이익)을 택하느냐 의로움(옳음)을 택하느냐는 매우 어려운 판단이다. 이로움과 의로움은 모두 필요한 것이니, 현실적으로는 의로움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이로움이 적당히 충족되어야 하고 이로움을 추구하는 가치관에도 의로움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공자는 "이(利)를 보면 의(義)를 생각하고(見利思義 ; 견리사의), 위태로운 것을 보면 목숨을 바치며, 오랫동안 곤궁해도 평소에 하던 말을 잊지 않는다면 인격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눈앞에 이익이 있으면 먼저 그것을 취하는 것이 의로움에 합당한지를 생각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의로움을 가치 판단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이로움의 추구가 나쁜 것인가? '견리사의'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익 추구가 옳은지 그른지 따져보라는 뜻이다. 이익이 된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좇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결국 이익을 개인의 욕망에 따라 무한하게 팽창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의로움의 통제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본 것이다.

문제 2-1

제시문 (나)에 나타난 합리성과 도덕성의 개념에 근거하여 제시문 (라)의 실험 결과를 설명하시오. (600자 안팎, 25점)

문제 2-2

지난 10년 간 Y 도시에서 물에 빠진 친구를 구조하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든 사례는 총 203건 보고되었다. 이 중 물에 뛰어든 구조자가 생존한 경우는 42건이었으며, 구조자가 사망한 경우는 161건이었다. 제시문 (라)의 실험 연구에서 이 보고와 가장 가까운 생존 확률을 부여한 집단은 A 집단이었다. 이 집단에 속한 김연세가 친구를 직접 구조할 때, 그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반드시 구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일 확률을 제시문 (라)의 실험 결과에 근거하여 계산할 수 있다. 계산 과정을 제시하고 확률을 구하시오. 또 이에 근거하여 김연세라면 제시문 (가)와 (다)에 나타난 행위의 선택 기준을 각각 어떻게 평가할지 서술하시오. (25점)

2020학년도 기출문제1 해설

문제 1

1. 출제 의도

1. 이번 연세대학교 인문계열 수시논술은 수험생들의 종합적인 사고능력을 측정하려는 다면사고형 논술시험의 취지에 맞게 구성되었으며, 고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강화했다.
2. 고교 교육과정을 최대한 반영해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경제> 등에서 다루는 추상적인 주제인 '합리성'과 '도덕성'의 개념들을 청소년들을 포함한 현대인들이 처하는 이로움 (이익)과 의로움(옳음)의 현실적인 갈등상황에 연결시킴으로써 생명과 연관된 행위의 선택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파악하고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통합적인 문제로 구성했다.
3. 제시문은 교과서에서 발췌하거나 교과서에서 다루는 주제 및 내용에 준하여 선정했다. 이를 통해 현행 고교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다양한 주제와 개념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교과서 지문들에 익숙한 수험생이라면 충분히 답할 수 있도록 했다.
4. '합리성'과 '도덕성'과 연관되는 다양한 분야(문학, 철학, 사회과학)의 제시문들을 비교, 분석하도록 함으로써 수험생의 독해력과 독창적인 논리력, 표현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5. 가상의 설문 조사를 통한 실험 결과와 수리적 개념을 해석하는 능력 및 이를 다른 제시문들과 연 관을 지어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창의적으로 추론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다.

2. 문항 해설

제시문 (가)는 영국과 프랑스 사이 백년 전쟁 중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극화한 독일 극작가 게오르크 카이저(Georg Kaiser)의 희곡『칼레의 시민들』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시의회 의원들의 목숨을 건 도덕적 희생과 헌신을 보여준 이 사건은,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의 좋은 사례로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 소개되고 있을 뿐 아니라 로댕의 작품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제시문은 시의원들이 자신의 목숨도 돌보지 않고, 도시와 시민 전체를 위한 속죄양으로 자발적으로 나서는 과정을 묘사하여, '도덕성'에 의한 행위를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제시문 (나)는 셸리 케이건(Shelly Kagan)이 저술한『 Death 』(『죽음이란 무엇인가』)와 제임스 레이 첼즈(James Rachels)가 편집한『 Moral Problems 』(『사회윤리의 제문제』)의 영어 원문에서 발췌하여 출제 의도에 맞추어 수정했다. 사회통념상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인 자살에 대해 체계적인 접근방식을 취하는 이 제시문은 자신의 이익에 근거하는 합리성과 행위의 옳고 그름과 연관된 도덕성을 분리시켜 다루고자 한다. 삶의 질(행복)을 쾌락을 높이고 고통을 줄이는데서 삶의 의미를 찾는 합리성의 잣대로 판단할 수 있다면, 고통의 점수가 쾌락의 점수를 압도하는 특정한 상황에서는 자살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반면, 타자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도덕적 의무에서 자신을 희생하는

특정한 상황에서는 자살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제시문의 논지다.

제시문 (다)는 테러리즘을 조직과 개인의 합리성 관점에서 분석한 아넷 버코(Anat Berko)의 책『스마트 폭탄: 여성들과 어린이들의 자살 테러』의 일부를 요약한 것이다. 이 책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어린이가 자신들이 처한 절박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수단으로써 자살 테러를 시도할 수 있다고 본 다. 사회적 약자들의 자살 테러는 테러 조직의 이익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비참한 현실을 끝내는 합리적 계산을 통해 자행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제시문의 주장이다.

제시문 (라)는 극한 상황에서 합리성과 도덕성이 개인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가상의 설문 조사를 통한 실험을 만든 것이다. 도덕성을 측정할 설문을 먼저 실시하고 세 집단을 무작위 추출하여 구성한 뒤 합리성을 반영할 생존 확률을 부여했다. 각 집단의 실험 대상자들에게 친구가 물에 빠져 구조를 요청한다는 상황을 제시하고 물에 빠진 친구가 구조를 요청할 때 직접 구조할지 아니면 신고하고 기다릴지 선택하게 한 뒤 실험 결과를 표로 보여주고 있다.

[문제 1-1]

자살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를 위해 '합리성'과 '도덕성'은 분리해서 다루고자 하는 제시문 (나)에서 합리성은 자신의 이익에 초점을 두는 반면, 도덕성은 행위의 옳고 그름의 여부를 다룬다. 제시문 (나) 에서 쾌락을 높이고 고통을 줄이는 데서 삶의 의미를 찾는 입장을 따른다면 고통의 점수가 쾌락의 점수를 압도하는 '특정한' 상황에서는 자살이 합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한편, 타자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도덕적 의무에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특정한' 상황에서는 자살이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있다.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시의원들이 다른 시민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희생을 선택하는 행위는 도덕적인 의무에서 비롯되는 행위로서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있다. 하지만 제시문 (가)의 시의원들의 선택 행위에는 자기 이익의 추구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인 행위라고 보기 힘들다.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테러리스트들의 행위는 비용과 이익의 계산(검거나 조직 와해의 가능성, 비참한 현실을 끝내고자 하는 계산 등)을 통한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타자의 생명을 구하려는 도덕적 의무에서 비롯되지 않으므로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

[문제 1-2]

[지문 A]는 이로움(利)과 의로움(義)은 적절히 충족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함, 즉 둘이 연계되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한다. 다시 말해, 이로움보다 의로움을 가치 판단의 우선순위에 두는 공자의 '견리사의'(見利思義)는 이익을 추구할 때 항상 의로운 일인지 따져야 한다는 것, 즉 이익 추구가 의로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시문 (나)의 합리성은 [지문 A]에서 이로움(利)의 추구에 해당하며, 도덕성은 의로움(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의로움과 이로움을 연계해야 하는 필요성을 지적하는 [지문

A]의 관점에서 합리성과 도덕성을 분리시키는 (나)의 주장을 비판할 수 있다. 한편, 제시문 (다)의 테러리스트들의 행위는 자기 이익만의 관점에서 비용과 이익을 계산한 결과물이다. 도덕성의 통제하에서 합리성(이익)을 추구해야 함을 주장하는 [지문 A]의 관점에서는 제시문 (다)의 테러리스트들의 행위는 도덕성이 배제된 이익(합리성) 추구라고 비판할 수 있다.

문제 2

1. 출제 의도

1. 이번 연세대학교 인문계열 수시논술은 수험생들의 종합적인 사고능력을 측정하려는 다면사고형 논술시험의 취지에 맞게 구성되었으며, 고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강화했다.
2. 고교 교육과정을 최대한 반영해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사회 문화>, <경제> 등에서 다루는 추상적인 주제인 '합리성'과 '도덕성'의 개념들을 청소년들을 포함한 현대인들이 처하는 이로움(이익)과 의로움(옳음)의 현실적인 갈등상황에 연결시킴으로써 생명과 연관된 행위의 선택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파악하고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통합적인 문제로 구성했다.
3. 제시문은 교과서에서 발췌하거나 교과서에서 다루는 주제 및 내용에 준하여 선정했다. 이를 통해 현행 고교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다양한 주제와 개념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교과서 지문들에 익숙한 수험생이라면 충분히 답할 수 있도록 했다.
4. '합리성'과 '도덕성'과 연관되는 다양한 분야(문학, 철학, 사회과학)의 제시문들을 비교, 분석하도록 함으로써 수험생의 독해력과 독창적인 논리력, 표현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5. 가상의 설문 조사를 통한 실험 결과와 수리적 개념을 해석하는 능력 및 이를 다른 제시문들과 연 관을 지어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창의적으로 추론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다.

2. 문항 해설

[문제 2-1]

제시문 (나)에 나타난 합리성과 도덕성의 개념이 제시문 (라)의 실험을 통해 측정되는 과정을 파악하고, 합리성과 도덕성이 물에 빠진 친구를 직접 구조하는 선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실험 결과표를 정확히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한다.

제시문 (라)의 실험 연구 순서에서 합리성과 도덕성의 측정 과정을 볼 수 있음.

① 도덕성 개념의 측정

- 모든 실험 대상자에게 설문 조사를 진행하여 "위험에 처한 사람을 반드시 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중 하나를 답하게 함.
- "동의한다"에 답하면 도덕성이 있고, "동의하지 않는다"에 답하면 도덕성이 없

는 것으로 측정함.

② 합리성 개념의 측정

- 무작위로 배정한 A, B, C 세 집단에 부여한 본인 생존 확률임.
- A 집단 0.2에서 B 집단 0.5, C 집단 0.8로 증가하면서 직접 구조를 위한 합리적 선택 근거가 증가하는 것으로 측정함.
- 구조 시 친구를 구할 확률은 고정시킴.

실험 결과표는 본인 생존 확률(합리성 선택 기준)에 따라 나눠진 A, B, C 세 집단에서 도덕성이 직접 구조 여부에 각각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보여줌. 실험 결과표에서 합리성과 도덕성이 어떻게 직접 구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야 함.

[문제 2-2]

고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 <확률과 통계>에서 다루는 조건부확률의 개념을 이용하여 김연세가 도덕적 신념을 가진 사람일 확률을 계산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계산된 조건부확률을 바탕으로 김연세가 제시문 (가)와 (다)에 나타난 행위의 선택 기준을 어떻게 평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인지 추론하기를 요구한다.

① A 집단의 통계를 이용하여 친구를 직접 구조하는 김연세가 도덕적 신념을 가진 사람일 조건부확률을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구조자가 직접 구조를 시도하는 사건을 X, 도덕적 신념을 갖는 사건을 Y라고 했을 때, 사건 X가 일어날 확률은 $\frac{5,000}{20,000}$이고 사건 X와 Y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frac{4,000}{20,000}$이다. 따라서 조건부확률은

$$P(Y|X)=\frac{P(X\cap Y)}{P(X)}=\frac{\frac{4,000}{20,000}}{\frac{5,000}{20,000}}=0.8$$ (혹은 80%)이다.

② 계산된 조건부확률에 따르면 김연세는 도덕적 신념을 가졌을 확률이 높은 사람이다. 도덕적 신념을 가진 김연세라면 제시문 (가)에 나타난 시의회 의원들의 행위는 타당하다고 평가했을 것이다. 의원들은 도시 전체를 구하기 위해 개인을 희생하고자 하는 도덕적인 선택을 했다. 반면 김연세는 제시문 (다)에 나타난 테러리스트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을 가졌을 확률이 높다. 그들은 오로지 개인의 이익과 비용을 고려하는 합리성만을 고려했으며, 올바른 행동을 해야 한다는 도덕성은 행위의 선택 기준이 아니었다.

선생님 예시답안

[문제 1-1]

(나)는 자살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를 위해 '합리성'과 '도덕성'을 분리해서 설명한다. 합리성은 자신의 이익에 초점을 두는 반면, 도덕성은 행위의 옳고 그름의 여부를 다룬다. 고통의 점수가 쾌락의 점수를 압도하는 특정한 상황에서는 자살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즉 삶의 질(행복)과 쾌락을 높이고 고통을 줄이는 데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자살은 합리적 행위로 정당화될 수 있다. 한편, 도덕적 의무로 인해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즉 자신의 희생이 있어야지만 타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특정한 상황이라면, 자살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의 관점에서 (가)의 시의원들의 선택은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있다. 시의원들은 다른 시민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를 희생해야만 하는 특정한 상황에 처해 있다. 여기서의 자기 희생은 일종의 자살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타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도덕적인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의 선택에는 자신의 행복을 높이고 고통을 줄이는 등의 자기 이익의 추구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다.

(나)의 관점에서 (다)의 테러리스트들의 자살 테러 행위는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자살 테러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어린이가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택한 수단이다. 그들은 테러 조직의 이익뿐만 아니라 개인의 비참한 현실을 끝내고자 하는 비용과 이익에 대한 계산 결과로 테러를 선택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타자의 생명을 구하려는 도덕적 의무에서 비롯되지 않았으므로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는 없다. (805자)

[문제 1-2]

〔지문 A〕는 이로움(利)과 의로움(義)은 적절히 충족되고 조화를 이루고 연계되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한다. 이로움보다 의로움을 가치 판단의 우선순위에 두는 공자의 '견리사의'는 이익을 추구할 때 항상 의로운 일인지 먼저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익 추구가 의로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도덕성과 합리성이 상충되지 않고 양립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의 주장은 도덕성과 합리성이 양립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나)의 합리성은 〔지문 A〕에서 이로움의 추구에 해당하며, 도덕성은 의로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이 두 개념을 별개의 사안으로 분리하여 보고 있다. 즉 자살의 원인이 도덕성과 합리성의 복합적인 과정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여 그 원인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한계를 보인다.

한편, 〔지문 A〕의 관점에서 (다)의 테러리스트들의 행위는 도덕성이 전제되지 않은 합리성의 추구라고 비판할 수 있다. (다)의 테러리스트들의 행위는 자기 이익만의 관점에서 비용과 이익을 계산한 결과물이다. 즉 도덕성의 통제를 받지 않은 그들의 행위는 자신의 이익이 실현되었다 하더라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605자)

[문제 2-1]

(라)는 극한 상황에서 합리성과 도덕성이 개인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이 실험에서는 "위험에 처한 사람을 반드시 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도덕성을 먼저 측정한다. 그 다음, 합리성을 측정하기 위해 무작위 추출한 각 집단에 생존 확률을 각각 부여했다. 실험 결과, 본인 생존 확률에 따라 나눠진 세 집단에서 도덕성이 직접 구조 여부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다.

생존확률이 낮은 A집단의 경우, 도덕적인 사람들 중에서도 소극적 대응을 선택한 사람들이 더 많다. 하지만 생존확률이 높은 C집단의 경우, 직접 구조를 선택한 사람들이 더 많다. 심지어 도덕성이 없는 사람들조차 생존 확률에 따라 직접 구조를 선택하는 비율이 달라진다. 이는 자신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경우, 도덕성만이 전적인 행동의 기준이 되지 못하며, 생존 확률이라는 합리성이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도덕성이 행위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니다. 도덕적인 사람들 중에서는 본인의 생존 확률이 매우 낮은데도 직접 구조를 선택한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즉, 이 실험을 통해 합리성과 도덕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개인의 선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12자)

[문제 2-2]

A 집단의 통계를 이용하여 친구를 직접 구조하는 김연세가 도덕적 신념을 가진 사람일 조건부확률을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A 집단의 20,000명 중 직접 구조를 선택한 사람은 모두 5,000명이다. 이 사람들 중 도덕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4,000명이다. 구조자가 직접 구조를 시도하는 사건을 X, 도덕적 신념을 갖는 사건을 Y라고 했을 때, 사건 X가 일어날 확률은 $\frac{5,000}{20,000}$이고 사건 X와 Y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frac{4,000}{20,000}$이다. 따라서 조건부확률은

$$P(Y|X) = \frac{P(X \cap Y)}{P(X)} = \frac{\frac{4,000}{20,000}}{\frac{5,000}{20,000}} = 0.8 \text{ (혹은 } 80\%\text{)이다.}$$

계산된 조건부확률에 따르면 김연세는 도덕적 신념을 가졌을 확률이 높은 사람이다. 도덕적 신념을 가진 김연세라면 (가)에 나타난 시의회 의원들의 행위는 타당하다고 평가했을 것이다. 의원들은 도시 전체를 구하기 위해 개인을 희생하고자 하는 도덕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반면 김연세는 (다)에 나타난 테러리스트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을 가졌을 확률이 높다. 그들은 오로지 개인의 이익과 비용을 고려하는 합리성만을 고려했으며, 올바른 행동을 해야 한다는 도덕성은 행위의 선택 기준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제 9 강 2020학년도 기출문제 2

※ 아래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가) 서울에 방송국은 물론 하나밖에 없다. 정동(貞洞) 꼭대기에 서 있는 경성방송국이 그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밖에도 여러 군데 또 다른 방송국이 있는 것을 안다. 시골을 가면 촌마다 방송국이 하나 이상 있다. 우물가에 모여드는 입빠른 여인들이나 버드나무 그늘에서 담배 피우는 노인들의 엇구수한 이야기 터 같은 것이 그 동리의 모든 놀랄만한 뉴스의 교환소요, 확대처요, 방송국이 되는 것이다. 서울이라고 시골처럼 일 없는 친구들이 없으란 법이 없으렷다. 이리하여 무수한 방송국이 서울의 골목마다 생겨 있게 된다. 그 중에도 가장 새롭고 유별난 소식을 재빨리 내보내는 방송국이야말로 사람들이 가장 흥미를 느끼는 방송국이 된다. 불 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랴 하는 속담이 있지마는, 실로 이런저런 소식을 지어내는 데 있어서 이 방송국들은 묘한 기술을 자랑한다. 게다가 그들이 뭔가 꾸며내는 재주를 부린 소식일수록 더 널리 퍼지게 마련이다. 그런데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그저 일언지하(一言之下)에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적 이해력이 극히 부족한 사람의 조급한 판단이다. 왜 그러냐. 결국 우리가 철학적으로 세상만사를 고찰한다 하면 참의 영토와 거짓의 영토가 어디에 확연한 국경선이 그어졌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사실 하나를 제대로 알기도 어려운데, 또 어떻게 한 사실에 의존해 다른 사실을 단정 지을 수 있단 말인가. 또한 모두가 알고 다들 참이라고 믿는 소문이라도, 그것이 과연 참인지 어찌 알겠는가. 확실히 내 눈으로 본 것이라고 떠드는 사람의 말이라도 우리는 그것을 정말로 참이라고 믿기는 어렵다. 가령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이 자리에 갑자기 강도가 들어와서 육혈포*를 겨누고 돈지갑과 시계를 다 기부받아 갔다고 생각하자. 그 손님이 지나간 뒤에 전화를 받고 온 종로서 형사가 여러분을 심문할 때에, 그 손님의 옷차림과 얼굴 생김새와 키의 길고 짧음에 대하여 여러분의 대답이 과연 일치될 것이냐. 만일 여러분 중의 한 사람이 대강 기억나는 대로 그가 검은 웃옷에 회색 바지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 사람이 그렇지 않다, 바지는 푸른 바지라고 주장한다 치자. 여러분은 그 두 사람의 양심을 의심할 수 없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그들 말이 모두 참말이

라고는 믿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중에 세 번째 사람이 그의 바지는 누런 바지였다고 속으로 생각하고 픽 웃는다 해도 해괴할 것이 없을 것이다. 참과 거짓을 분간하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소문이란 그런 연유로 생겨나는 법이다. 누구도 참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할 수 없고, 이미 일어난 사건들은 제대로 확인할 도리도 없다. 모두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조차 사람들은 제각기 다른 인상을 머릿속에 담는다. 그러니 누가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확실히 안다고 자신할 수 있으랴. 이 허술한 지식에 기대어 섣불리 과학을 논하거나 장차 일어날 일을 점치기는 더더구나 불가하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사실에 대한 소문이 어디선가 흘러나오고 깜짝 놀란 사람들 사이에서 금세 퍼져나가는 것은 인간사의 당연한 이치인 것이다.

＊ 육혈포 : 탄알을 넣는 구멍이 여섯 개 있는 권총

(나) Societies, no matter how stable they may appear, are on-going things. The world is in a state of continuous transformation, and as life conditions change, knowledge must keep pace. Crisis situations arise whenever new events are not understandable in terms of established assumptions. Existing expectations are violated; new sensitivities arise; and new ideas emerge to be tested. In order that they may continue to act in association with one another, men must alter their basic attitudes and beliefs together. Thus, the emergence of new hypotheses and their acceptance as part of a modified view is a social process. As long as there is a possibility of communication among those caught in a crisis, social reconstruction will to some extent depend upon the reactions of those involved as they affect one another as well as upon their reactions to the events. It is by consulting each other and comparing their experiences that they alter their ways of acting. Rumor is an important part of this process of transformation. As such, it is not an abnormal phenomenon, but an integral part of the processes whereby men develop more adequate ways of coping with new circumstances. Since it is very unlikely that every new event will be defined satisfactorily through authoritat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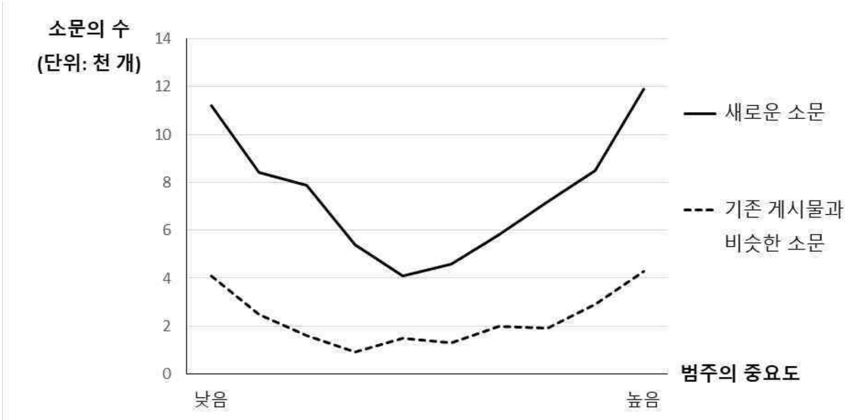
news media, it seems that rumors will always play some part in the efforts of men to come to terms with their ever-changing world. Rumor is a social interaction whose component parts consist of interpretative and communicative activity; it develops as men caught together in an ambiguous situation attempt to construct a meaningful interpretation of it by using all available intellectual resources. If demand for news in a public exceeds the supply made available through institutional news media, rumor construction is likely to occur. When information essential for adjustment is not readily available, the situation becomes problematic. Demand for news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intensity of collective excitement, and both depend upon the felt importance of an event to its public. The greater the importance of an event and the unsatisfied demand for news, the more likely it is that rumors will develop. When the situation in which it arose is no longer problematic, when either demand for news drops or supply becomes adequate, rumor construction is terminated. In situations characterized by familiar events and social stability, it is unlikely that rumors will be generated.

(다) 어떤 사람은 식사 후 30분 정도 낮잠을 자고 나서 눈을 뜨자마자, 다른 모든 사람이 그를 위해 보초라도 선 것처럼 “무슨 소식 없소?”라고 묻는다. 밤잠을 자고 난 후의 뉴스는 아침 식사만큼이나 필수적인 것이 된다. “제발 이 세상 어디건, 어떤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건 간에 무슨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들려주시오!”라는 심정으로 그는 커피를 마시고 롤빵을 씹으면서 어떤 기사를 끝까지 읽는다. 그것은 한 남자가 서쪽 강변에서 전날 아침 두 눈을 뽑혔다는 무시무시한 소식이다. 그 기사를 읽는 동안, 그는 자신이야말로 어둡고 깊은 동굴에서 퇴화되어 흔적뿐인 눈 하나만 갖고 살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는 것이다. 나는 신문에서 기억할 만한 소식을 읽은 적이 전혀 없다. 대개 누군가 강도를 만났다거나 살해당했다거 나 사고로 죽었다는 끔찍한 소식, 어떤 집에 불이 났고, 어떤 젖소가 철로에서 기차에 치였으며, 어떤 미친개가 죽었고, 겨울철에 메뚜기 떼가 나타났다는 단편적이고 자극적인 소식들인데, 이런 소식들은 종종 입소문

처럼 재미를 위해 적당히 부풀려지며,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도 알 수 없다. 서로 관련도 없는 이런 소식들은 여러 번 읽을 가치가 없다. 철학자에게 이러한 '새 소식'은 모두 한담*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런 한담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런 기사들은 사람들의 값싼 기대와 호기심을 만족시키며, 빠르게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되어 널리 퍼져나간다. 일 전에 어떤 신문사에 새로 들어온 외국 소식을 알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든 바람에 그 건물의 커다란 판유리 몇 장이 박살났다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그 외국 소식이라는 것도 영악한 사람이라면 12개월 전, 아니 12년 전이라도 꽤 그럴듯하게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었다. 새로운 소식이라! 그보다는 시간이 지나도 낡지 않는 것을 아는 게 훨씬 중요하지 않겠는가! 속보와 뜬소문이 굳건한 사실인 양 인정받고, 진실은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인간이 진실만을 똑바로 주시한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과 달리 더 가치 있게 변할 것이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새로운 한담거리나 흥밋거리로 소비하지 않고 사건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얻고자 애쓴다면, 우리의 정신은 온전히 진실만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우리가 감정에 휩쓸려 허둥대지 않고 현명하게 처신한다면, 타인의 불행과 공포를 접하며 느끼는 사소한 두려움이나 하찮은 즐거움은 결국 진실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 한담 : 심심풀이로 이야기를 나눔, 또는 그러한 이야기

(라) Y 대학 연구진은 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퍼진 모든 소문을 모았다. 이러한 소문 중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생성된 게시글을 제외하고, 100명 이상의 회원이 공유한 소문만 추출하였다. 연구진은 소문의 속성을 두 차원으로 나누어 측정했는데, 게시된 소문의 내용이 얼마나 새로운가를 우선 파악하였다. 즉, 소문에 해당하는 게시글이 기존 게시글들과 얼마나 비슷한지 공인된 방식으로 측정한 후, 이것을 '기존 게시물과 비슷한 소문', '새로운 소문' 두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연구진은 소문의 내용에 따라 '정치', '경제', '과학기술', '사건사고', '해외연예' 등으로 범주를 세분화하고, 범주 간 상대적 중요도를 대표성 있는 일반 시민 10,000명에게 조사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문제 1-1

소문(rumor)의 발생 및 확산에 대한 제시문 (가), (나), (다)의 논지를 비교하시오. (600자 안팎, 25점 ⇨ 800자 연습)

문제 1-2

다음 지문의 논지에 비추어, 제시문 (가)와 (다)의 입장을 논하시오. (600자 안팎, 25점)

[지문 A]

사실에 대한 지식은 본래 감각이며, 그 후는 기억일 뿐이다. 감각은 우리의 눈이나 귀나 기타 감각 기관에 바깥 사물이 압박하는 운동에 의해 생긴 환상일 따름이며, 기억은 그런 감각이 희미해지고 오래되어 과거의 것이 된 결과이다. 지식은 이렇게 감각과 기억에 의존하므로 그 자체로 완전하지 않다. 과학은 하나의 사실과 다른 하나의 사실과의 연관 또는 의존 관계에 관한 지식이다. 이러한 지식은 조건적으로만 가능하다. 어느 누구도 '어떤 것이 있다, 있었다,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이 이렇다면 저것은 저렇다, 이것이 이렇게 되면 저것은 저렇게 된다' 하는 조건적인 것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과학적 지식까지 결여된다면 타인의 담론과 권위에 의존하는 것이 불가피해진다. 진실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자기 생각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자기보다 더 현명하고 양심적인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 2-1

제시문 (라)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나)와 (다)의 입장을 논하시오. (600자 안팎, 25점)

문제 2-2

제시문 (라)의 연구진은 참인 소문과 거짓인 소문이 얼마나 많은 사용자에 의해 공유되는지 비교하는 연구를 하였다. 이를 위해 수집된 소문 중, 여섯 곳의 사실 점검(fact check) 기관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 참 또는 거짓으로 확인한 소문만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참인 소문을 공유한 사용자의 수를 확률변수로 정의하고, 그 확률밀도함수를 $f(x)$라고 하자. 거짓인 소문을 공유한 사용자의 수도 확률변수로 정의하고, 그 확률밀도함수를 $g(x)$라고 하자. 분석 결과, 이 두 함수는 다음과 같다.

$$f(x)=\begin{cases}\frac{x}{18}-\frac{1}{18} & (1\le x\le 4)\\ -\frac{x}{54}+\frac{13}{54} & (4\le x\le 13)\end{cases}$$

$$g(x)=\begin{cases}\frac{x}{40}-\frac{1}{40} & (1\le x\le 9)\\ -\frac{x}{10}+\frac{11}{10} & (9\le x\le 11)\\ 0 & (11\le x\le 13)\end{cases}$$

여기서 x의 단위는 100명이다. 주어진 확률밀도함수들에 근거하여 참인 소문과 거짓인 소문이 어떻게 다르게 확산되는지 설명하시오. 그리고 이를 제시문 (가)에 나타난 소문 확산에 대한 관점과 비교하시오. (25점)

2020학년도 기출문제2 해설

문제 1

1. 출제 의도

1. 연세대학교 사회계열 논술 시험은 학생들의 독해력, 분석력, 논리력, 창의력 등을 다면적이고 종합 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였고, 고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였다.
2. 고교 교육과정과 성취기준에 적절히 부합하는 주제와 내용을 제시하고, 문제의 난이도 수준을 적절히 유지함으로써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문제 풀이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3. 제시문과 지문은 교과서에 실린 유명 저자들의 작품을 포함해, 사회학 및 철학 분야의 고전적인 저작들에서 추출하고 이를 비교, 분석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독해력과 다면적 사고력을 측정하고 자 하였다.
4. 영어 제시문의 경우, 학생들의 추상적인 내용 이해 능력과 함께 고교 수준의 영어 단어와 구문에 관한 지식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5. 한 제시문에 경험 연구의 설계와 결과를 간단한 통계 그래프로 제시하고, 다른 제시문과의 관련 속에서 이를 해석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분석적 이해능력과 창의적 추론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6. 학생들이 고교 교육과정을 통해 익숙한 확률분포 관련 문제를 제시하고, 이를 제시문과 연계해 해석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수리적 분석력과 논리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7. 인터넷을 통한 소문과 가짜 뉴스의 유포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탈진실(post-truth)의 시대에 부합하도록 논술의 대주제를 설정함으로써 진실, 뉴스, 미디어 윤리 등의 문제에 대한 철학적·사회과학적 인식을 자극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시사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또한 일깨우고자 하였다.

2. 문항 해설

■ 제시문 (가)

이 제시문은 일제강점기에 발행된 잡지『동광(東光)』1931년 7월호에 실린 수필에서 발췌하여 출제 의도에 맞게 손질한 글이다. 제시문은 당시에 운영 중이던 경성방송국을 빗대어 시골 마을이든 서울의 골목이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장소를 뉴스의 교환소이자 방송국으로 묘사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담론의 장소에서 나누어지는 소문이나 소식을 단순히 거짓으로 간주할 수 없는 이유들을 거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첫째, 철학적으로 사건을 고찰할 때 참과 거짓을 확연히 구분할 수 있는 인식론적인 준거점이 불확실하다. 이는 예를 들어 강도사건 목격자들의 상이할 수밖에 없는 진술에서 잘 나타난다. 둘째, 이 때문에 목격자들이 선한 양심을 지녔더라도 그들의 진술을 무작정 참이라고 믿을 수는 없다. 셋째, 이렇게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사건에 의존해 그 결과를 논하거나 미래의 사건을 예측하기란 더더욱 어려우며, 따라서 사건들 간의 연관을 다루는 과학도 섣불리 논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소문이나 소식의 형성은 참일 수도 거짓일 수도 있는

인간사의 당연한 원리이기 때문에 열린 자세로 바라보아야 한다.

■ 제시문 (나)

이 제시문은 사회학자 시부타니 타모츠(Tamotsu Shibutani)의 책 『Improvised News: A Sociologi cal Study of Rumor』의 6장 "소문의 사회학적 이론"에서 발췌해 출제 의도에 맞추어 편집한 글이다. 제시문은 사회의 환경 변화에 대한 인간의 적응 노력에서 소문의 발생 원인을 찾는다. 저자에 따르면,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실체이다. 사회 구성원들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사건과 환경에 맞추어 자신의 기존 생각과 태도를 조정하고 적응해 나간다. 이 과정에서 상황이 지나치게 새롭거나 모호해서 적응을 위한 정보가 필수적인 데 반해, 제도화된 뉴스미디어가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한 경우, 소문이 발생한다. 달리 말하면, 공중(公衆)이 사건에 대해 느끼는 중요성이 클수록 집합적 흥분도 커지고 뉴스에 대한 수요도 커지는데, 기존 뉴스미디어의 정보 공급이 이에 부응하지 못할 때 소문이 생겨날 확률이 커진다는 것이다. 반면 환경이 친숙하고 안정적인 경우, 또 뉴스 공급이 제도화된 미디어에 의해 충분히 이루어질 경우, 소문은 잘 생겨나지 않거나 혹은 사라진다. 전체적으로 저자는 소문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 사이의 자연스러운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주장하고 있다. 사람들이 새로운 사건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 공동으로 지혜를 모으는 인지 활동이자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소문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제시문은 소문의 사회적이고 순기능적인 차원을 강조하고 있다.

<참고: 제시문 (나) 한국어 번역>

사회는, 아무리 안정된 듯 보일지라도, 진행 중인 실체이다. 세계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며, 생활 조건이 변화함에 따라 지식은 그것을 따라가야만 한다. 새로운 사건들이 기존의 가정들로 이해되지 않을 때는 언제나 위기 상황이 발생한다. 가지고 있던 기대는 깨지고, 새로운 민감성이 생겨난다. 그리고 새로운 생각들이 등장해서 시험된다. 사람들이 계속 서로 연합해서 행동하려면 그들의 태도나 신념 등도 함께 바꿔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가설들이 나타나고 받아들여져 수정된 관점의 일부가 되는 것은 사회적 과정이다. 위기에 빠진 사람들 간에 커뮤니케이션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사회적 재구성은 해당 사건들에 대한 그들의 반응뿐만 아니라 당사자들 상호 간의 반응에도 어느 정도 좌우될 것이다. 그들은 서로 상의하고 경험을 비교해가며 자신의 행동방식을 바꾼다. 소문(rumor)은 이러한 변화 과정의 중요한 일부이다. 따라서 소문은 비정상적 현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는 보다 적절한 방법을 발전시키는 필수적인 요소인 것이다. 모든 새로운 사건이 권위 있는 뉴스미디어를 통해 늘 충분히 명확하게 밝혀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에 대처하기 위한 인간들의 노력에서 소문은 앞으로도 늘 한몫을 할 것이다. 소문은 해석 활동과 의사소통 활동으로 구성되는 사회적 상호 작용이다. 소문은 모호한 상황 속에 빠진 사람들이 그들의 가용한 지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그 상황에 대한 의미 있는 해석을 내리려고 시도할 때 생겨난다. 뉴스에 대한 대중의 수요가 제도적 뉴스미디어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공급을 초과한다면 소문이 발생하기 쉽다. 상황 적응에 꼭 필요한 정보에 쉽사리 접근할 수 없을 때, 그 상황은 문제적인 것이 된다. 뉴스에

대한 수요는 집단적 흥분의 강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데, 이 둘은 어떤 사건에 대해 일반 대중이 느끼는 중요성에 달려있다. 사건의 중요성과 뉴스에 대한 충족되지 못한 수요가 크면 클수록 소문이 생겨날 소지는 그만큼 커진다. 소문이 일어난 상황이 더 이상 문제적이지 않게 되고, 뉴스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거나 뉴스 공급이 적절해질 때 소문의 생성은 끝난다. 사건들이 익숙하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는 소문도 잘 생겨나지 않는다.

■ 제시문 (다)

이 제시문은 고등학교 <고전>(교학사, Ⅱ. 고전의 탐구) 교과서에도 그 일부가 수록된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월든』에서 발췌하여, 출제 의도에 맞게 수정, 보완한 것이다. 이 제시문에서는 새롭고 자 극적인 소식을 좇는 사람들의 행태와 그에 부응하여 단편적이고 자극적인 소식들을 전하는 뉴스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 제시문에 따르면, 그런 단편적인 소식들은 사실 여부도 분명치 않으며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흥밋거리로 소비되는 소문이 되어 퍼져나간다. 또한 사람들이 계속 새로운 소식에 매달리고 감정에 휩쓸리다보니,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거나 변치 않는 진실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시문 (다)에서는 우리가 진실을 똑바로 바라보며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고자 애쓰고, 현명하게 처신한다면, 우리는 진실을 온전히 알 수 있으며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한다.

■ 제시문 (라)

제시문 (라)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내 축적된 자료를 전산학적 기법을 적용하고 계량적으로 연구하는 방식을 참고하여 구성한 가상의 분석 결과이다. SNS에 퍼진 소문의 사례들을 소문의 속성에 따라 나누어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제시문 (나), 제시문 (다)와 관련 있는 소문의 두 가지 속성을 측정하고 있다. 하나는 소문이 얼마나 새로운가이며, 다른 하나는 대중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평가하는가이다. 분석 결과를 정리한 그래프를 보면, 우선 기존 게시물과 비슷한 소문보다는 새로운 소문이 전체적으로 더욱 많이 생산되었다. 한편 ‘소문의 중요성’과 ‘소문의 수’ 간에는 좀 더 복잡한 관계를 보이는데, 소문은 매우 중요할 때 많이 생산되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하찮은 소문일수록 많이 생산되기도 한다. 즉, 중간 정도의 중요성에서 소문의 양이 가장 적고, 중요해지거나 하찮아질수록 양이 많아진다. 이러한 중요성과 소문 수와의 관계는 새로운 소문이건 기존 게시물과 비슷한 소문이 건 크게 차이는 없다.

[문제 1-1]

제시문 (가), (나), (다)는 모두 소문이 인간사에서 어느 정도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본다. 그러나 소문의 발생과 확산에 대해서는 제각기 견해를 달리한다.

제시문 (가)는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지각과 기억이 주관적이고 불완전하기에 소문이 발생한다고 본다. 이러한 소문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임 장소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다. 또한 불분명한 정보가 더 새롭고 흥미로운 이야기

로 꾸며질수록 빠르게 확산된다. (가)는 이러한 현상을 순전히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불완전한 인지 능력의 특성상 불가피하고 당연한 것으로 본다.

제시문 (나)는 소문의 발생과 확산 원인을 사회가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속성에서 찾는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새로운 사건들에 대한 정보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족해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응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기존 언론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소문을 통해 정보에 대한 갈망을 충족한다는 것이다.

제시문 (다)는 소문의 발생과 확산이 자극적인 정보를 선호하는 사람들과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언론의 산물이라 보고, 부정적인 관점을 드러낸다. 또한 개인이 선정적이고 한시적인 정보가 아닌, 불변하는 진실에 다가가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소문의 확산이 억제될 수 있다고 암시한다.

제시문 (가)와 (다)는 공통적으로 소문의 확산이 인간적인 흥미에 기반을 둔다고 보는 반면, (나)는 사회적 중요도와 심각성에 토대를 둔다고 보는 점에서 차이를 지닌다. 또한 (가)는 어떠한 정보의 참, 거짓을 근원적으로 구분할 수 없다고 보는 반면, (다)는 개인의 노력으로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두 제시문은 상반된다.

[문제 1-2]

[지문 A]는 지식이 감각과 기억에 의존하므로, 주관적이고 불완전한 속성을 갖는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완벽한 지식에 도달할 수는 없지만, 과학을 통한 조건적인 지식은 습득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지식까지 결여된다면, 자신보다 권위 있고 현명한 타인의 의견에 의존해야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자면, 제시문 (가)는 과학적 지식의 존재 가능성을 간과했다는 결점을 지닌다. 즉 (가)는 어떤 사람이라도 참과 거짓의 완벽한 분간이 어렵기 때문에 과학을 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정 짓는다. 그러나 [지문 A]의 관점에서는, 사실들의 연관이나 의존 관계에 관한 조건적인 지식으로서 과학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가능하다.

한편 [지문 A]의 시각에서는 진실한 지식에 도달하기 어려운 이유가 감각이나 기억의 불완전성에 있는 반면, 제시문 (다)에서는 단순히 자극적 호기심이나 흥밋거리를 추구하는 편향된 삶의 성향 때문이라고 본다. 또한 [지문 A]는 조건적 과학 지식마저 결여된 경우에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은 더 지혜롭고 양심적인 타인의 의견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제시문 (다)는 시간이 지나도 불변하는 진실을 스스로 추구하는 삶이 가치 있다고 간주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문제 2

1. 출제 의도

1. 연세대학교 사회계열 논술 시험은 학생들의 독해력, 분석력, 논리력, 창의력 등을 다면적이고 종합 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였고, 고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였다.
2. 고교 교육과정과 성취기준에 적절히 부합하는 주제와 내용을 제시하고, 문제의 난이도 수준을 적절히 유지함으로써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문제 풀이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3. 제시문과 지문은 교과서에 실린 유명 저자들의 작품을 포함해, 사회학 및 철학 분야의 고전적인 저작들에서 추출하고 이를 비교, 분석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독해력과 다면적 사고력을 측정하고 자 하였다.
4. 영어 제시문의 경우, 학생들의 추상적인 내용 이해 능력과 함께 고교 수준의 영어 단어와 구문에 관한 지식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5. 한 제시문에 경험 연구의 설계와 결과를 간단한 통계 그래프로 제시하고, 다른 제시문과의 관련 속에서 이를 해석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분석적 이해능력과 창의적 추론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6. 학생들이 고교 교육과정을 통해 익숙한 확률분포 관련 문제를 제시하고, 이를 제시문과 연계해 해석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수리적 분석력과 논리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7. 인터넷을 통한 소문과 가짜 뉴스의 유포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탈진실(post-truth)의 시대에 부합하도록 논술의 대주제를 설정함으로써 진실, 뉴스, 미디어 윤리 등의 문제에 대한 철학적·사회과학적 인식을 자극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시사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또한 일깨우고자 하였다.

2. 문항 해설

[문제 2-1]

- 제시문 (라)의 그래프에 나타난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 각각에 나타난 소문의 발생 및 확산에 대한 입장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1. 제시문 (라)의 그래프를 해석하고 제시문 (나)에 나타난 변수들 간의 관계에 적용하는 능력

1) 그래프는 전반적으로 새로운 소문이 많이 생성됨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래프의 오른편은 대중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소문일수록 많이 생성됨도 보여준다.
2) 제시문 (나)는 기존 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소문이 생겨나 퍼지는 과정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그래프의 결과와 일관된 입장이라 할 수 있다.
3) 제시문 (나)는 또한 대중에게 중요한 소문일수록 모두 관심을 갖고 소문이 양산됨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그래프의 오른편과 일관된 입장이라 할 수 있다.

2. 제시문 (라)의 그래프를 해석하고 제시문 (다)에 나타난 변수들 간의 관계에 적용하는 능력

1) 그래프는 전반적으로 새로운 소문이 많이 생성됨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래프의 왼편은 대중이 하찮다고 판단하는 소문일수록 많이 생성됨도 보여준다.

2) 제시문 (다)는 변하지 않는 진실보다는 새롭기에 흥미를 끌 수 있는 소문이 양산되는 과정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그래프의 결과와 일관된 입장이라 할 수 있다.

3) 제시문 (다)는 또한 한담거리인 소식들일수록 많이 생산되고 전파됨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그래프의 왼편과 일관된 입장이라 할 수 있다.

3. 그래프를 바탕으로 두 제시문에 나타난 변수들 간의 관계를 종합하여 평가하는 능력

1) 두 제시문은 공통적으로 소문의 생산에 새로움이 중요함을 주장하고 그래프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2) 소문의 중요성과 소문의 양에 관해 상반되는 두 제시문의 주장은 상호 모순적이라기보다는 경험적으로 상호 보완적일 수 있다.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는 서로 다른 수준의 중요도를 갖는 소문에 주목하여 다른 관점을 피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중간 수준의 중요도에서 소문의 양이 가장 적으며, 중요도의 양측으로 갈수록 소문이 많아지는 경험적 경향은 두 제시문의 주장을 종합할 수 있게 해준다.

3)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는 공통적으로 새롭지 않은 소문, 그래서 빈도수가 상대적으로 작은 소문의 발생 및 확산에 대해서는 알려주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제시문 (라)의 그래프는 이러한 소문 역시 중요도와 소문 수와의 관계는 새로운 소문과 크게 다르지 않은 아래로 볼록한 모양임을 보여준다.

[문제 2-2]

- 주어진 확률밀도함수를 통해 참인 소문과 거짓인 소문이 어떻게 다르게 확산되는지 설명하고, 이를 제시문 (가)에 나타난 소문 확산에 대한 관점과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1. 확률변수의 개념 이해

1) 표본공간의 각 원소를 실수 전체의 집합의 한 원소에 대응시키는 함수를 확률변수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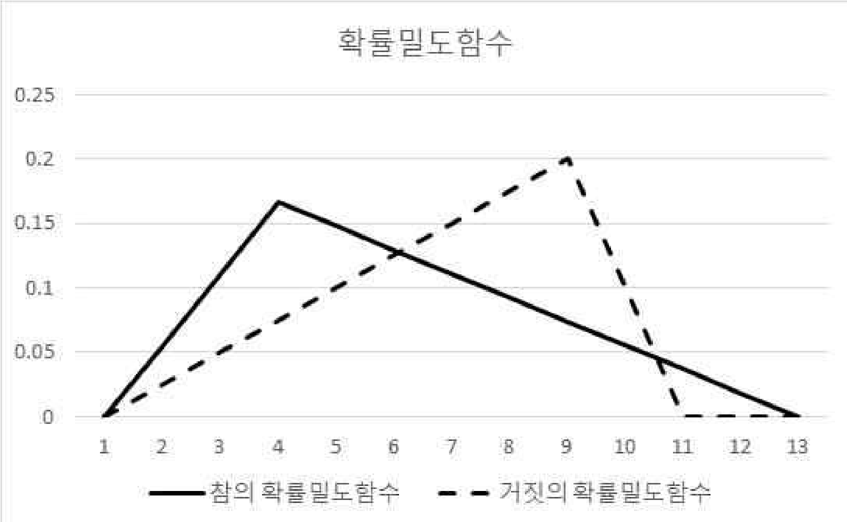
2) 참인 소문을 공유한 사용자의 수와 거짓인 소문을 공유한 사용자의 수를 각각 확률변수로 정의했다.

3) 여기서 확률변수는 특정 소문을 특정 실수에 대응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750명에게 공유된 소문을 750이라는 수에 대응시키는 것이다.

2. 일차함수의 이해

1) 참인 소문의 확률밀도함수와 거짓인 소문의 확률밀도함수는 구간별로 일차함수인 형태로 주어졌다.

2) 주어진 함수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3. 참인 소문과 거짓인 소문의 차등적 확산을 이해하는 능력

1) 확률밀도함수는 특정 수에 대응된 원소들의 상대적 빈도(상대도수)를 보여준다.

2) 위 그림은 참인 소문은 비교적 적은 수의 사람들(600명 이하)이 공유한 경우가 많고, 거짓인 소문은 비교적 많은 수의 사람들(700명에서 1,000명)이 공유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3) 아주 많은 수의 사람들(1,100명 이상)이 공유한 참인 소문은 있지만, 그러한 거짓 소문은 없다는 것도 보여준다.

4. 주어진 식에서 도출된 결론을 제시문 (가)에 나타난 소문 확산에 대한 관점과 비교하는 능력

1) 제시문 (가)는 "꾸며낸 소식일수록 더 널리 퍼지게 마련"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거짓인 소문이 비교적 많은 수의 사람들(700명에서 1,000명)에게 공유된다는 내용과 일치한다.

2) 제시문 (가)는 "모두가 알고 다들 참이라고 믿는 소문이라도 그것이 과연 참인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는 아주 많은 수의 사람들(1,100명 이상)이 공유한 소문은 참인 소문밖에 없다는 내용과 반대된다.

선생님 예시답안

[문제 1-1]

(가)~(다)는 모두 소문을 인간사의 불가피한 현상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소문의 발생과 확산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른 차원으로 접근한다. (가)와 (다)는 그 원인을 개인적 흥미의 차원에서 설명하는 반면, (나)는 사회적 상호과정의 차원에서 설명한다.

(가)는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지각과 기억이 주관적이고 불완전하기에 소문이 발생한다고 본다. 소문은 일상적인 모임 장소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불분명한 정보가 더 새롭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꾸며질수록 빠르게 확산된다. (다) 역시 소문의 발생과 확산을 인간적 흥미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 소문은 자극적인 정보를 선호하는 사람들과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언론의 산물이라는 부정적인 관점이다.

반면, (나)는 소문의 발생과 확산 원인을 사회적 상호과정으로 설명한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새로운 사건들에 대한 정보는 양적, 질적으로 부족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언론이 제 기능을 못할 때, 사람들은 소문을 통해 정보에 대한 갈망을 충족한다. 즉 소문은 해석 활동과 의사소통 활동으로 구성되는 사회적 상호 작용의 긍정적 기능을 한다.

한편, (가)와 (다)는 소문의 진위여부를 가려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 (가)는 인간의 불완전한 인지 능력의 특성 때문에 정보의 참과 거짓은 근원적으로 구분할 수 없다고 본다. 소문의 형성은 참일 수도 거짓일 수도 있는 인간사의 당연한 원리이기 때문에 열린 자세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다)는 개인이 선정적이고 한시적인 정보가 아닌 불변하는 진실에 다가가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우리는 진실을 온전히 알 수 있으며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한다. (850자)

[문제 1-2]

〔지문 A〕는 사실에 대한 지식이 감각과 기억에 의존하므로 주관적이고 불완전하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완벽한 지식에 도달할 수는 없지만, 과학을 통한 조건적인 지식은 습득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지식까지 결여된다면, 자신보다 권위 있고 현명한 타인의 의견에 의존해야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가)는 과학적 지식의 존재 가능성을 간과하

고 있다. 즉 (가)는 어떤 사람이라도 참과 거짓의 완벽한 분간이 어렵기 때문에 과학을 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정 짓는다. 그러나 〔지문 A〕의 관점에서는 사실들의 연관이나 의존 관계에 관한 조건적인 지식으로서 과학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가능하다.

한편, 〔지문 A〕의 시각에서 본다면, (다)의 진실에 접근하려는 노력은 실현되기 어렵다. (다)에서는 스스로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고자 애쓰고 현명하게 처신한다면, 진실을 온전히 알 수 있으며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인간은 감각이나 기억의 불완전성 때문에 진실한 지식에 도달할 수는 없다. 더구나 조건적 과학 지식마저 결여된 경우에 더 지혜롭고 양심적인 타인의 의견에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스로 진실을 추구하는 자세를 강조하는 (다)의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 (617자)

[문제 2-1]

(라)의 분석 결과를 통해, 기존과 비슷한 소문보다는 새로운 소문이 전체적으로 더욱 많이 생산되고, 소문의 중요성이 높거나 낮은 경우 더 많이 생산됨을 보여준다. 중간 정도의 중요성에서는 소문이 가장 적게 발생한다. 이러한 중요성과 소문 수와의 관계는 새로운 소문이건 기존과 비슷한 소문이건 크게 차이가 없다.

그래프의 오른편은 새롭고 중요한 소문일수록 많이 생성됨을 보이는데, 이는 (나)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나)는 기존 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소문이 생겨나 퍼지는 과정에 주목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소문일수록 더 많이 양산됨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프의 왼편은 새롭고 중요하지 않은 소문일수록 많이 생성됨을 보이는데. 이는 (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다)는 변하지 않는 진실보다는 새롭기에 흥미를 끌 수 있는 소문이 양산되는 과정에 주목하고 있으며, 한담일수록 많이 생산되고 전파됨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문의 중요성과 소문의 양에 관해 상반되는 두 제시문의 주장은 상호 모순적이라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일 수 있다. (나)와 (다)는 서로 다른 수준의 중요도를 갖는 소문에 주목하고 있는데. 중간 수준의 중요도에서 소문의 양이 가장 적으며, 중요도의 양측으로 갈수록 소문이 많아지는 경험적 경향은 두 제시문의 주장을 종합할 수 있게 해준다. (660자)

[문제 2-2]

※ 대학 해설 참고

제 10 강 2020학년도 모의논술

※ 아래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가)

소크라테스 :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네. 이집트 나우크라티스 지방에 테우트라는 신이 있었는데, 이 신은 숫자와 계산법, 기하학, 천문학은 물론이고 장기와 주사위 놀이, 게다가 문자까지 발명했다고 하네. 어느 날 테우트는 이집트의 왕인 타무스를 찾아가 자신이 만든 기술들을 보여주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 기술들을 보급해야 한다고 말했네. 왕은 그 기술 하나하나에 어떤 유익함이 있는지 물었고, 테우트는 상세히 설명했지. 그런데 대화가 문자에 이르자, 테우트가 이렇게 말했다네. “왕이여 이 배움은 이집트 사람들을 더욱 지혜롭게 하고 기억력을 높여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억과 지혜의 묘약으로 발명된 것이니까요.” 그러자 타무스가 이렇게 대답했네. “기술이 뛰어난 테우트여. 그대는 문자의 아버지로서 그것에 대해 선의를 품고 있기에 그렇게 말하겠지만, 내 생각은 정반대요. 왜냐하면 문자는 그것을 배운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에 무관심하게 해서 그들의 영혼 속에 망각을 낳아 그들은 글에 대한 믿음 탓에 바깥에 있는 흔적에 의존할 뿐 스스로 기억해 내려하지 않기 때문이오. 그러니 당신이 발명한 것은 기억의 묘약이 아니라 상기의 묘약이고 그대가 제자들에게 주는 것은 지혜의 겉모양이지 참모습이 아니라오. 그들은 그대 덕분에 많은 것을 듣게 되고, 자신들이 많이 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대부분 그들은 무지하고 누군가를 상대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니 그들은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겉보기에 지혜로운 자일 뿐이요. 그러니 기술을 문자에 담아 남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물론, 문자로부터 무언가 명확하고 확실함이 생겨나리라는 생각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일세. 그는 글로 쓰인 말들이 이미 앎을 가진 사람에게 상기시키는 것 이상의 일을 한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네.

파이드로스 : 지당한 말씀입니다.

소크라테스 : 글쓰기에는 뭔가 이런 기이한 점이 있으니, 사실 그것은 그림 그리기와 똑같네. 그려진 것들은 살아 있는 생물처럼 보이지만, 자네가 어떤 질문을 던지면 무겁게 침묵한다네. 글도 똑같다네. 자네에게는 그것들이 마치 무언가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

겠지만, 그 글에서 무언가 배우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문을 던지면 그 것은 언제나 한 가지의 같은 것만을 가리키지. 일단 글로 쓰이고 나면, 모든 말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들 주변과 그 말이 전혀 먹히지 않는 사람들 주변을 똑같이 맴돌면서 말을 걸어야 할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가려내지 못하네. 참된 인식과 함께, 배우는 자의 영혼 속에 쓰인 말은 자신을 지킬 힘이 있고, 상대해서 말을 해야 할 사람들과 침묵해야 할 사람들을 가려낼 줄 안다네.

파이드로스 : 당신은 앎이 있는 자의 말을 일컬어 살아 있고 영혼이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군요. 글로 쓰인 말은 그것의 영상(映像)이라고 불러야 마땅할 겁니다.

(나) By contrast with natural, oral speech, writing is completely artificial. There is no way to write 'naturally.' Oral speech is fully natural to human beings in the sense that every human being in every culture who is not physiologically* or psychologically disabled learns to talk. To say writing is artificial is not to condemn it but to praise it. Like other artificial creations and indeed more than any other, it is truly invaluable and indeed essential for the realization of fuller, interior, human potentials. Technologies are not mere exterior aids but also interior transformations of consciousness, and never more than when they affect the word. Writing heightens consciousness and it also provides for consciousness as nothing else does. Oral cultures indeed produce powerful and beautiful verbal performances of high artistic and human worth. Nevertheless, without writing, human consciousness cannot achieve its fuller potentials, cannot produce other beautiful and powerful creations. In this sense, orality needs to produce and is destined to produce writing. Literacy is absolutely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not only of science but also of history, philosophy, explanatory understanding of literature and of any art, and indeed for the explanation of language (including oral speech) itself. There is hardly an oral culture left in the world today that is not somehow aware of the vast complex of powers forever inaccessible without literacy.

Technologies are artificial, but — paradox again — artificiality is natural to human beings. Technology, properly interiorized, does not degrade human life but on the contrary enhances it. The use of a technology can enrich the human mind, enlarge the human spirit, and intensify its interior life. Writing is an even more deeply interiorized technology than instrumental musical performance is. With telephone, radio, television, and various kinds of digital media, electronic technology has brought us into the age of 'secondary orality,' by contrast with primary orality, which refers to thought and its verbal expression totally untouched by any knowledge developed through writing or print. But secondary orality is essentially a more deliberate and self-conscious orality, based permanently on the use of writing and print. Secondary orality is both remarkably like and remarkably unlike primary orality. Like primary orality, secondary orality has generated a strong group sense, for listening to spoken words forms hearers into a group, a true audience, just as reading written or printed texts turns individuals in on themselves. But secondary orality generates a sense for groups immeasurably larger than those of primary oral culture as is indicated by McLuhan's 'global village.' Moreover, before writing, oral folk were group-minded because no possible alternative had presented itself. In our age of secondary orality, we are group-minded self-consciously and programmatically. The contrast between oratory in the past and in today's world well highlights the contrast between primary and secondary orality. Radio, television, and social media have brought major political figures as public speakers to a larger public than was ever possible before modern electronic developments. Thus in a sense orality has come into its own more than ever before. But it is not the old orality. The old style oratory** coming from primary orality is gone forever.

* physiologically: an adverbial form of physiology, meaning a branch of biology that deals with the functions and activities of life or of living matter (such as organs, tissues, or cells) and of the physical and chemical phenomena involved

** oratory: the art of speaking in public eloquently or effectively

(다) 글쓰기와 글 읽기는 사치스러운 일인데, 왜냐하면 이를 위해서는 여가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9세기의 감옥만큼이나 많은 시간을 자기 자신에게 몰두할 수 있는 곳이 또 있었을까? 감옥은 반체제 인사들의 또 다른 대학이었으며, 최상의 도덕적 자각을 얻을 수 있는 장소였다. 서구 자본주의와 동구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사회적 항거의 실험실은 독재 체제 아래의 강제수용소와 포로수용소였다. 1840년부터 1930년까지 유럽의 감옥에 수감되었던 이들의 명단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 속에서 유명한 사회주의자들의 이름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어디에서나 쫓기는 신세였던 예전의 사회주의는 국경을 넘는 일에 능숙하게 되었고, 따라서 유럽 문화가 낳은 고유한 산물로서 등장할 수 있었다. 사회주의자들이 유럽 대륙의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음으로써 서신 교환이 촉진되었고 따라서 지식인들의 창조성이 꽃필 수 있었다. 그들의 몸은 자주 만나지 못하더라도 마음은 서로 더 가까이 있었다. 확실히 사회주의적 글쓰기는 서간문학에 빚을 지고 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론적 작업의 절반을 편지로 수행했으며 사실상 그들의 모든 정치적 활동은 우체통을 거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오늘날 각종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더욱 사교적으로 변해가지만,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는 점점 더 무지해지고 있다. 대화는 늘어났는데, 논쟁은 줄어든 것이다. 전화는 서신의 기술을 파괴했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사고를 합리화하고 체계화하려는 시도가 지니고 있었던 권위는 손상되기에 이르렀다. 우리가 전화 수화기를 붙들고 복잡한 원리와 주제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일은 거의 없다. 우리는 수다를 떨기 위해 전화를 사용한다. 사소한 말들의 홍수 속에서 보편적인 성격을 띠는 거창한 논의는 이제 개인의 내밀한 장신구 비슷한 것이 되었다.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텔레비전을 봐야만 하고 따라서 집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는 말하자면 '자발적인 자택 감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한 사람의 집은 곧 그의 성이다"라는 속담 아래 깔린 의미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만 생각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텔레비전은 고립된 개인들에게 일방적인 말을 전달할 따름이다. 또 휴대전화는 끝없는 일대일 관계일 뿐이며 우리의 머리에서 보편적인 것을 몰아낸다. 전자우편(e-mail)이 서신 교환의 장점을 회복시키지는 못했다. '우편'이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제로는 편지보다 대화에 가깝기 때문이다. 간단한 메시지를 빠르게 주고받는다는 특성 때문에 전자우편은

글이라기보다는 말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 그것은 짧고 일시적이고 즉흥적이며 대개 감정적이다. 이러한 구술적 성격의 글쓰기에는 일관된 논리가 들어설 여지가 없다. 전자우편은 사람들이 함께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사유를 정립해나가는 데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 텔레비전, 휴대전화, 인터넷 역시 세계화를 위해서는 좋은 것이지만, 사람들간 연대의 유기적인 성격을 감소시킴으로써 세계시민주의에는 해로운 것이다. 그것들은 만남과 대화를 활성화함으로써 개인적 관계의 영역을 확장하지만 동시에 그 관계들을 사적인 것으로 만들 뿐이다. 말하자면 그것들은 세계화하면서도 오히려 특수화하고 있는 것이다.

(라) 제2의 구술성(secondary orality)과 관련된 디지털 매체의 사용이 공동체 의식의 감소를 가지고 온다는 이론을 검토하기 위하여 전 세계의 도시들을 대상으로 도시별 디지털 매체 사용량과 공동체 의식 간의 관계를 조사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디지털 매체 사용량은 전자우편(e-mail)과 협업 소셜미디어(collaborative social media)* 중 하나를 매일 이용하는 도시민의 비율로 조사되었으며, 공동체 의식의 점수는 설문조사를 통한 해당 도시 거주자들의 평균으로 측정되었다. 그 점수의 범위는 0점부터 100점이다. 이 연구 결과 조사된 도시들 사이에서는 디지털 매체 사용량이 3% 증가할 때 공동체 의식 점수가 평균 10점 하락하였고 이 감소량은 정규분포를 따랐다. 단, 거주자가 500만 이상인 대규모 도시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이 정규분포의 표준편차는 5점이었으며 아시아 도시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표준편차가 10점이었다.** 서울시는 디지털 매체의 사용 증가에 따른 공동체 의식의 감소를 막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이 대책을 위해 서울시가 독자적인 연구를 수행한 결과, 서울 시민들의 전자우편과 협업 소셜미디어 사용량이 1년 후에 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협업 소셜미디어는 위키피디아, 네이버 지식iN 등 일반인들이 참여하여 지식생산에 기여하는 소셜미디어를 의미한다.

** Z가 표준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일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P(|Z| \le 0.50) = 0.383$, $P(|Z| \le 1.00) = 0.6826$, $P(|Z| \le 1.65) = 0.90$,
$P(|Z| \le 1.96) = 0.95$, $P(|Z| \le 2.00) = 0.9544$, $P(|Z| \le 2.58) = 0.99$,
$P(|Z| \le 3) = 0.998$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200자 내외, 50점)

[1-(1)]

제시문 <가>, <나>, <다>에 나타난 '글쓰기'와 '지식 발전'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비교, 분석하시오.

[1-(2)]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 각각의 관점에서 다음의 사례를 평가하시오

>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뉴욕 여성의 삶과 사랑을 그려낸 미국 TV 드라마가 한때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 드라마는 대만의 고학력 여성들 사이에서도 매우 환영받았다. 그들은 인터넷 게시판에서 드라마 내용에 관해 활발한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여성에게 정숙함과 자기희생을 기대하는 대만의 문화적 전통은 그 당시 여성 경제력 증가와 그에 따른 정서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드라마는 이른바 '바람직한 여성'이 되어야 하는 의무와 더 자유롭고 개인주의적인 생활양식을 원하는 욕망을 절충하려는 대만 여성들에게 문화적 대안을 제공했으며, 남성 지배적 세계에서 여성의 주체성을 찾기 위한 투쟁에 영감을 제공했다. 다른 한편, 여성 시청자들은 드라마의 감각적 세계를 즐기며 개인적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도 드러냈다. 한 여성은 인터뷰에서 이 드라마의 교훈이 "스스로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 2

제시문 <라>를 근거로 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200자 내외, 50점)

[2-(1)]

제시문 <라>에서 언급한 연구 결과를 이용하기 위하여 우리는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서울시를 거주자 500만 이상의 대규모 도시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서울시를 아시아 도시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우이다. 이 두 경우가 서울시 대책에 어떻게 다른 영향을 미칠지 설명하시오.

[2-(2)]

제시문 <라>의 연구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1], [표 2], [표 3] 각각을 제시문 <나>와 <다>의 관점에서 평가하시오. (표 안의 숫자는 해당 도시의 수를 의미한다.)

[표 1]

이메일 사용량	공동체 의식		
	낮다	높다	합계
많다	432(54.1%)	367(45.9%)	799(100%)
적다	482(63.3%)	279(36.7%)	761(100%)

[표 2]

독서량	공동체 의식		
	낮다	높다	합계
많다	428(49.7%)	434(50.3%)	862(100%)
적다	486(69.6%)	212(30.4%)	698(100%)

[표 3]

협업미디어* 사용량	공동체 의식		
	낮다	높다	합계
많다	341(51.0%)	327(49.0%)	668(100%)
적다	573(64.2%)	319(35.8%)	892(100%)

* 협업미디어는 제시문 <라>에서 설명한 협업 소셜미디어를 의미한다.

2020학년도 모의논술 해설

1. 출제 의도

<전체 문항 출제 의도>

1. 이번 연세대학교 인문/사회계열 모의논술은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수험생들의 종합적인 사고능력을 측정하려는 다면사고형 논술시험의 취지에 맞게 구성되었다.
2.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다루어지는 '구술성'을 '문자'와 '지식의 발전' 등과 관련지어 사고하고, 이에 관한 다양한 관점을 파악하고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통합적인 문제로 구성하였다.
3. 제시문은 교과서에서 발췌하거나 교과서에서 다루는 주제 및 내용에 준하여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습득한 다양한 주제와 개념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교과서 지문들에 익숙한 수험생이라면 충분히 답할 수 있도록 했다.
4. 간단한 표를 통합하여 해석하는 능력과 이를 다른 제시문들과 연관지어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창의적으로 추론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고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확률과 통계]에서 다루는 평균과 표준편차에 대한 이해, 정규분포와, 표준정규분포에 대한 이해를 실제 실증자료와 연관지어 평가한다.

<문제 2 출제 의도>

평균과 표준편차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고, 실증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표를 다른 제시문들과 연관지어 사고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2. 문항 해설

[문제 1-(1)]

제시문 <가>에서 소크라테스는 글쓰기가 지식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한다. 그는 그 근거로 글이 독자와의 상호작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들며, 상대가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자세를 보이는지에 따라 유연하게 논증을 펼치려면 대화(말)로써 지식을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시문 <다>는 이와 상반된 입장을 지니는데, 이는 두 제시문이 각기 다른 시대에 쓰였다는 사실과도 관련이 있다. 구체적으로 <다>는 글쓰기의 여러 형식 가운데 서신에 주목하면서, 이것이 19세기 사회주의 사상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했다고 지적한다. 그런데 서신은 소크라테스가 주목하는 글과 달리, 독자와 상호작용하면서 사유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반면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의 매체를 통한 현대의 대화(말)는 토론이나 논쟁보다는 친목과 사교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진다. 제시문 <가>와 <다>는 모두 상호작용과 토론

을 통해 지식이 발전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근대로 넘어 오면서 대화를 통한 논쟁보다는 글쓰기와 서신 왕래를 통한 의견 교류가 늘어났기 때문에 글쓰기가 지식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견해는 서로 달라진 것이다. 한편 제시문 <나>는 구술을 '자연적', 글쓰기를 '인공적'이라고 설명하지만 글쓰기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지닌 것은 아니며, 오히려 말을 통해 글을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글은 다양한 분야의 학문과 예술을 심오하게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며, 글을 통해서만 인간의 최고 잠재력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 1-(2)]

제시문 <나>와 <다>는 기술 발달로 인해 새로 등장한 텔레비전이라는 매체의 작용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드러낸다. 제시문 <나>의 입장에서는 제2의 구술성과 관련된 매체인 텔레비전이 개개인을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로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 주목할 것이다. 그에 따르면, 대만 여성들은 텔레비전 드라마가 전달하는 가치와 교훈을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적용시켜 내면화할 수 있었고, 인터넷 게시판과 같은 소통 창구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갖고 서로 연대하며 활발히 상호작용했다. 반면 제시문 <다>의 입장에서는 텔레비전이 각각의 개인에게 고립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데 그치기 때문에, 사람들의 사적인 욕망 충족에만 긍정적으로 작용할 뿐 공동체 의식의 증진에는 별로 기여하지 못한다고 평가할 것이다. 그에 따르면, 미국의 텔레비전 드라마가 대만 등 세계 곳곳의 시청자들에게 수용된다는 점에서 텔레비전은 세계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진다. 그러나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간단하고 즉흥적인 논의들은 대중이 서로 깊이 있게 사고하고 소통하며 연대하도록 만들지는 못하므로, 텔레비전이 세계시민주의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 2-(1)]

제시문 <라>는 서울시의 특성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연구의 결과로 얻어지는 표준편차가 달라짐을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를 500만 이상의 대규모 도시로 가정하는 경우에는 표준편차가 5점이며, 서울시를 아시아 도시로 가정하는 경우에는 표준편차가 10점이었다. 따라서 두 경우 모두, 평균적으로 디지털 매체의 사용량이 3% 증가할 때 공동체 의식의 점수가 10점으로 하락하지만, 대규모 도시로 가정하는 경우보다 아시아 도시로 가정하는 경우에 표준편차는 2배로 커지게 된다. 따라서, 대규모 도시로 가정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공동체 의식 점수의 하락이 평균을 중심으로 더 집중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의 대책은 더 큰 확실성을 가지고 세워질 수 있다.

[문제 2-(2)]

문제2-(2)는 이메일 사용량, 독서량, 협업 미디어 사용량과 공동체 의식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를 제시문 <나>, <다>와 연결해서 분석하기를 요구한다. [표 1]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메일 사용량이 적어지면 공동체 의식도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제시문 <나>에서 설명하는 글쓰기나 literacy, 또는 제2의 구술성(secondary orality)의 중요성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표 1]

의 결과는 제시문 <다>에서 이야기하는 전자우편이 세계시민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과는 상반된 것이다. [표 2]를 살펴보면, 독서량이 적은 경우, 독서량이 많은 경우와 비교해서 공동체 의식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제시문 <다>에서 강조하는 서간 문학이나 글쓰기의 중요성과 연결된다고 하겠다. [표 3]의 경우, [표 1]과 유사하게 협업 미디어의 사용이 공동체 의식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표 3]이 [표 1]과 다른 점은 협업 미디어가 이메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동체 의식을 더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협업 미디어가 이메일에 비해 제시문 <나>에서 강조하는 제2의 구술성(secondary orality)에 더 적절한 미디어임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3. 채점 기준

[문제 1-(1)]

하 : 글쓰기와 지식 발전에 관한 세 지문의 주장 가운데 하나 이상을 정확히 요약, 기술하지 못함

중 : 세 지문의 주장을 정확히 요약, 기술했으나, 체계적인 비교나 분석이 미흡함

상 : 지문의 주장을 정확히 요약, 기술하고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해 체계적인 비교, 분석을 제시함

[문제 1-(2)]

하 : 제시문 <나>, <다>의 관점을 문제의 박스 내용에 적절히 연결, 적용하지 못함

중 : 제시문 <나>, <다>의 관점을 박스 내용에 연결했으나 제대로 대비시키지 못함

상 : 제시문 <나>, <다>의 관점을 박스 내용에 체계적으로 연결해 해석하고 구체적으로 대비시킴

[문제 2-(1)]

하 : 표준편차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함

중 : 제대로 이해한 표준편차의 개념을 제시문 <라>에서 제시한 연구결과와 연결지어 설명함

상 : 표준편차와 평균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서울시 대책과 관련된 의미있는 답안

[문제 2-(2)]

하 : [표 1], [표 2], [표 3]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함

중 : [표 1], [표 2], [표 3]을 제대로 해석하고 이를 제시문 <나>, <다>와 연결지어 설명함

상 : [표 1], [표 2], [표 3]을 제대로 이해할 뿐 아니라 [표 1]과 [표 3]의 결과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며 제시문 <나>, <다>와 적절히 연결시키는 답안

답안 사례 평가

문제 1-(1)

[좋은 답안의 예]

제시문(가)는 테우트와 타무스의 일화를 들어 글쓰기가 지식 발전을 막는 장애물이라는 입장을 보여준다. 앎을 형상화한 문자는 그림과 같이 고정된 시각적 이미지일 뿐 그것이 상황에 맞게 누군가와 상호 소통할 수도 없으며, 문자 사용으로 인해 사람들은 스스로 기억하려 하지 않고 문자에 의존하여 무언가를 상기할 뿐이라는 것이다. 반면 제시문(나)와 (다)는 글쓰기가 지식 발전을 촉진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제시문(나)는 인공적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글쓰기가 지식을 기록, 축적하고 전달함으로써 인간의 정신을 고양하고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제시문(다)는 19세기 사회주의자들의 서신 교환의 예를 들어, 글쓰기가 지식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취한다. 글쓰기를 통해 그들은 사고를 합리화하고 체계화하며, 국경을 넘나드는 진정한 소통을 통해 사람들 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지식인들의 창조성을 꽃피울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제시문(가)와 제시문(다)는 상호작용과 소통을 통해 지식이 발전한다고 본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라 할 수 있지만, 제시문(가)는 그것이 말을 통해 가능하다고 보았다면, 제시문(다)에서는 말을 통한 일시적 대화와 달리 서신 교환과 같은 진지한 글쓰기를 통해 진정한 소통과 사유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본 것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설명]

문제의 요점을 잘 파악하고, 각 제시문에서 이와 관련된 주장을 상당히 정확히 파악하였다. 우선 글쓰기가 지식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의 여부에 따라 제시문(가)와 제시문(나)(다)를 구분하고, 제시문 안에서 그 근거를 잘 찾아내 요약했다. 아울러 제시문(가)와 제시문(다)에서 '상호작용과 소통'이 지식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 공통적이면서도, 글쓰기가 그 소통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입장은 다르다는 점까지 포착하여, 한층 깊이 있고 입체적 분석을 한 점이 돋보인다.

[좋지 않은 답안의 예]

(가)에서는 테우트와 타무스의 대화를 통해 글쓰기의 관점을 나타내고 있다. 테우트는 문자의 아버지로서 글을 통한 배움이 훌륭하다고 하고 있지만 타무스는 문자가 사람들을 무관심하게 해서 진정으로 배웠다고 착각하게 만든다고 하고 있다. (나)에서는 원래 말하고 쓰는 것은 인공적이라고 말하며 글쓰기는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오늘날은 말하기 기법보다는 쓰는 활동이 더 학습이 잘된다고 하고 있다. (다)는 19세기 감옥처럼 현대에도 자발적인 자택감금을 하여 의사소통을 많이 한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19세기에 좋은 영향을 끼쳤던 글쓰기는 오늘날 미디어의 발달에 따라 사적인 것이 되었다고 하고 있다.

[설명]

이 답안의 경우 우선 각 제시문의 주장을 정확히 파악, 기술하지 못하였다. 우선 제시문(가)의 경우 소크라테스와 파이드로스의 대화를 통해 제시문(가)의 전체적 주장을 파악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삽화로 들어간 테우트와 타무스 각각의 주장을 단순히 병렬하였다. 또한 제시문(나)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확한 독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시문(다)에 대해서도 오독한 흔적이 보인다. 게다가 질문의 요점인 '글쓰기와 지식 발전의 관계'에 대한 각 제시문의 입장이 어떠한지에 대한 답이 뚜렷이 제시되지 않았다.

문제 1-(2)

[좋은 답안의 예]

(나)의 입장에서는 이 사례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인터넷 게시판과 같은 전자 매체가 글쓰기의 도움을 받아 대만 고학력 여성들이 자의식적인 대화를 가능하게 했다. 그들은 글쓰기를 통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그들의 의식이 가진 가능성을 최대한 실현하고 있다. 또 그 과정에서 대만 여상들 간의 공동체 의식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 이 사례는 바람직하다. 또 텔레비전을 통해 미국의 정서적 문화가 대만의 정서적 문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도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그러나 (다)의 입장에서는 이 사례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는 글은 전달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말하기의 성격을 더 많이 띤다. 따라서 대만 여성들의 토론은 서로의 사고에 대해 진정한 논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며, 일관적인 이론들을 정립할 수 없는 대화이다. 즉 그들의 대화는 사적인 영역을 확장시키며, 텔레비전의 드라마를 통해 개인적 만족을 추구하는 과정 또한 세계민주주의를 해하는 사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례는 세계 시민 간의 대화를 활성화시키지만 진정한 공동체의 연대는 이루지 못하게 하는 전자 기술의 악영향을 보여준다.

[설명]

기술 발달로 인해 새로 등장한 TV라는 매체의 작용에 대해 제시문 (나)와 제시문 (나)가 취하고 있는 상반된 관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또 이를 토대로 대만 고학력 여성들 사이에 인기를 끌었던 미국 TV 드라마 사례를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써, 제시문 (나)의 경우 미국 TV 드라마가 지구촌의 형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공동체 의식의 추구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반면, 제시문 (다)의 경우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상호작용이 세계시민주의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하기 힘들다는 점을 잘 분석하고 있다.

[좋지 않은 답안의 예]

사례에 대한 (나)의 의견은 드라마가 영감, 대안을 제공하며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 그래서 더 영향을 미치고 공감을 불러왔다. (다)의 의견은 드라마를 통해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접근이 빨라서 인식 변화가 더 쉽게 일어난다고 하고 있다.

[설명]

이 답안은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의 관점에서 사례를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했다. 제2의 구술성과 관련된 매체인 TV가 개인들을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로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 주목하는 제시문 (나)의 견지에서 보자면, 대만 여성들은 TV 드라마가 전달하는 가치와 교훈을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적용시켜 내면화할 수 있었고, 인터넷 게시판과 같은 소통 창구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소유한 채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로 연대한다고도 볼 수 있다는 점을 잘 파악하지 못했다. 더욱이, TV가 개인들에게 고립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데 그치므로 사적인 욕망충족에만 긍정적인 작용을 할 뿐 공동체 의식의 증진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하는 제시문 (다)의 관점도 이 사례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지 못했다.

문제 2-(1)

[좋은 답안의 예]

낮은 표준편차에서 알 수 있듯이, 대도시로 여기는 경우가 아시아 도시로 여기는 경우보다, 좀 더 확정적으로 공동체 점수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는 다르게 표현하자면 전자의 경우가 후자의 경우보다 공동체 의식 감소의 정도가 좀 더 유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시아 도시로 가정하는 경우보다 대도시로 가정하는 경우에, 공동체 의식이 감소할 가능성이 더 확실하다고 여길 수 있다.

[설명]

표준편차의 크기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실제 사례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돋보임.

[좋지 않은 답안의 예]

제시문 [라]는 제2의 구술성과 관련되 디지털 매체의 사용과 공동체 지수의 관계를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매체의 사용량이 3%증가하면 공동체 의식은 10점이 내려가는 결과를 보여준다. 그러나 서울시가 500만 이상의 대도시라면 표준편차는 5점이 된다. 또한 표준편차가 적을수록 정규분포 그래프의 정점은 낮아진다. 대규모 도시보다 아시아 도시로 보았을 때가 더 광범위하므로 좀 더 파급력이 강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다르게 이야기 하자면 대규모 도시라는 측면보다 아시아 도시라고 보는 측면이 더욱 공동체 의식이 낮아진다는 점이다. 끝으로 연세대학교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바이다.

[설명]

위 답안은 문제지의 지문을 다시 부연, 요약하고 있음. 또한 표준편차가 적을수록 정규분포 그래프의 정점은 낮아진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서울시 정책에 대한 함의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하지 않음. 또는, 대규모 도시보다 아시아 도시로 보았을 때가 더 광범위하

여 좀 더 파급력이 강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한 대규모 도시로 접근하는 경우가 아시아 도시로 접근하는 경우보다 더욱 공동체 의식이 낮아진다는 서술은 잘못된 서술이다.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답안 이외의 모든 서술은 (예를 들어, "연세대학교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바이다"는) 응시자 본인을 알릴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0점 처리가 아니라 아예 결격사유가 되어 불합격 처리가 됨을 주의하여야 함.

문제 2-(2)

[좋은 답안의 예]

[표 1]은 이메일 사용량이 적을수록 공동체 의식이 낮고, 공동체 의식이 높을수록 이메일 사용량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나)의 측면에서 보면, 미디어의 발전, 즉 기술의 발전이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의 측면으로 바라본다면, 제시문 (다)와 [표 1]은 서로 대조됨으로써 둘은 함께 성립할 수 없다. [표 2]의 경우, 독서량이 많을수록 공동체 의식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독서량이 적을수록 공동체 의식의 함양이 높다는 것과 상대적으로 차이가 많이 난다. 즉, 독서량의 증대는 공동체 의식 함양의 증대를 뜻한다. (나)는 인위적으로 쓰여진 글을 말로 혹은 눈으로 읽는 독서를 통해 완전한 잠재성이 실현된다고 보았으므로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의 관점도 미디어를 통한 독서가 아닌 고전적 방식의 글 읽기는 많은 시간을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게 함으로써 최상의 도덕적 자각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표 3]은 협업 미디어의 사용이 공동체 의식의 함양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다. 제시문 (나)는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지식생산에 기여하는 협업 소셜미디어가 공동체 의식의 함양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본다. 제2의 구술성을 띠는 디지털 매체들이 구두의 표현을 더 잘하게 이끔으로써 공동체 의식에 도움이 된다고 볼 것이다. (다)는 일반 디지털 매체와 달리 협업 미디어는 여러 일반인들이 참여하여 그들이 독자적으로 지식을 형성하는 것에 의의를 둔다면 그 관계가 단순히 소수가 주고받는 감정표현과 대화형식이 아니라면, 그들이 주고받는 말과 표현이 공동체 의식의 함양에 도움이 된다고 볼 것이다.

[설명]

이 답안은 문제의 핵심을 잘 파악하고, 각각의 표와 제시문 (나), (다)의 주장을 연결시키는데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각각의 표에서 나타난 이메일 사용량, 독서량, 협업 미디어 사용량과 공동체 의식간의 관계를 제시문 (나), (다)의 관점에서 긍정할 것인지, 부정할 것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또한 이메일 사용량과 협업 미디어 사용량이 제시문 (나), (다)의 주장과도 어떻게 연결되는지 적절히 설명하였다. 추가로 [표 1]의 이메일 사용량과 [표 3]의 협업 미디어 사용량이 공동체 의식 변화에 어떠한 차이를 주는지를 포함하였다면 출제 의도에 아주 가까운 답안이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좋지 않은 답안의 예]

제시문 (라)의 연구결과를 보면, 세 표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메일, 독서량, 협업 미디어 사용량이 적고 공동체 의식도 낮은 이들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많고 높은 이는 가장 적었다. 이메일과 협업 미디어 사용량을 크게 제2의 구술성, 독서량을 제1의 구술성으로 치환해보자. 표 3개에는 공통점도 있으나, (다)는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두, 세 번째 순위의 차이라는 것에 집중할 것이다. 독서량이 많고 공동체 의식이 높은 사람이 이메일이나 디지털 협업 사용량이 많고 공동체 의식이 높은 사람보다 100여명 넘게 많았다. 이는 제1의 구술성이 제2의 구술성보다 공동체 의식 제고에 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함의한다고 볼 것이다. 반면 (나)는 제1의 구술성이든 제2의 구술성이든 공동체 의식이 높은 이들은 646명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미디어든 글이든, 의식의 재현 자체가 지식 발전에 기여하는 것에 주목할 것이다. 구술의 모방과 공동체 의식의 비례 관계에 초점을 둘 것이다.

[설명]

이 답안의 경우 [표 1], [표 2], [표 3]이 제시하는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였다. 즉, 각각의 표에서 이메일 사용량, 독서량, 협업 미디어 사용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공동체 의식이 어떻게 다른지의 관계를 살펴보지 못하고, 사람 숫자만을 통해 제1의 구술성이나 제2의 구술성이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평면적인 분석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이메일과 협업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공동체 의식의 차이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각각의 표를 제시문 (나)와 (다)에서의 주장에 견주어 설명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선생님 예시답안

문제 1-(1)

글쓰기가 지식 발전에 기여하는 지에 따라 (가)와 (나, 다)는 상반된 관점을 보인다. (가)는 글쓰기가 지식 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소크라테스는 글을 영혼이 결여된 외적 흔적으로 인식한다. 글은 그림과 마찬가지로 독자와의 상호작용이 불가능한 영상일 뿐이라는 것이다. 대화(말)만이 지혜의 참모습이며, 말로써 지식을 전달해야지만 상대에 따라 유연한 논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나)와 (다)는 글쓰기가 지식 발전을 촉진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글이 다양한 분야의 학문과 예술을 심오하게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며, 글을 통해서만 인간의 최고 잠재력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 또한 서신의 상호작용에 주목하면서, 글쓰기를 바탕으로 사고의 체계화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사상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매개체로 작

용했다고 지적한다.

그런데 (나)와 (다)는 오늘날의 구술적 성격의 글쓰기가 지식발전에 기여하는 지에 대해서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낸다. (나)는 디지털 미디어와 결합된 글쓰기 방식인 제2의 구술성의 순기능을 강조한다. 이는 과거의 웅변과 같은 성격을 지니며, 개개인을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로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반면, (다)는 매체를 통한 구술적 성격의 글쓰기는 지나치게 개별화되어 있어 일관된 논리가 형성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유기적 연대를 어렵게 하고 인류 보편적 가치를 생산해 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715자)

문제 1-(2)

(나)의 관점에서 대만의 사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는 제2의 구술성과 관련된 매체인 텔레비전이 개개인을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로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대만 여성들도 드라마가 전달하는 가치와 교훈을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적용시켜 내면화할 수 있었고, 인터넷 게시판과 같은 소통 창구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갖고 서로 연대하며 활발히 상호작용했다. 이를 통해 기술 매체의 발달이 인간의 의식을 고양시키고 잠재력을 일깨우는 데 기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다)의 관점에서 대만의 사례는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는 텔레비전이 각각의 개인에게 고립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데 그치기 때문에, 사람들의 사적인 욕망 충족에만 긍정적으로 작용할 뿐 공동체 의식의 증진에는 별로 기여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대만 여성들의 인터넷 토론은 개인적 만족을 추구한 사적인 영역의 확장일 뿐,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하기는 힘들다. 이를 통해 기술 매체를 통한 소통은 유기적 연대를 어렵게 하고 인류 보편적 가치를 생산해 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59자) 〔총 1,274자〕

문제 2-(1)

(라)는 서울시의 특성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연구의 결과로 얻어지는 표준편차가 달라짐을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를 500만 이상의 대규모 도시로 가정하는 경우와 아시아 도시로 가정하는 경우는 표준편차가 두 배 차이난다. 전자의 경우 공동체 의식 점수의 하락이 평균을 중심으로 더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구성원들의 동질성과 유사성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의 하락을 막기 위한 대책은 단순하고 명료하게 세워야 한다. 반면, 표준편차가 두 배 큰 후자의 경우로 가정한다면, 구성원들 간의 다양성과 차이가 크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의 하락을

막기 위한 대책 역시 다양한 조건을 염두에 두고 다각도로 접근해야 한다. (353자)

문제 2-(2)

〔표 1〕은 이메일 사용량과 공동체 의식이 비례관계임을 보여준다. 이는 전자기술과 결합된 글쓰기가 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높였다는 (나)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이 현상은 (다)관점에서 본다면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는 이메일이 글쓰기가 아니라 말에 가깝고, 일시적이고 개별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세계시민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표1〕에서 높게 나타난 공동체 의식은 지엽적인 특징에 불과할 것이라고 폄하할 것이다.

〔표 2〕는 독서량과 공동체 의식이 비례관계임을 보여준다. 이는 글을 통해 인간의 잠재력이 실현된다는 (나)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독서의 형태가 정보기술과 결합될 때, 공동체 의식 발현이 강화될 것이라 주장할 것이다. (다) 역시 〔표 2〕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서신 교환을 통한 창조적 정신의 발달이 유기적 연대를 이루어 공동체의 발전을 가져왔듯이, 독서의 증가가 집단의 정체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것이다.

〔표 3〕은 협업 미디어의 사용과 공동체 의식이 비례관계임을 보여준다. 이는 제2의 구술성을 강조하는 (나)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일반인들의 참여로 지식생산에 기여하는 협업 소셜미디어는 지식의 개별화를 막고 집단적 감각을 발달시켜 사회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한편 (다)의 관점은 협업 미디어 역시 매체를 통한 글쓰기 방식이기에 부정적 평가하겠지만, 이메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동체 의식을 더 강화시킬 수 있다고 부분적으로 인정할 것이다. 왜냐하면 〔표 1〕의 이메일 사용량에 따른 공동체 의식 하락 폭이 9.2%인데 비해, 〔표 3〕의 협업 미디어 사용에 따른 공동체 의식 하락 폭은 13.2%이기 때문이다. (876자)

〔총 1,229자〕